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

- 거시경제와 산업별 전망 -

동향 분석 실
주력기간산업실

2005. 7.



産業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요 약〉 1

제 1 편 거시경제전망

I. 국내경제 19

- 1. 현 경기국면의 모습 19
- 2. 대외경제 여건 22
- 3. 국내경제 전망 28
- 4. 부문별 전망 36

II. 해외경제 49

- 1. 미국경제 49
- 2. 일본경제 51
- 3. 유로경제 53
- 4. 중국경제 55

〈부록〉 58

제 2 편 산업별 전망

I. 개 관	79
1. 2005년 상반기 동향	79
2. 하반기 전망	83
3. 업종별 전망 요약	95
II. 산업별 전망	112
1. 자동차산업	112
2. 조선산업	124
3. 일반기계산업	137
4. 철강산업	149
5. 석유화학산업	160
6. 섬유산업	174
7. 가전산업	186
8. 통신기기산업	196
9. 컴퓨터산업	210
10. 반도체산업	221

〈요 약〉

1. 거시경제 전망

- 성장률은 4% 수준 : 수출증가세 둔화와 내수회복세 미약
 - 올해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여 수출증가세 둔화를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4% 수준의 성장이 예상된다.
 - 오랜 침체에 빠져 있던 내수가 다소의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아져 성장률은 수출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대외경제 여건 : 국제유가의 불안이 최대 변수
 - 주요국들의 성장세는 작년 하반기 이후 대체로 둔화되고 있으나 급격한 경기 위축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하반기 이후 유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IT산업의 회복이 가시화되어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유가는 연평균(두바이유 기준)으로 작년의 배럴당 33.8달러보다 20~25% 정도 상승한 40달러 초반에 달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주요국 통화에 비하여 과도하게 하락하여 추가적인 급락은 없을 전망이다.
 - 하반기 중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평균 1,000원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소비 : 완만한 회복세 지속

- 민간소비는 금년 1분기에도 1.4% 증가하여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올해 연간으로 3% 내외의 완만한 회복을 보일 전망이다.
 - 최근까지 소비지표들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상반기 중 민간소비 증가율은 2% 내외에 머물 전망이다.
 - 하반기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와 더불어 자생적 회복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소비증가율은 4% 내외로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 소비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가계신용 완화 등 가계의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가계의 과잉부채는 2003년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를 제약

- 고용 부진과 자영업 침체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 저조, 연금 등 사회부담금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미약
- 인구 고령화와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 등에 따른 예비적 저축 증대 및 중·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따른 전반적 소비성향 저하로 소비 위축
- 의료·교육·레저 서비스에서의 해외소비 급증과 소비의 고급화 등에 따라 소비의 국내소득 증대 효과 감소

□ 설비투자 : 하반기에 다소 호전 예상

-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왕성한 투자를 유인할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어 두 자리수의 증가율은 기대하기 어려움.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금년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되어 향후 설비투자 전망에 부정적인 신호 표출
 - 다만, 각종 경기실사조사에서 기업들의 내수경기 전망이 최악을 벗어나 설비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 설비투자는 소비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들어서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연간으로는 7%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 상반기 중 5% 정도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소비회복의 가속화에 힘입어 9%대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설비투자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의 생산성 저하와 경기전망의 불투명이라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 경영의 보수화라는 기업경영 관행상의 요인이 가세하여 나타나는 현상임.
 - 경제 전반에 걸쳐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투자수익률 저하로 인해 수익창출능력이나 기회가 부족하여 설비투자 회피
 -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국내 투자보다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높은 해외 투자를 선호
 - 외환위기 이후 산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신규투자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회피하고 안정성 위주의 소극적 투자를 선호
 - 내수 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내수의존형 중소기업부문이나 서비스산업에서의 설비투자 부진 지속
- 건설투자 : 하반기에 회복 기대
 - 건설투자는 올해 1분기에도 2.9% 감소하여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올해 연간 전체

로 1%대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작년 4분기 이후 국내건설수주가 20%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하반기 이후 건설투자의 회복이 기대됨.
- 또한, 하반기에 정부가 계획 중인 종합투자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공공건설을 중심으로 건설경기 부양효과가 기대됨.

□ 수출입 : 수출 증가율은 두 자리수 유지

- 수출은 작년 30%가 넘는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와 환율 하락, 고유가 등 이중 악재로 인해 증가세가 낮아지는 반면, 수입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증가세가 높아지는 모습임.
- 수출은 5월까지 11.1%의 두 자리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10% 내외의 증가를 보여 연간 전체로는 10.6% 증가한 2,80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 업종별로는 호조업종(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과 부진업종(컴퓨터, 가전)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임.
- 수입은 5월까지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14.8%의 증가를 보인데 이어, 하반기에도 14% 내외의 증가를 보여 연간 전체

로는 14.7% 증가한 2,57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 증가는 원유, 철강, 금속 등 원자재가 주도하고 있으나 일부 기계류 수입도 가세됨.

주요 거시지표 전망

단위 : %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실질GDP	5.4	3.9	4.6	3.3	4.6	4.0
민간소비	-0.9	-0.1	-0.5	1.9	3.9	2.9
총고정자본형성	3.4	0.7	1.9	1.8	5.5	3.7
설비투자	3.0	4.6	3.8	5.1	9.5	7.3
건설투자	4.1	-1.3	1.1	-0.2	3.0	1.6
수출(억 달러)	1,233	1,306	2,538	1,371	1,436	2,807
(증가율, %)	(38.4)	(24.7)	(31.0)	(11.2)	(10.0)	(10.6)
수입(억 달러)	1,081	1,164	2,245	1,246	1,328	2,574
(증가율, %)	(25.8)	(25.3)	(25.5)	(15.3)	(14.1)	(14.7)
수출입 차	152	142	294	124	108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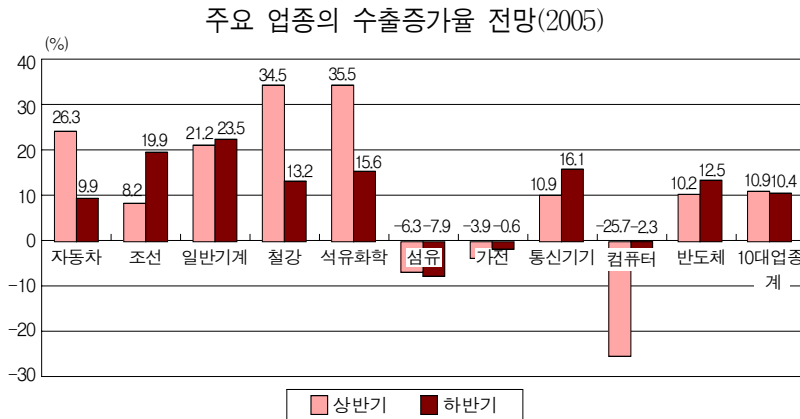
II. 산업별 전망

□ 내수 회복과 수출증가세 유지로 산업성장 여건 개선

- 10대 주력업종의 달러기준 하반기 수출증가율이 10.3%로 상반기 추세를 유지하고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산업의 성장여건은 개선될 전망
 - 조선, 일반기계, 철강, 가전 및 통신기기의 실질 수출증가율이 상반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섬유 및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수출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실질기준 내수는 자동차,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회복추세를 이어갈 전망
 - 특히 자동차의 실질기준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감소에서 증가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및 반도체의 실질기준 증가율도 상반기 수준을 상회하거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 상반기 대비 수출 증가율 다소 감소

- 수출증가세가 상반기에 비해 달러기준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요 업종에서 실질기준 여전히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전망



주 : 달러기준 명목금액 증가율.

- 전통주력부문의 경우 달러기준 조선의 하반기 수출증가율이 상반기보다 배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반기계는 2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석유화학, 철강의 수출증가율도 1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IT주력부문도 달러기준 통신기기 및 반도체의 수출증가율이 1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가전 및 컴퓨터의 수출 감소도 상반기보다 감소 폭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내수는 내구 소비재 중심으로 회복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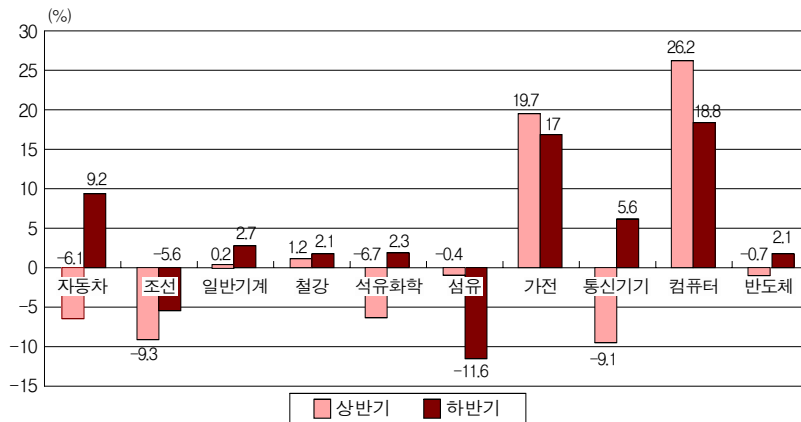
- 내수는 대기수요 가시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자동차,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회복될 전망

- 전통주력부문의 경우 특히 자동차의 내수는 특소세 인하 연장 및 대기수요의 가시화로 전년동기 감소에서 9.2%의 증가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IT주력부문에서는 디지털방송의 확대로 대기수요의 가시화가 예상되는 가전, 신제품에 대한 대체수요 및 DMB 서비스 수요가 예상되는 통신기기,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컴퓨터의 경우도 실질기준 높은 내수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 연구개발 및 합리화투자 중심으로 투자회복 기대

-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가 국내에서 크게 이뤄질 가능성 희박

주요 업종의 내수 증가율 전망(2005)



주 : 실질기준임.

-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해외생산 및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차별화, 고부가가치 신제품개발이나 자동화, 에너지절약, 환경, 합리화 등과 관련된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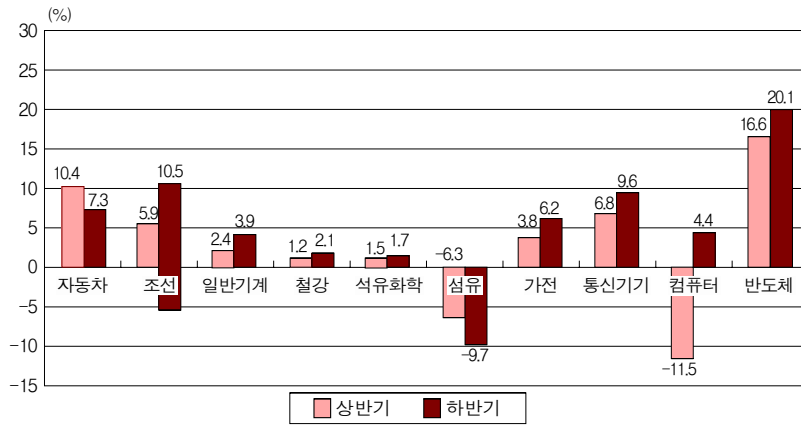
□ 생산은 상반기보다 개선될 전망

- 하반기 실질기준 생산은 수출증가세 유지와 내수 증가의 영향으로 상반기보다 개선될 전망
 - 전통주력부문에서는 섬유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생산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조선, 일반기계의 경우는 상반기 생산증가율을 상회할 전망이다.
 - IT주력부문에서는 모든 업종에서 생산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가전, 통신기기 및 반도체의 경우는 상반기 생산증가율을 상회할 전망이다.

□ 수입은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나 증가율은 크게 둔화

-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및 통신기기 등의 수입증가율은 상반기보다 늘어났으나 10대 업종 전체의 금액기준 수입증가율은 크게 둔화

주요 업종의 생산증가율 전망(2005)



주 : 실질기준임.

- 전통주력부문의 경우 실질기준 수입이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된 업종은 일반기계, 석유화학으로 나타났고, 자동차, 철강은 상반기 대비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 IT주력부문의 경우 가전의 실질기준 수입이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고 통신기기는 핵심부품의 수입 확대로 수입이 증가하여 상반기 대비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제1편

거시경제 전망

I. 국내경제	19
1. 현 경기국면의 모습	19
2. 대외경제 여건	22
(1) 국제유가	22
(2) 환 율	25
(3) 주요국 경기	26
3. 국내경제 전망	28
(1) 개 요	28
(2) 부문별 전망	30
4. 부문별 전망	36
(1) 민간소비	36
(2) 투 자	41
(3) 수출입	45
II. 해외경제	49
1. 미국경제	49
2. 일본경제	51
3. 유로경제	53
4. 중국경제	55
<부 록>	58

〈표 I-1〉 국제유가 추이	22
〈표 I-2〉 국제유가 전망	24
〈표 I-3〉 주요국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 변화율	25
〈표 I-4〉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와 전망	27
〈표 I-5〉 주요국의 무역의존도(2004년)	30
〈표 I-6〉 실물경제 지표 동향	35
〈표 I-7〉 거시지표 전망	36
〈표 I-8〉 소비관련 지표 추이	37
〈표 I-9〉 설비투자 관련지표 증가율 추이	41
〈표 I-10〉 산업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42
〈표 I-11〉 제조업 경상이익 규모와 투자 증가율	43
〈표 I-12〉 건설투자 관련지표 증가율 추이	44
〈표 I-13〉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47
〈표 II-1〉 미국의 주요 경제성장 내역	50
〈표 II-2〉 일본의 주요 경제성장 내역	52
〈표 II-3〉 유로권의 주요 경제성장 내역	54
〈표 II-4〉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56

〈그림 I-1〉 실질 GDP 성장률 및 항목별 기여도 추이	19
〈그림 I-2〉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증가율 추이	20
〈그림 I-3〉 2003년 이후 국제 원유가 추이	23
〈그림 I-4〉 OPEC의 원유 생산량과 추가 생산여력	24
〈그림 I-5〉 소비성향과 소득격차의 변화추이	38
〈그림 I-6〉 소비심리지표의 추이	40
〈그림 I-7〉 최근 수출입 추이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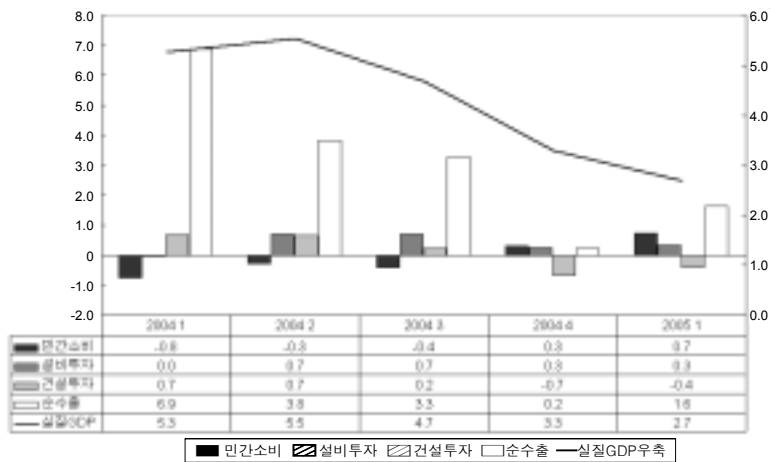
1. 국내경제

1. 현 경기국면의 모습

□ 수출증가 둔화와 내수회복 미약

- 최근 국내경제는 내수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수출증가세는 둔화되어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축소되는 모습임(〈그림 I-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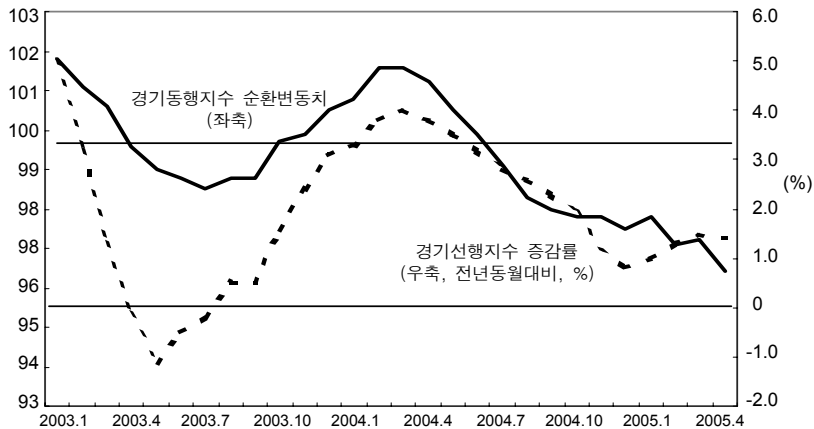
〈그림 I-1〉 실질 GDP 성장률 및 항목별 기여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그러나, 내수 회복세가 수출증가세 둔화를 상쇄하여 경기를 견인할 정도는 아니어서 전체적으로는 저성장세가 이어지면서 회복하고 있는 모습임.
 - 소비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설비투자도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건설투자는 감소세가 지속되어 내수회복이 미약함.
- 경기종합지수로 볼 때 경기선행지수 등락률이 상승세로 돌아서 미약하나마 경기국면의 반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으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여전히 회복 내지 하락세임 (<그림 I-2> 참조).

<그림 I-2>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 통계청.

- 내수 선행지표들의 회복세가 미약하여 경기선행지수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상승하는 모습임.

□ 불확실성 지속으로 경기회복 기대감 후퇴

- 연초에 정부의 강력한 경기활성화 의지와 국제유가의 안정에 힘입어 기대지표들이 일제히 상승했으나, 경기활성화 효과 미흡과 유가 재상승 등으로 4월 이후 주춤하는 모습임.

- 소비자자기대지수는 1분기 중 강한 상승세를 보여 100선을 넘어섰으나, 2분기 이후에는 횡보 내지 하락하는 모습
- 기업들의 경기전망지수(BSI) 역시 소비자자기대심리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꺾이고 있어 아직도 비관적 경기전망이 우세한 상황임.

* 소비자자기대지수(6개월 후의 소비전망)

- 90.3(1월) → 99.4(2월) → 102.2(3월) → 101.3(4월)
→ 99.2(5월)

* 한은 경기실사지수(BSI) 전망(해당 월의 경기전망)

- 69(1월) → 73(2월) → 87(3월) → 91(4월) → 91(5월)
→ 84(6월)

2. 대외경제 여건

(1) 국제유가

□ 국제유가는 하반기에 다소 하락 전망

-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4월 이후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었으나,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최근에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임.
 - 우리의 주도입 유종인 두바이유의 5월 평균 가격은 45.4 달러로 작년 평균 대비 34.6% 상승한 상태
- 향후 국제유가는 세계적인 수요 둔화와 OPEC의 생산량 조절에 의해 하반기 이후 완만한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나, 생산여력의 부족으로 수급차질에 따른 상승 위험은 여전히 큰 상태임.

〈표 1-1〉 국제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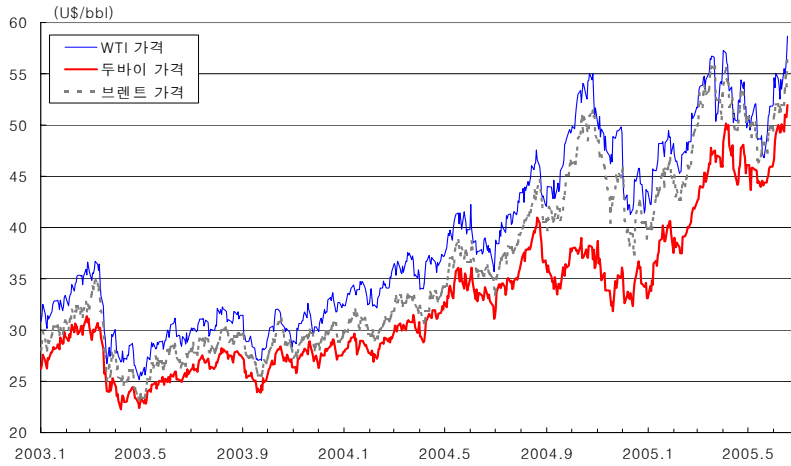
단위 : 달러/배럴

	2003	2004	2005					
			1월	2월	3월	4월	5월	6.1~15
WTI	31.08	41.50	46.84	47.96	54.27	52.94	49.91	54.35
브렌트	28.81	38.36	44.44	45.37	52.96	50.90	48.33	51.99
두바이	26.80	33.74	37.97	39.91	45.85	47.21	45.41	49.56

자료 : Reuters.

주 : 기간평균 기준임.

〈그림 1-3〉 2003년 이후 국제 원유가 추이



자료 : Reuters.

- 올해 연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의 배럴당 33.7 달러보다 20~25% 정도 상승한 40달러 초반에 달할 전망이다.
- IEA에 따르면 OPEC의 원유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생산능력은 개선되고 있지 않아 OPEC의 증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생산 여력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표 1-2〉 국제유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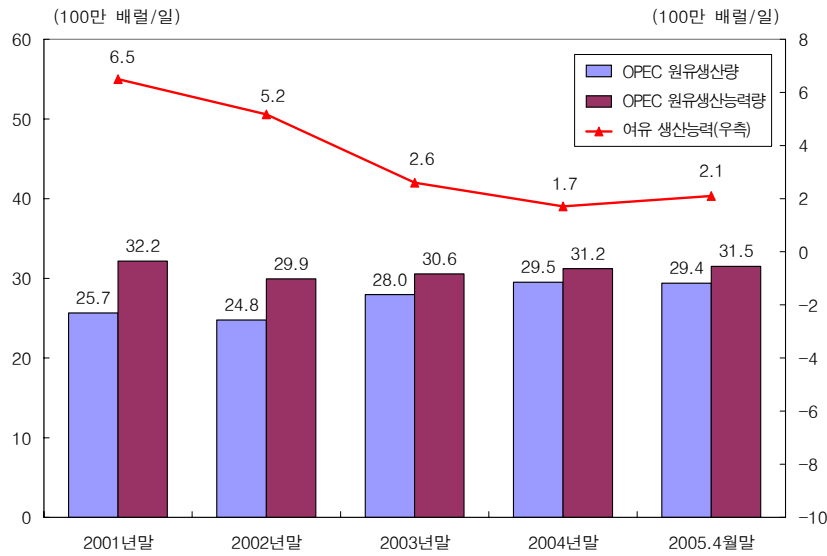
단위 : 달러, %

	2004				2005			
	IMF	WB	EIU	BM	IMF	WB	EIU	BM
원유가격 ¹⁾	37.8	37.7	38.5	41.5	46.5	42.0	46.0	46.8
(상승률)	(30.7)	(30.4)	(33.6)	(33.4)	(23.2)	(11.4)	(19.5)	(12.5)

자료 : IMF, World Bank(WB), EIU, Bank of Montreal(BM).

주 : IMF는 3대 유종 가중평균 가격, WB는 OPEC 바스켓 가격, EIU는 브렌트유, BM은 WTI유 기준임.

〈그림 1-4〉 OPEC의 원유 생산량과 추가 생산여력



자료 : IEA.

(2) 환 율

□ 원/달러 환율은 현 수준에서 추가 급락 가능성 낮아

- 약 3년 간 지속되어 오던 달러약세 기조가 지난 3월 중순 이후 강세로 반전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미 달러에 대한 주요국 통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원화만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 작년 말 대비 금년 5월말 현재, 원화 환율은 미 달러화에 대하여 2.6% 추가 하락(원화 가치 상승)
- 최근 2~3년 간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유로화나 호주 달러에 비하여 하락 폭이 작으나 엔화나 다른 아시아국가 통화에 비해서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함(〈표 I-3〉 참조).

〈표 I-3〉 주요국 통화의 대미 달러 환율 변화율

단위 : %

	한국	일본	유로	영국	호주	싱가포르	태국
2000	-20.3	-5.6	-24.5	-18.1	-26.6	-4.2	-6.9
2001	-23.3	-17.8	-29.1	-20.5	-32.7	-10.1	-8.6
2002	-15.0	-8.9	-16.1	-12.1	-25.5	-4.3	-6.6
2003	-15.5	0.9	0.5	-2.5	-1.5	-2.5	1.9
2004	-2.6	4.7	9.2	5.5	2.4	1.5	3.6

주 : 각 연도 말 대비 2005년 5월말 현재 변화율(-는 하락, +는 상승).

- 미 달러화는 미국경기의 흐름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감, 미국의 무역적자 부담 우려, 위안화 절상 기대감 등의 요인에 의해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나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추가적인 급락은 없을 전망이다.
- 하반기 중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평균 1,000원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3) 주요국 경기

□ 주요국들의 성장세는 지난해보다 약간 둔화

- 주요국들의 성장세는 작년 하반기 이후 대체로 둔화되고 있으나 급격한 경기위축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고유가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 유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IT산업의 회복이 가시화되어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2005년 중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건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나, 성장률은 2004년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 미국경제는 2004년의 4.4%에서 2005년에는 3.5%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유로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05년 성장률은 2004년의 2.0%에 비해 소폭 하락한 1.5% 내외를 기록할 전망
- 일본경제는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나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며 2005년 성장률은 2004년의 2.7%보다 약간 낮은 1% 내외를 기록할 전망
- 중국경제는 정부의 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도 8%를 웃도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표 1-4〉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

	2004					2005	
	1/4	2/4	3/4	4/4	연간	1/4	연간(전망)
OECD	3.7	3.7	3.3	3.0	3.4	-	2.6
미 국	5.0	4.8	4.0	3.9	4.4	3.6	3.6
일 본	4.5	3.2	2.6	0.6	2.7	1.2	0.8
유 로	1.5	2.2	1.8	1.6	2.0	1.4	1.6
중 국	9.8	9.6	9.1	9.5	9.5	9.5	8.5

자료 : OECD, 미 상무부, 일본 내각부, 유로통계청(Eurostat), 중국 국가통계국.

주 : 전년 동기비 기준

3. 국내경제 전망

(1) 개요

□ 내수는 구조적 요인이 회복 제약

- 소비와 투자를 견인할 만한 자생적 요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소비는 고용 부진과 고령화 등에 대비한 예비적 저축 증대,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가처분소득의 항상적인(permanent)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설비투자 역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은 있으나 투자의욕 및 기회의 부족과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투자 기피로 대체투자 외에는 신규투자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의지와 정책선택에 따라 빠른 회복 가능
- 최근의 원화 강세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증대와 수입자본재 가격 하락 등이 소비와 투자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국제유가의 급등이라는 악재가 원화 강세의 긍정

적인 효과를 상당 부분 잠식할 가능성

□ 수출은 대외여건의 악화 여부가 변수

- 수출은 현재의 대외여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면 성장을 견인할 정도는 아니나 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그러나, 산업구조의 양극화 심화로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가 단절되어 있어 수출의 내수 회복에 대한 기여는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원화 강세기조는 현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수출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작년 4분기 이후 원화 환율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원화 강세의 수출에 대한 영향은 시차를 두고 완화될 전망이다.
- 오히려 중국경제의 경착륙, 유가 재급등 등 다른 해외악재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우려해야 할 상황임.

□ 경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정책대응 필요

- 국내 실물경제는 해외부문에 의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대외변수의 변화에 취약해진 상황임.

〈표 1-5〉 주요국의 무역의존도(2004년)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70.3	19.5	21.9	70.0	112.0

주 : 무역의존도 = 무역액 / 명목GDP.

- 최근의 실물경기 흐름을 보면 내수회복이 미약하여 완충 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유가 불안 등의 요인으로 수출입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방위험이 증가되는 모습임.
- 국내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오랜 침체에 빠져 있던 내수가 다소의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성장률은 수출입의 영향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 따라서, 내수회복이 미약한 상황이 지속되면 환율 및 수출입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전망

□ 민간소비 : 완만한 회복세 지속

- 민간소비는 작년 4분기에 0.6% 증가로 돌아선 후, 금년 1분기에도 1.4% 증가하여 회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나 올해

연간으로 3% 내외의 완만한 회복을 보일 전망이다.

- 최근까지 소비지표들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상반기 중 소비증가율은 2% 내외에 머물 전망
 - 하반기에는 재정 조기 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되어 경기의 자생적 회복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소비증가율은 4% 내외로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 소비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가계신용 완화 등 가계의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가계의 과잉부채는 2003년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를 제약
 - * 2004년 가계부채는 처분가능소득의 1.2배, 신용불량자수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5%
 - 고용 부진과 자영업 침체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 저조, 연금 등 사회부담금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미약
 - 인구 고령화와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 등에 따른 예비적 저축 증대 및 중·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에 따른 전반적 소비성향 저하로 소비 위축

- 의료·교육·레저 서비스에서의 해외소비 급증과 소비의 고급화 등에 따라 소비의 국내소득 증대 효과 감소

□ 설비투자 : 하반기에 다소 호전 예상

- 설비투자는 작년 2분기 이후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왕성한 투자를 유인할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어 두 자리수의 증가율은 기대하기 어려움.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금년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되어 향후 설비투자 전망에 부정적인 신호 표출
 - 다만, 각종 경기실사조사에서 기업들의 내수경기 전망이 최악을 벗어나 설비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 설비투자는 소비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들어서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연간으로는 7%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 상반기 중 5% 정도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소비회복의 가속화에 힘입어 9%대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설비투자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의 생산성 저하와 경기전망의 불투명이라는 경제적 요인 이외에

경영의 보수화라는 기업경영 관행상의 요인이 가세하여 나타나는 현상임.

- 자본의 축적에 비해 기술이나 인적 자본의 축적이 미비하여 전반적으로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투자수익률이 저하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투자의 양극화 발생
-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국내 투자보다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높은 해외투자를 선호
- 외환위기 이후 산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신규투자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회피하고 안정성 위주의 소극적 투자를 선호
- 내수 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내수의존형 중소기업부문이나 서비스산업에서의 설비투자 부진 지속

□ 건설투자 : 하반기에 회복 기대

- 건설투자는 올해 1분기에도 2.9% 감소하여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인다 해도 올해 전체로 1%대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작년 4분기 이후 국내건설수주가 20%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하반기 이후 건설투자의 회복이 기대됨.

- 또한, 하반기에 정부에서 계획 중인 종합투자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공공건설을 중심으로 건설경기 부양효과가 기대됨.

□ 수출입 : 수출증가율은 두 자리수 유지

- 수출은 작년 30%가 넘는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와 환율 하락, 고유가 등 이중 악재로 인해 증가세가 낮아지는 반면, 수입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음.
- 금년 1분기 중 수출물량은 8.1%, 수출단가는 2.9% 각각 상승한 반면, 수입물량은 0.4%, 수입단가는 11.2% 각각 상승함.
- 수출은 5월까지 11.3%의 두 자리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10% 내외의 증가를 보여 연간 전체로는 10.6% 증가한 2,80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 업종별로는 호조업종(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과 부진업종(컴퓨터, 가전)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수입은 5월까지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14.8%의 증가를 보인데 이어, 하반기에도 14% 내외의 증가를 보여 연간 전체로는 14.7% 증가한 2,57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표 1-6〉 실물경제 지표 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

	2004			2005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GDP성장률	4.6*	4.7*	3.3*	2.7*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0.5*	-0.8*	0.6*	1.4*	-	-	-	-
도소매업판매액지수	-0.9	-1.1	-1.4	-1.1*	-2.9	-1.6	1.4*	-1.2*
설비투자(국민계정)	3.8*	6.8*	2.5*	3.1*	-	-	-	-
설비투자추계	1.4	3.8	0.1	4.3*	16.0	-3.5	1.4*	-0.3*
국내기계수주	6.8	-6.6	-5.4	-6.9*	0.8	-18.7	-3.2*	-10.3*
건설투자(국민계정)	1.1*	1.3*	-3.4*	-2.9*	-	-	-	-
건설기성액	11.0	14.8	4.4	3.0*	4.9	-2.4	5.3*	8.3*
국내건설수주	-5.3	-20.8	28.8	24.8*	14.9	-20.0	72.7*	-29.1*
산업생산지수	10.4	11.4	6.7	3.8*	14.3	-7.3	4.9*	3.8*
출하지수	9.1	10.1	5.8	3.4*	12.4	-6.1	4.4*	-2.6*
재고지수	9.4	5.2	9.4	9.2*	12.9	9.3	9.3*	11.8*
제조업가동률(당기)	80.3	79.2	80.4	80.0*	81.9	77.2	80.9*	-78.9*
서비스업 활동지수	0.6	-0.5	-0.2	0.7*	1.0	-0.5*	1.6*	1.8
수출증가율	31.0	28.9	21.2	12.8	18.1	6.6	13.2	6.9
수입증가율	25.5	27.3	23.6	14.1	19.7	5.0	18.3	12.5
무역수지(억 달러)	293	69	72	66	30	21	14	18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주 : 제조업 가동률은 당기수치, *는 잠정치.

- 수입증가는 원유, 철강, 금속 등 원자재가 주도하고 있으나 일부 기계류 수입도 가세

〈표 1-7〉 거시지표 전망

단위 : %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상반기	하반기	연 간
실질GDP	5.4	3.9	4.6	3.3	4.6	4.0
민간소비	-0.9	-0.1	-0.5	1.9	3.9	2.9
총고정자본형성	3.4	0.7	1.9	1.8	5.5	3.7
설비투자	3.0	4.6	3.8	5.1	9.5	7.3
건설투자	4.1	-1.3	1.1	-0.2	3.0	1.6
수출(억 달러)	1,233	1,306	2,538	1,371	1,436	2,807
(증가율, %)	(38.4)	(24.7)	(31.0)	(11.2)	(10.0)	(10.6)
수입(억 달러)	1,081	1,164	2,245	1,246	1,328	2,574
(증가율, %)	(25.8)	(25.3)	(25.5)	(15.3)	(14.1)	(14.7)
수출입 차	152	142	294	124	108	232

4. 부문별 전망

(1) 민간소비

□ 소비침체의 구조적 성격에 의해 완만한 회복 전망

- 민간소비는 2003~2004년을 통하여 6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는 극심한 침체를 보이다가 2004년 4분기부터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2005년 1/4분기 민간소비는 1.4% 증가로 매우 완만한 증가에 그침.

〈표 1-8〉 소비관련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04				2005		
	1/4	2/4	3/4	4/4	1/4	2월	3월
민간소비	-1.3	-0.5	-0.8	0.6	1.4	-	-
도소매판매	-0.2	-0.6	-1.1	-1.4	-1.1	-1.6	1.3
소비재출하	-1.3	-1.5	-2.7	-4.0	-5.0	-11.2	-3.5
(내구소비재)	-6.0	-7.9	-7.6	-6.4	-6.6	-17.0	-1.0
(비내구소비재)	1.1	1.8	-0.3	-2.9	-4.3	-8.3	-4.7
소비자기대지수	96.2	95.6	88.5	86.6	97.3	99.4	1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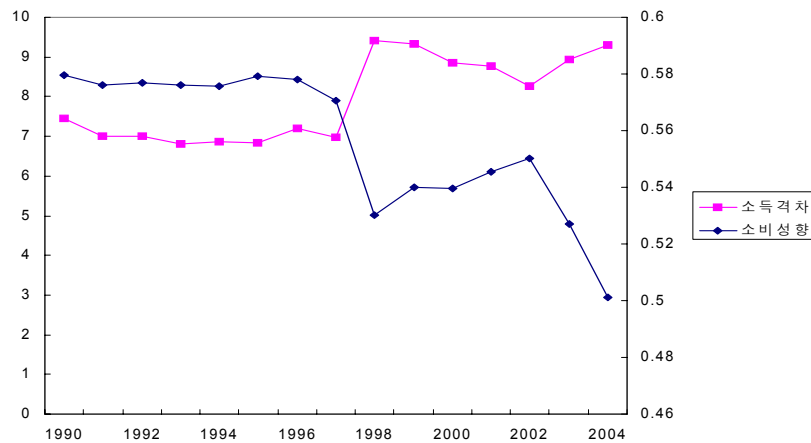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소비자자기대지수는 각 분기의 월 평균치.

- 일반적으로 소비는 변동성이 작은 지출항목이나, 최근 경기의 특징은 소비가 다른 지출항목에 비해 오히려 큰 폭의 침체를 보이면서 경기부진을 주도하고 있음.
- 최근의 소비침체는 순환적 요인과 아울러 분배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 등 구조적 요인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외환위기 직후 및 2002년 이후 소비성향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 양극화 및 분배격차 확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소비성향(실질 민간소비지출/국내총지출)은 1990년대 평균 0.564에서, 외환위기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2004년에는 0.491로 약 13% 하락함.

- 소득 양극화는 소비성향이 높은 중·저소득 계층의 소득 위축을 통해 전체경제의 소비성향 하락을 초래함.
- 실제로 소득격차와 소비성향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 (1990~2004년간의 상관관계 -0.92)를 보임(<그림 I - 5> 참조). 가계소득 격차 확대에 의한 소비성향 하락 효과는 2000년 이후 실제 소비성향 하락 폭의 약 70%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됨.¹⁾

<그림 I -5> 소비성향과 소득격차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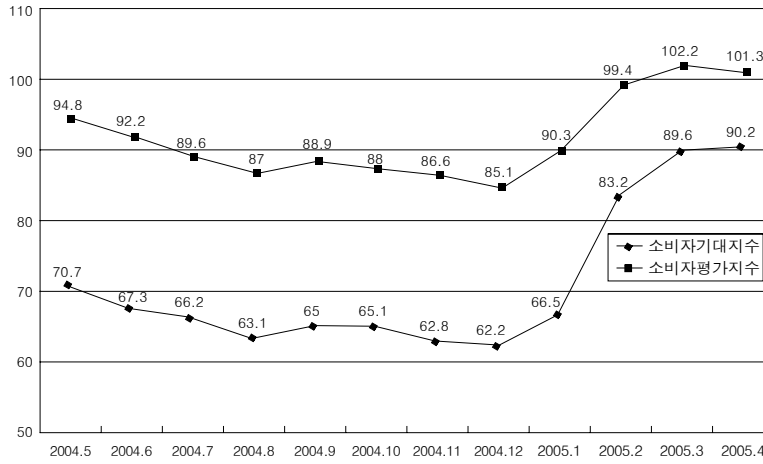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 소득격차는 최상위 10% 소득/최하위 10% 소득의 비율(우축), 소비성향은 실질민간소비/국내총지출(좌축).

1) 강두용, 『소비부진의 구조적 원인 : 소득 양극화 및 분배구조 변화와 소비성향의 하락』(Issue Paper 2005-186), 산업연구원, 2005 참조

- 이같은 소비침체의 구조적 성격은 소비회복이 비교적 쉽지 않으며,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완만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향후 소비의 변화는 단기적 변수로는 해외경기에 따른 수출증가세 변화, 종합투자계획 등 정부 경기대책의 효과 등에 의해, 중장기적 변수로는 가계부채의 조정 추이, 분배구조 변화와 연관된 소비성향 변화 추이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의 중기적 변화 추이에 영향을 미칠 변수인 가계부채나 분배구조 변화 추이는 아직까지 소비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가계부채 문제는 2003년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수준(2004년 가계부채는 처분가능소득의 1.2배, 신용불량자수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5%)으로 당분간 원리금 상환부담 등을 통해 소비증가를 제약할 것임.
 - 소비성향의 주요 결정변수인 가계소득 격차는 1분기 들어 더욱 확대되는 추이를 보여 소비성향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함(소득 5분위 배율 2004년 4분기 5.69 → 2005년 1분기 5.87).

〈그림 1-6〉 소비심리지표의 추이



- 단기적으로 향후 소비를 전망해보면, 속도성 지표나 선행지표의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으나 뚜렷한 회복조짐은 보이지 않아 2005년 상반기까지는 1분기 증가세를 크게 넘지 못하는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하반기에는 완만하나마 경기의 자생적 회복력이 좀 더 확산되고 종합투자계획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볼 때, 상반기보다는 소비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전체적으로 회복세는 완만하여 연간 전체로 본 소비증가율은 3%에 못 미치는 낮은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2) 투 자

1) 설비투자

□ 소비회복 추이와 수출증가세의 변화 여부가 주요 관건

- 설비투자는 작년 2분기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완만한 증가에 머물고 있음.
 - 2005년 1분기에는 3.1%의 증가를 보임.
 - 2003년 하반기 이후 생산능력 증가율이 생산증가율에 못 미쳐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2004년 하반기 감소세로 돌아선 이래 2005년 1분기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상반기 중에는 높은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표 1-9〉 설비투자 관련지표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04				2005		
	1/4	2/4	3/4	4/4	1/4	2월	3월
설비투자	-0.3	6.2	6.8	2.5	3.1	-	-
설비투자 추계	-2.0	3.2	3.8	0.1	4.3	-3.5	2.2
국내기계수주	19.6	19.2	-6.6	-5.4	-6.9	-18.8	-3.3
설비투자조정압력(%p)	8.0	8.1	6.1	2.2	-0.1	-11.7	1.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은 소비부진, 기업행태의 보수화, 해외투자 확대, 기업활동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가장 핵심은 역시 소비의 침체에 있다고 여겨짐.
- 부문별로 살펴볼 때, 수출비중이 높은 정보통신업종이나 대기업부문의 설비투자는 비교적 양호한 반면, 소비와 직결되는 서비스산업 등 내수형 업종이나 중소기업부문의 설비투자가 매우 부진함.
 -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행태의 보수화 경향과 최근의 해외투자 확대추이가 국내설비투자 확대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나 투자부진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표 1-10〉 산업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단위 : 조원, %

	2003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산업	43.4	12.1	56.3	29.7	64.4	14.4
제조업	26.4	24.8	37.9	43.2	43.2	13.9
대기업	24.7	27.4	36.1	45.9	41.4	14.5
중소기업	1.7	-3.4	1.8	3.8	1.8	2.3
IT업종	12.5	54.7	21.6	72.8	23.1	6.8
비IT업종	13.9	6.4	16.3	16.7	20.1	23.4
비제조업	17.0	-3.4	18.4	8.5	21.2	15.4

자료 : 산업은행, 『설비투자 계획조사』.

주 : 2005년은 계획치.

〈표 1-11〉 제조업 경상이익 규모와 투자 증가율

단위 : 조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제조업 경상이익 규모	7.9	1.9	28.9	31.0	60.4
매출액경상이익률	1.3	0.4	4.7	4.7	7.8
국내설비투자 증가율	33.6	-9.0	7.5	-1.5	3.8
해외직접투자 증가율	59.0	-49.7	39.4	24.6	59.1

자료 :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주 : 설비투자는 실질증가율, 해외직접투자는 명목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 - 회수금액) 기준.

- 저금리와 높은 수익률에 힘입어 기업의 자금사정은 매우 양호한 편임.
- 2분기 이후 설비투자 전망은 소비회복 추이와 수출증가세의 변화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 금리추이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의 자금사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해외경기와 환율변화 등에 따른 수출증가세의 둔화 정도와 소비의 회복 여부가 설비투자의 관건이 될 것임.
- 2005년 상반기에는 약 5% 정도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좀더 가속화되면서 9%대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연간 전체로는 7% 정도의 증가가 예상됨.
- 이는 하반기 이후 완만하나마 소비가 회복추이를 보이고 수출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임.

2) 건설투자

□ 하반기 정부의 종합투자계획 시행에 따른 부양효과 기대

○ 건설투자는 2004년 하반기부터 부동산투기 억제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2004년 4분기와 2005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음.

- 다만 선행지표인 국내 건설수주액이 2004년 4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2005년 2분기에는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표 1-12〉 건설투자 관련지표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2004				2005		
	1/4	2/4	3/4	4/4	1/4	2월	3월
건설투자	4.9	3.6	1.3	-3.4	-2.9		
건설기성액	14.7	12.3	14.8	4.4	3.0	-2.4	5.8
국내건설수주	-9.2	-23.8	-20.8	28.8	24.8	-20.0	72.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2005년 중 건설투자는 과거 부동산경기 호황기에 발생한 공급과잉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책의 영향으로 대체로 부진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하반기 이후 정부에서 계획 중인 종합투자계획 등 적극적인 총수요 확대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공공건설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부양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2005년 건설투자 전망은 2005년 상반기에는 1분기의 침체 여파로 0% 증가에 가까운 부진이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공공투자 등에 힘입어 3% 정도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연간 전체로는 1%대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

(3) 수출입

□ 2005년 무역흑자, 232억 달러로 견조한 수준 유지

- 2005년 무역수지는 환율하락, 고유가 등 불리한 대외여건으로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입은 높은 증가세를 보여 흑자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든 232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 수출은 10.6% 증가한 2,807억 달러, 수입은 14.7% 증가한

2,57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들어 수출은 작년 높은 증가율에 따른 통계적 하락 요인과 함께 환율하락, 고유가,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5월까지 증가율이 11.3%로 둔화되었음.
 - 반면, 수입은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가격 강세, 내수의 부분적인 회복에 힘입어 수출증가율을 상회한 14.8%의 증가율을 기록함.
- 물량과 가격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3월까지 수출은 물량이 8.1% 증가, 가격이 2.9% 상승하여 아직까지는 세계경기 둔화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입의 경우, 국내경기 침체를 반영하여 물량은 0.4% 증가한 데 반해, 국제 원자재가격 강세 등으로 가격은 11.2%나 상승하였음.

□ 하반기에도 안정적 수출증가세 유지 전망

-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기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원화 환율의 급락세도 진정됨으로써 상반기 11.2% 증가에 이어, 하반기에도 10.0%의 안정적인 수출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IT제품의 가격 회복, 위안화 절상, 고유가 지속 여부 등이

하반기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수출기조를 바꿀 정도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하반기에도 수입은 고유가, 수출용 수입수요 증가 등으로 상반기(15.3%)와 비슷한 14.1% 증가를 보여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표 1-13〉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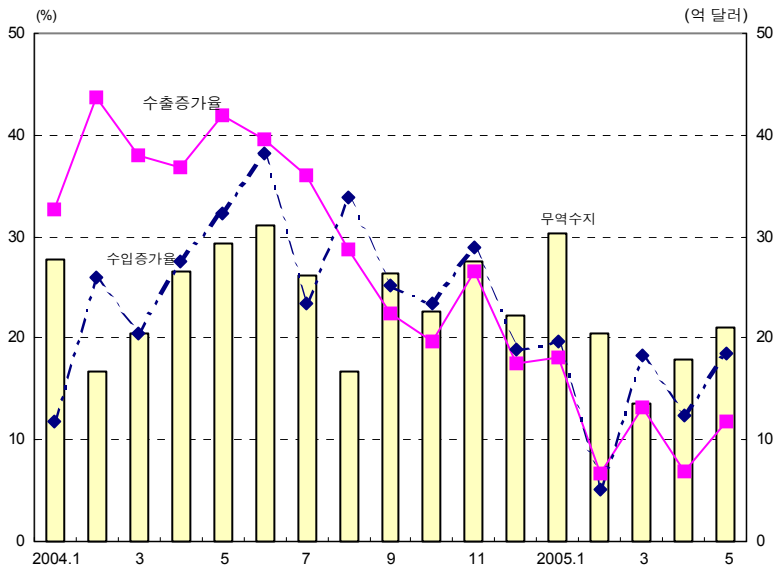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2003	2004	2005.1.1~5.20
중화학제품	164,446 (22.4)	221,388 (34.6)	92,631 (16.3)
반 도 체	19,535 (17.5)	26,516 (35.7)	11,114 (14.4)
무선통신기기	18,697 (37.3)	26,223 (40.3)	9,993 (9.9)
컴 퓨 터	14,977 (15.7)	17,123 (14.3)	5,235(-26.5)
자 동 차	19,119 (29.4)	26,577 (39.0)	11,285 (29.1)
철 강 제 품	9,282 (31.4)	13,384 (44.2)	6,332 (40.7)
석 유 화 학	11,917 (28.6)	17,015 (42.8)	7,958 (44.1)
일 반 기 계	11,767 (27.1)	16,839 (43.1)	7,860 (24.9)
가 정 용 전 자	12,610 (17.2)	15,495 (22.9)	5,718 (-4.8)
선 박	11,334 (4.3)	15,767 (38.1)	7,402 (15.6)
경공업제품	24,081 (-0.3)	25,572 (6.2)	9,620 (3.3)
직 물	8,307 (-4.1)	8,350 (0.5)	3,046 (-3.0)
섬 유 제 품	4,601 (-6.8)	4,343 (-5.6)	1,293(-12.5)
플 라 스 틱	2,555 (13.9)	3,275 (28.2)	1,372 (17.0)

자료 : 산업자원부.

- 고유가 지속으로 원자재가 계속 수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회복이 진전되면서 자본재 및 소비재의 수입도 상반기보다는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7〉 최근 수출입 추이



II. 해외경제

1. 미국경제

□ 성장률 3%대에서 완만한 성장국면 진입 전망

- 미국경제는 고유가 지속과 금리인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모습
 - 내수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는 데는 미국경제가 여전히 정책효과에 의해 지지되고 있음을 반영
 - * 유가 급등의 여파에도 소비지출 증가율은 연 3%대 유지
 - *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주택·건설 경기는 호조세 유지
 - * 연방기금금리 : 2005년 5월 3%(2004년 6월부터 8차례 인상)
 - 반면에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 축소는 소폭에 그쳐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제한적
 - * 미 달러화 가치(실질실효환율, 전년대비) : 2004년 4.4% 하락
 - * 무역적자(명목GDP 대비) : 2002년 4.1% → 2004년 5.2%

〈표 II-1〉 미국의 주요 경제성장 내역

단위 : %

	2003	2004					200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실질GDP	3.0	4.4	5.0	4.8	4.0	3.9	3.7
개인소비	3.3	3.8	4.2	3.6	3.6	3.8	3.6
민간투자	4.4	13.2	12.8	16.8	11.7	11.6	11.0
비주택투자	3.3	10.6	10.6	10.8	10.1	11.0	10.8
설비투자	6.4	13.6	13.1	13.9	12.9	14.5	13.8
IT 장비	12.0	16.2	18.9	18.9	13.5	13.8	15.0
주택투자	8.8	9.7	11.3	13.2	8.0	6.5	7.4
순수출*	-518.5	-583.7	-550.1	-580.3	-583.2	-621.1	-640.0
정부지출	2.8	1.9	2.8	1.6	1.8	1.6	0.9

자료 : 미 상무부.

주 : 전년동기비 기준. 단, *는 10억 달러(실질) 기준(계절조정).

○ 정책 요인에 의한 성장 효과가 약해지면서 예년에 비해 완만한 속도의 성장 국면(modest growth)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

- 정책 기여도의 약화는 이미 민간 부문의 체감경기 약세로 나타나고 있어 강한 내수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소비자 신뢰지수 : 2004년 7월 105.7 → 2005년 5월 102.2

* ISM 제조업지수 : 2004년 5월 62.6 → 2005년 5월 51.4

- 인플레이 압력의 가중 및 무역적자의 개선 여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경기의 향방에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
 - * 수입가격(2004년 5.6% → 2005년 1분기 6.4%)과 단위노동비용(2004년 0.9% → 2005년 1분기 4.2%)의 상승세는 인플레이 압력 요인
 - * 무역적자 축소 여부는 달러화의 추가 약세 향방에 주요 관건

2. 일본경제

□ 외수에 의한 성장은 약화, 내수 증가세 지속 전망

- IT 경기의 부진과 소비 증가세의 둔화로 2004년 하반기에만 마이너스 성장률(전기비 -0.4%)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
 - 기업들의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데는 IT 경기의 부진 영향이 크고, 소비 증가세의 둔화는 임금 상승률의 하락에 기인
 - * IT 산업생산 증가율 : 2003년 4.2% → 2004년 -0.8%
 - * 근로자 임금 상승률 : 2003년 -0.8% → 2004년 -0.7%
- 지속적인 구조개혁 노력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노동시장은 회복세를 보여 경기 급락에 대한 우려는 완화

- * 기업 수익성의 개선(매출액경상이익률) : 전기업 2004년 3.6%(1989년 이후 최고치), 대기업 2004년 4.7%(1960년 이후 최고치)
 - * 노동시장의 회복(실업률) : 2003년 5.2% → 2004년 4.7%
-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로 외수에 의한 성장은 다소 약해 지나, 내수 회복세는 지속되면서 성장률의 완만한 상승세 전망
- 올 들어 내수 증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구조 개혁의 진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경제 내에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

〈표 11-2〉 일본의 주요 경제성장 내역

단위 : %

	2003	2004					200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실질GDP	1.4	2.7	4.5	3.2	2.6	0.6	1.2
내 수	0.7	1.9	3.4	2.1	1.9	0.4	1.3
민간소비	0.2	1.5	1.9	2.1	1.8	0.1	0.8
설비투자	6.3	6.0	8.8	7.5	7.0	0.7	5.3
정부소비	1.2	2.7	2.1	3.0	2.5	3.1	2.5
순 수 출*	10,732.3	15,048.6	14,551.6	15,853.6	14,999.0	14,780.6	14,368.2
수 출	9.1	14.4	14.7	18.0	14.7	10.8	5.2

자료 : 일본 내각부.

주 : 전년동기비 기준. 단, *는 10억 엔(실질) 기준(계절조정).

- * 내수의 성장 기여도 : 2004년 1.9%p → 2005년 1분기 1.3%p
- * 외수의 성장 기여도 : 2004년 0.8%p → 2005년 1분기 -0.1%p
- 대내적으로는 디플레 문제의 해소 여부가 주요 관심사인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엔화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004년 0% → 2005년 1분기 -0.9%
- * 엔화 가치(실질실효환율, 전년대비) : 2005년 1분기 0.8% 하락

3. 유로경제

□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에 따라 성장률의 하락 예상

- 유로경제는 2004년 플러스 성장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강세의 영향과 민간 부문의 체감경기 약세로 성장률이 하락세로 전환
- 회원국들의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내수가 상당히 더딘 속도로 회복되면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
- * 내수의 성장 기여도 : 2003년 1.3%p → 2004년 1.9%p

- 2002년 이후 유로화 강세의 지속과 더불어 체감경기도 약세를 보이면서 역내 성장률이 다시 하락세로 반전되는 모습
 - * 유로화 가치(실질실효환율, 전년대비) : 2004년 3.8% 상승
 - * 소비자 신뢰지수 : 2001년 4월(0.3) 이후 마이너스 국면 지속
- 아직까지도 외수에 상당 부문 의존하고 있는 유로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에 따라 성장률의 하락이 예상
- 지난 2004년 상반기 성장률 회복에는 대외 여건의 개선이 상당부문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표 II-3〉 유로권의 주요 경제성장 내역

단위 : %

	2003	2004					200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실질GDP	0.7	2.0	1.5	2.1	1.8	1.5	1.3
내 수	1.4	2.0	1.3	1.4	2.3	1.7	1.5
민간소비	1.1	1.3	1.2	1.1	1.0	1.6	1.3
설비투자	0.4	1.9	1.0	1.6	1.8	1.2	1.0
정부소비	1.3	1.4	2.7	2.7	2.9	2.1	1.6
순 수 출*	162.1	169.0	46.3	47.7	39.5	35.6	44.4
수 출	0.6	6.1	3.3	7.8	6.2	5.5	4.2

자료 : 유로통계청.

주 : 전년동기비 기준. 단, * 는 10억 유로(실질) 기준(계절조정).

- * 수출의 성장 기여도 : 2003년 0.2%p → 2004년 2.4%p
- * 무역의존도 : 2004년 현재 71.2%(미국 25.2%, 일본 24.3%)
- 고유가 지속의 여파로 인플레이 압력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통화당국의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기 어려워 저성장 지속 가능성 높음.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004년 2.1% → 2005.1분기 2.0%
- * 에너지물가 상승률 : 2004년 4.5% → 2005.1분기 7.6%
- * 유럽중앙은행은 2003년 6월부터 기준금리를 2%에서 동결

4. 중국경제

□ 정부의 경기 조절 노력으로 8%대 후반 성장률 전망

- 정부 당국의 긴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강한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2년 연속 9%대의 높은 성장률 지속
- 중국 정부는 금융 및 부동산 시장에서 긴축기조를 앞세워 경기 과열의 진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 * 중국 정부는 2004년 10월에 전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올 3월에는 부동산 과열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
- 그러나 외국인 투자유입의 지속에 따른 강한 내수 증가세

와 달러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로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

* 외국인 투자 유입 : 2003년 535억 달러(전년대비 1.4% 증가) → 2004년 606억 달러(전년대비 13.3% 증가)

○ 정책당국의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는데 따라 성장률은 8%대 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경기 과열 억제를 위한 정책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목표 성장률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표 11-4〉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2003	2004					2005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실질GDP	9.5	9.5	9.8	9.6	9.1	9.5	9.4
산업생산	16.7	16.3	17.7	17.6	15.8	15.0	16.2
고정투자 ¹⁾	28.4	25.8	47.8	28.6	29.9	25.8	25.3
소매판매	9.0	13.3	10.7	15.0	13.4	14.2	13.7
소비자물가	1.2	3.9	2.8	4.4	5.3	5.3	2.8
수출	34.7	35.5	34.1	37.2	34.8	35.7	34.9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주 : 전년동기비 기준. 단, ¹⁾은 누계액 기준.

- * 중국 정부(3월 전인대 보고) : 2005년 8%대(8~9%) 목표
- * 모건 스탠리, 국제금융연구소(IIF) 등 : 2005년 9.5% 전망
- 위안화 절상 문제는 중국 정부가 경기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시점과 폭에서 이루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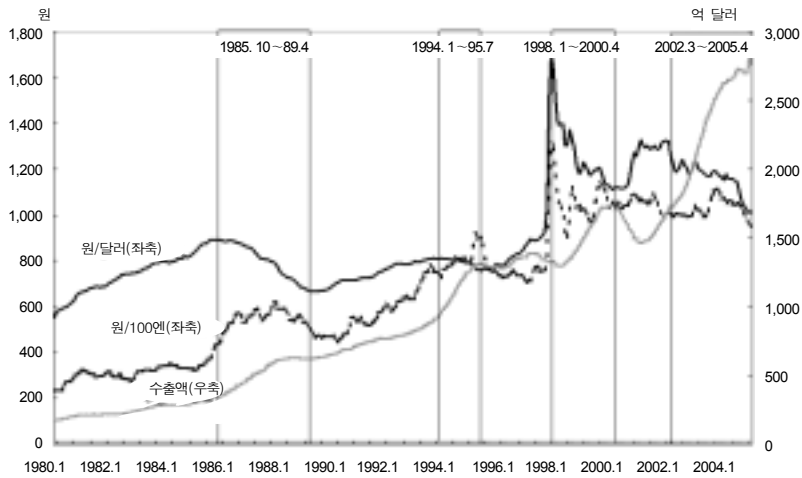
〈부 록〉

1. 원화 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원화 환율과 수출 간의 상관관계 약화

- 외환위기 이후 환율, 특히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는 모습
 - 최근 달러 환율의 속락에 따른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수출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현상도 원화 환율과 수출과의 관계 약화를 반증
- 1980년 이후 최근까지 원화가 미 달러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강세를 보인 시기는 <그림 1>에서와 같이 네 기간으로 나누어짐.
 -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원화가 달러화에 대하여 강세를 보인 시기에는 수출증가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외환위기 이전, 원화가 달러화에 대하여 강세를 보인 두 시기에는 엔화 대비 약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보다는 원/엔 환율이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큼(수출과 원/엔 환율의 동조화).

〈그림 1〉 원/달러, 원/엔 환율과 수출액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원화가 달러화에 대하여 강세를 보인 두 시기에는 원/달러나 원/엔 환율 모두 수출과의 상관관계가 약화
- 특히, 2004년 4/4분기 이후 원화는 달러화와 엔화에 대하여 모두 급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은 비교적 견조한 증가를 보여 환율에 대한 내성이 강해졌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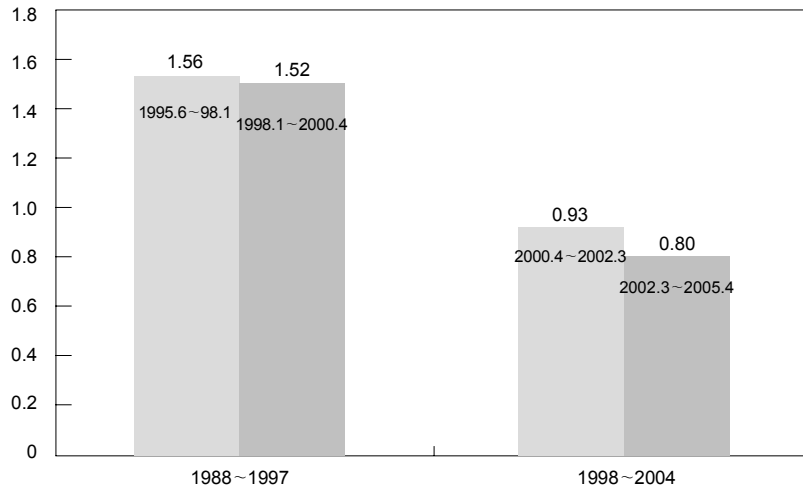
□ 수출물량의 가격탄력성 저하로 환율 영향 감소

- 외환위기 전후로 원화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은 수출물량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한 결과에

서도 알 수 있음.

- 수출물량의 가격탄력성은 외환 위기 이전의 원/달러 환율 상승기에 1.56, 하락기에 1.52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각각 0.93과 0.80으로 낮아짐(〈그림 2〉 참조).
- 수출물량의 가격탄력성이 낮아진 결과,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가격 인상이 100%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약화됨.
- 만일,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수출에 대한 영향은 더욱 감소됨.

〈그림 2〉 수출물량의 가격탄력성 변화



- 외환위기 이후 원/달러나 원/엔 환율과 수출 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된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상품 구조가 고도화되고 수출지역이 다변화된 데 크게 기인함.
- 우리 상품의 품질이나 브랜드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환율 변화 등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전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됨.
 - 수출지역이 EU나 중국을 위시한 브릭스 국가로 다변화되면서 원/달러나 원/엔 환율의 영향이 줄어들고 환율의 영향에 덜 민감한 부품 및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증대됨 (〈표 1〉 참조).

〈표 1〉 10대 수출상품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1995			2004		
품 목	수출액	비중	품 목	수출액	비중
반도체	17,695	14.1	자동차	26,577	10.5
자동차	8,439	6.7	반도체	26,516	10.4
선 박	5,669	4.5	무선통신기기	26,223	10.3
인조장섬유직물	5,353	4.3	컴퓨터	17,123	6.7
영상기기	4,895	3.9	선 박	15,657	6.2
전자응용기기	4,751	3.8	석유제품	10,203	4.0
컴퓨터	4,743	3.8	철강판	8,527	3.4
의 류	4,714	3.8	합성수지	8,426	3.3
철강판	3,791	3.0	영상기기	7,630	3.0
합성수지	3,583	2.9	자동차부품	5,925	2.3
10대 상품 계	63,633	50.9	10대 상품 계	152,807	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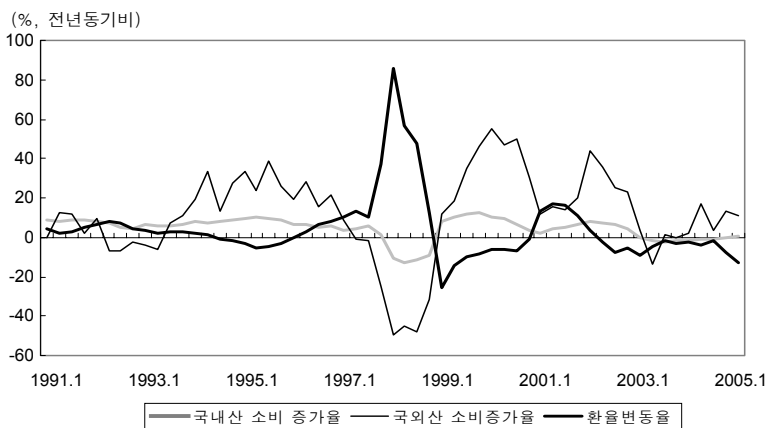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2. 환율 하락과 내수와의 관계 분석

□ 소비에 대한 영향

-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환율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대체효과와 실질잔액 효과에 의해 결정되며, 환율의 가격전환 효과를 고려할 때 국내산 재화와 국외산 재화로 나뉘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이에 환율이 절상될 경우 국내산 재화소비는 상대가격의 상승으로 대체효과에 의해 감소가 예상되고, 반면 전반적인 물가하락으로 실질잔액이 증대됨에 따라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환율변동과 국내산 소비 및 국외산 소비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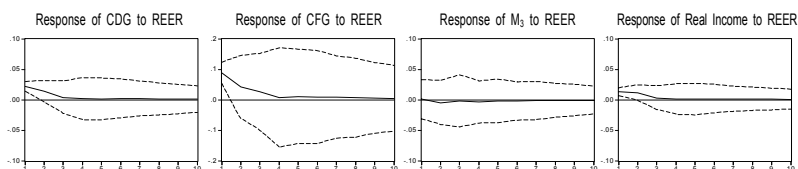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국내산 소비는 가계 국내소비지출 - 소비재 수입액이며, 국외산 소비는 가계 해외소비지출 + 소비재 수입액으로 산출.

- 국외산 재화소비는 환율절상으로 상대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체효과에 의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하락으로 인한 실질잔고 증대로 인해 국외산 재화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율추이와 국내산 및 국외산 재화소비 추이를 살펴보면, 역의 관계가 드러남에 따라 두 부문의 재화소비 모두 환율절상에 따라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 이와 같은 환율변동에 의한 소비의 역관계는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나타나며 환율 충격(환율 절상)에 대한 충격반응 분석결과, 국내산 재화소비와 국외산 재화소비가 모두 양(+)²⁾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²⁾.

2) 환율 변동에 따른 동태적 분석을 위해 VAR모형을 이용,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봄. 국내산 재화소비, 국외산 재화소비, M_3 , 실질소득, 실질실효환율을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간은 1998. 1Q~2005. 1Q임.

환율 충격(환율절상)에 대한 각 변수의 충격반응



CDG는 국내산 재화 소비, CFG는 국외산 재화 소비, M_3 는 총통화, Real Income은 실질가처분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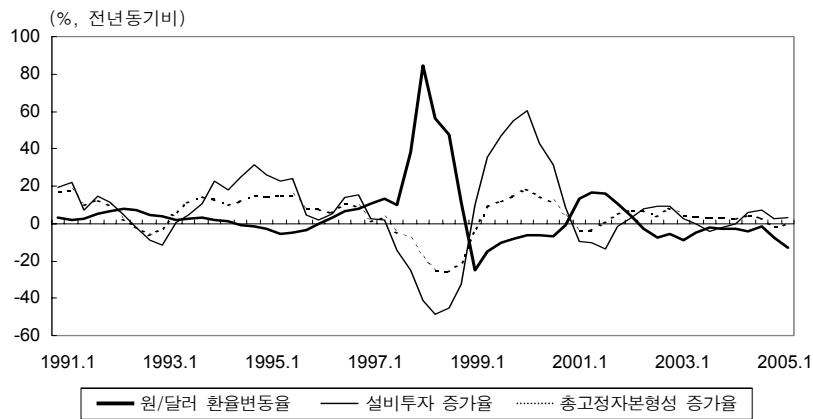
- 그러나 국내산 재화소비의 충격반응은 대체효과 등의 상충요인으로 인해 국외산 재화소비의 충격반응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환율 절상에 따른 소비는 전반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산 재화소비보다는 국외산 재화소비 증대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반응수준의 차이는 환율 하락에 따른 소비증대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소비변화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투자에 대한 영향

- 환율 절상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기대이윤 효과와 비용변동 효과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 기대이윤의 현재가치가 높을수록, 자본의 조달비용이 낮을수록 투자가 유발됨.
- 환율 절상에 의한 기대이윤의 변동은 기업의 대외교역을 통한 수익 변동과 국내 판매수익 변동을 통해 발생하며,
- 반면 비용변동 효과는 일반적으로 중간 수입재의 가격 변동과 외채상환부담금의 변화, 환율 절상에 따른 금융시장 여건변화에 의해 발생함.

- 이와 같은 기대이윤 효과와 비용변동 효과는 환율 절상에 따라 전자는 음(-)의 효과, 후자는 양(+)의 효과를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인 투자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움.
- 그러나 <그림 4>에서 보듯이 환율과 투자 간의 역의 관계는 비용변동 효과에 의해 설비투자 변동이 더 크게 유발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 환율변동과 설비투자 변동 추이



- 즉, 환율 하락에 따라 기업들은 기대이윤을 변동시키는 요인의 변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측면 요인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투자에 따른 높은 수입유발 계수를 감안할 때 소

비와 마찬가지로 환율 절상으로 인한 투자변동에 의해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이 존재함.

3. 주요국에 대한 수출증가율 요인 분석

□ 시장점유 확대효과와 시장규모 확대효과

-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증가의 요인 분석을 위해 수출증가분을 시장점유율 확대 효과와 시장규모 확대 효과로 나누어 각각의 기여도를 계산함.
- 수출증가액 = (상대국 수입액 × 한국의 상대국 시장 점유율 증가율) + (한국의 상대국 시장 점유율 × 상대국 수입증가액)에 의거 수출증가율에 대한 각 항의 기여도를 계산함(전년 동월 대비).
- 분석결과, 미국시장에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일본시장에서는 작년 초 이후 각각 시장점유율 효과가 약화되고 있음. (<그림 5>와 <그림 6> 참조).
 - 특히, 일본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효과의 감소가 두드러짐.
- 이와는 반대로 EU와 중국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 효과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그림 7>과 <그림 8> 참조).
 - EU에 대한 시장점유율 효과는 작년 초 이래 대EU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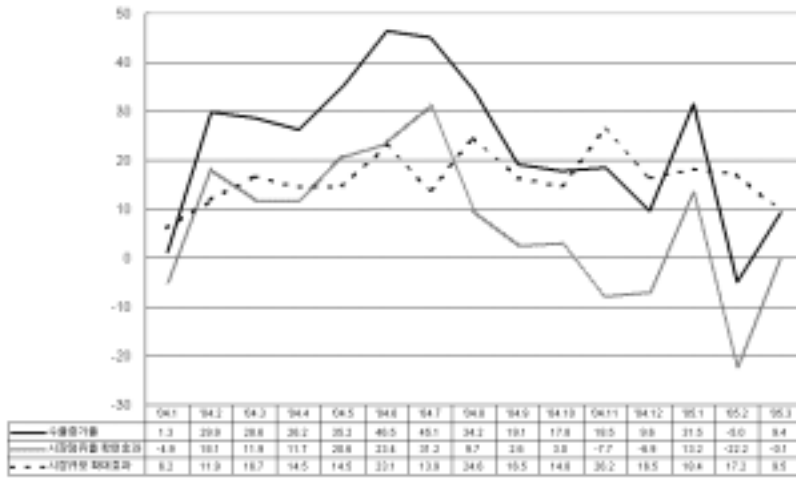
증가율과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중국에 대한 시장점유율 효과는 작년 하반기 이후 약세로 반전되었으나, 작년 말을 전후하여 다시 강세로 전환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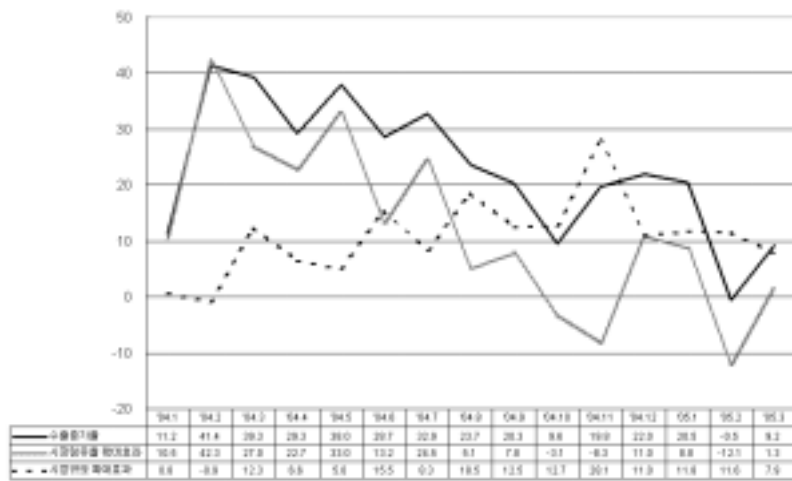
□ 시사점

- EU시장에서의 강한 시장점유율 확대효과는 달러 약세-유로화 강세의 구도 하에서 우리 업계가 EU시장으로의 수출 전환을 강력히 시도한 결과로 보여짐.
- 대중국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효과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은 우리 상품이 중국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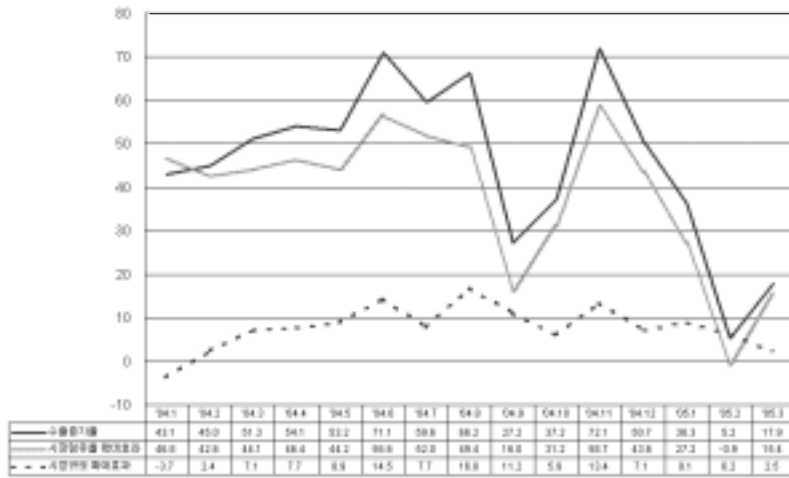
〈그림 5〉 대미국 수출증가율의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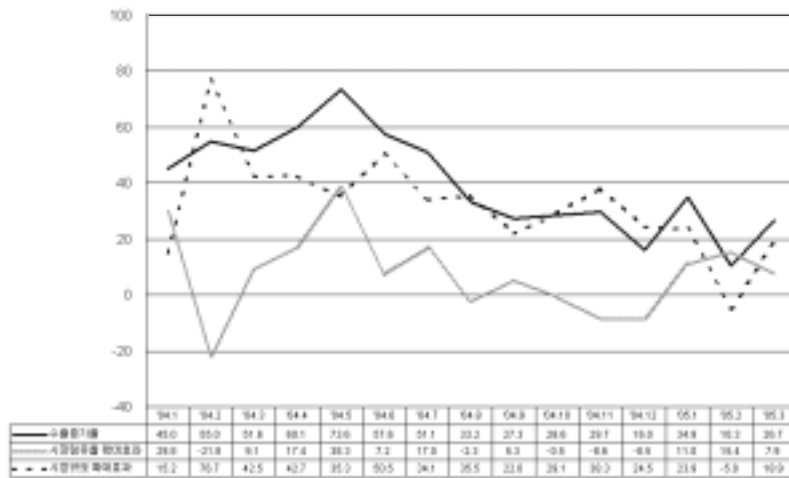
〈그림 6〉 대일본 수출증가율의 요인분석



〈그림 7〉 대EU 수출증가율의 요인분석



〈그림 8〉 대중국 수출증가율의 요인분석



4. 세계 IT산업 동향과 전망

□ 2004년 들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

○ 세계 IT산업은 올 들어서 지난해와 달리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에 힘입어 호황을 보인 IT경기는 올 들어서 전반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임.

* IT경기를 주도하는 반도체, 휴대폰, PC 등은 2005년 1분기에 10%대(전년동기비)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으나, 지난해 연간 성장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그침.

- 권역별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경기 둔화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개도국의 경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감.

〈표 2〉 세계 반도체 시장 실적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

	2002		2003		2004		2005(예상치)	
	판매액	증가율	판매액	증가율	판매액	증가율	판매액	증가율
미주	31.3	-12.6	32.3	3.4	39.1	20.8	38.8	-0.8
유럽	27.8	-8.0	32.3	16.3	39.4	22.0	41.4	4.9
일본	30.5	-8.0	38.9	27.7	45.8	17.5	47.1	2.9
아·태	51.2	28.5	62.8	22.9	88.8	41.3	99.3	11.9
세계	140.7	1.3	166.4	18.3	213.0	28.0	226.5	6.3

자료 : SIA 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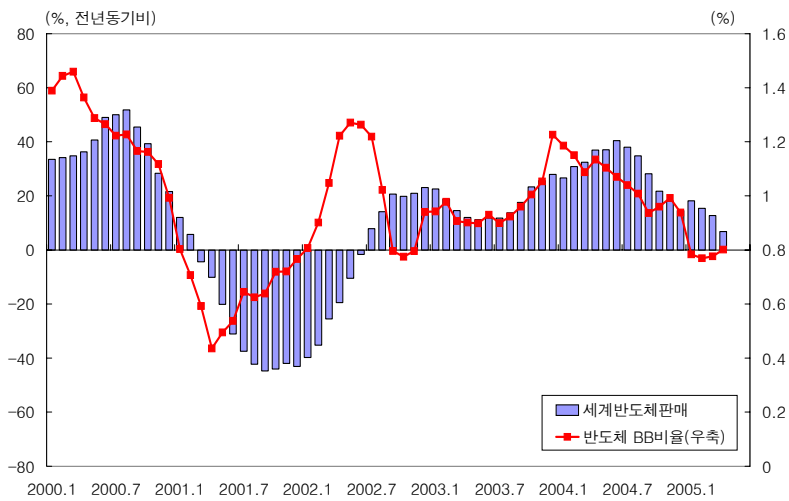
- 지난 2003~2004년 중 고성장세를 지속한 IT경기가 약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경기둔화 영향으로 IT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세도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함.

□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 세계 IT경기는 금년도에 지난해와 같은 정도의 고성장세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시장조사기관들은 2005년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나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올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보다 상향 조정함.
 - * 세계반도체산업협회(SIA), 아이서플라이(iSuppli),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 등은 세계 반도체시장이 주 응용분야의 꾸준한 수요 지속과 MP3 플레이어 등 신규 수요의 성장세 지속으로 올해 연간 6%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 가트너-데이터퀘스트(Gartner-Dataquest)사는 올해 세계 PC시장의 경우 모바일 PC시장의 확대에 힘입어 10.2% 성장(당초 9.9% 성장)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세계 휴대폰 시장규모도 당초 7억 2,000만대에서 7억 5,000만대로 상향 조정

- 반도체 경기에 선행하는 북미 반도체 업체들의 BB(수주-출하) 비율은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올해 들어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IT경기의 급격한 침체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함.

〈그림 9〉 세계 반도체 판매 증가율과 BB 비율 추이



자료 : SEMI; SIA Online.

주 : 반도체 판매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기준.

제2편

산업별 전망

I. 개관	79
1. 2005년 상반기 동향	79
2. 하반기 전망	83
3. 업종별 전망 요약	95
II. 산업별 전망	112
1. 자동차산업	112
2. 조선산업	124
3. 일반기계산업	137
4. 철강산업	149
5. 석유화학산업	160
6. 섬유산업	174
7. 가전산업	186
8. 통신기기산업	196
9. 컴퓨터산업	210
10. 반도체산업	221

〈표 I-1〉 주요 산업의 정책 시사점	94
〈표 I-2〉 전통주력산업의 수급 전망(전년 동기비 증가율)	104
〈표 I-3〉 IT주력산업의 수급 전망(전년 동기비 증가율)	105
〈표 I-4〉 주요 업종의 수출률 변화추이	106
〈표 I-5〉 주요 업종의 수입의존도 변화추이	106
〈표 I-6〉 주요 산업별 생산 전망	107
〈표 I-7〉 주요 산업별 수입 전망	108
〈표 I-8〉 주요 산업별 내수 전망	109
〈표 I-9〉 주요 산업별 수출 전망	110
〈표 I-10〉 10대 산업의 산업군/산업별 수출비중	111
〈표 I-11〉 10대 산업의 산업군/산업별 수입비중	111
〈표 II-1〉 자동차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119
〈표 II-2〉 자동차산업의 수급전망	121
〈표 II-3〉 자동차산업의 수출입 전망	122
〈표 II-4〉 조선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129
〈표 II-5〉 조선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130
〈표 II-6〉 조선산업의 수급전망	134
〈표 II-7〉 일반기계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144
〈표 II-8〉 일반기계산업의 수급전망	146
〈표 II-9〉 철강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154
〈표 II-10〉 철강산업의 수급전망	157
〈표 II-11〉 철강산업 전체 수출입 전망	158
〈표 II-12〉 석유화학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168
〈표 II-13〉 석유화학산업의 수급전망	171
〈표 II-14〉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입 전망	171
〈표 II-15〉 섬유산업의 생산증가율 현황	175
〈표 II-16〉 섬유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180

〈표 II-17〉 섬유산업의 수급전망	182
〈표 II-18〉 섬유산업의 수출입 전망	183
〈표 II-19〉 가전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192
〈표 II-20〉 가전산업의 수급전망	194
〈표 II-21〉 통신기기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204
〈표 II-22〉 통신기기산업의 수급전망	208
〈표 II-23〉 컴퓨터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216
〈표 II-24〉 컴퓨터산업의 수급전망	220
〈표 II-25〉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	225
〈표 II-26〉 반도체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227
〈표 II-27〉 반도체산업의 수급전망	229

<그림 I-1> 주요 업종의 수출증가율 전망(2005)	87
<그림 I-2> 주요 업종의 내수 증가율 전망(2005)	88
<그림 I-3> 주요 업종의 생산증가율 전망(2005)	91
<그림 II-1> 신조선가 추이	132
<그림 II-2> 최근 유도품 수급물량 변동 추이	162
<그림 II-3> 최근 석유화학제품 수출입금액 증가율 추이	162
<그림 II-4> 최근 석유화학 원료 및 제품가격 하락 추이	165
<그림 II-5> 통신기기산업의 품목별 수출구성비(2005. 4)	197
<그림 II-6> 통신기기산업의 생산, 내수, 수출 증가율 추이	198
<그림 II-7> 지역별 이동전화기 수출 구성비	201

I. 개 관

1. 2005년 상반기 동향

□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증가세 둔화

- 2005년 상반기에는 산업생산을 견인하던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증가가 둔화되거나 감소로 전환
 - 10대 주력업종 가운데 자동차 및 석유화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실질생산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거나 감소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임.
 - 전통주력부문에서 실질생산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증가한 업종은 자동차를 비롯하여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으로 나타났으나 자동차 및 석유화학 이외에는 증가율이 감소하였고 섬유는 지속적 감소를 보임.
- IT주력부문에서 실질생산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증가한 업종은 가전을 비롯, 통신기기 및 반도체 등으로 나타났으나 증가율은 감소

-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컴퓨터는 작년 동기에 비해 내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중국산 저가 수입품이 크게 늘면서 생산증가로 이어지지 못하였음.
 - 특히 컴퓨터는 가격경쟁력 약화, 글로벌 메이커들의 시장 지배력 강화, 중국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의 불리한 수출 환경이 전개되면서 수출증가율이 감소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생산도 작년 하반기에 이어 연속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10대 주력업종 대부분의 실질생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은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과, 고유가 지속, 원화절상 및 선진국 경기 부진 등 수출 시장 여건이 작년에 비해 크게 악화되면서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데 기인
- 대부분의 업종에서 내수회복 지연 또는 둔화, 해외 현지생산의 증가, 수출 급감, 수출단가 하락에 의한 생산조정 등의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출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가율은 크게 둔화
- 해외시장에서의 품질경쟁력 제고, 브랜드 이미지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해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업

중에서 수출 증가세 지속

- 그러나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주요 수출국의 경기 부진, 원화 절상 및 수출단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달러기준 전년 동기비 증가율은 11.0%로 크게 둔화되었음.
 - 전통주력부문에서 섬유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실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철강 및 석유화학 이외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음.
 - IT주력부문에서도 컴퓨터, 가전을 제외한 업종의 실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음.
- 한편, 수출과 연동되어 수입이 늘어나는 생산설비 및 핵심 부품 등과, 국내에서 가격경쟁력이 취약해져가고 있는 부문은 수입 증가추세
- 전통주력부문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동기 대비 실질수입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특히 일반기계는 실질수입이 감소로 전환되었음.
 -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입 단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금액기준 수입규모는 크게 증가했으나 실질기준 수입은 감소로 나타남.
 - 전통주력부문의 수입의존도는 섬유, 일반기계 등이 20~

30%대로 비교적 높았고 자동차는 2.2%, 석유화학도 9.2%로 낮았음.

○ IT주력부문 대부분의 업종에서도 전년동기 대비 실질수입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특히 가전 및 반도체는 실질수입이 감소로 전환

- 그러나 대표적인 IT업종인 컴퓨터와 반도체의 수입의존도는 50%를 크게 상회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고, 가전 및 통신기기 등은 20~30%대로 나타나 전통주력부문에 비해 상당히 높았음.

□ IT주력부문의 내수 큰 폭 증가

○ 대부분의 10대 주력업종에서 실질내수증가율 둔화 및 감소를 나타냈으나 IT주력부문의 가전 및 컴퓨터는 큰 폭 증가

- 컴퓨터는 제품가격 하락과 노트북 수요 증가로 실질기준 20%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가전도 디지털 방송의 확대 및 대기수요의 가시화가 이뤄지면서 2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함.

- 통신기기는 높은 보급률로 실질내수가 감소를 보였고, 반도체도 국내 컴퓨터, 휴대폰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실질내수가 감소하였음.

- 전통주력부문에서 자동차, 석유화학 및 섬유의 실질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계속 감소를 보이고 있고, 일반기계, 철강도 증가율 둔화
 - 일반기계는 보수적 투자경향으로, 철강은 건설경기 회복 지연으로 내수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는 국내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년동기에 비해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화섬산업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석유화학은 감소율이 높아졌음.

2. 하반기 전망

- 일부 업종의 내수 회복과 수출증가세 유지로 산업성장 여건 개선
 - 10대 주력업종의 달러기준 하반기 수출증가율이 10.3%로 상반기 추세를 유지하고 국내 수요가 회복되면서 산업의 성장여건은 개선될 전망
 - 전통주력부문에서는 조선, 일반기계, 철강의 실질 수출증가율이 상반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석유화학은 상반기보다 다소 줄었으나 13.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IT주력부문에서는 가전 및 통신기기의 실질 수출증가율이 상반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반도체는 상반기보다 감소했으나 10.4%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또한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컴퓨터의 수출 감소율도 실질기준으로 많이 둔화될 전망이다.
- 한편, 실질기준 내수는 자동차,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 소비재를 중심으로 회복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전통주력부문에서 자동차의 실질기준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감소에서 증가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의 실질기준 증가율도 상반기 수준을 상회하거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산업성장의 여건 개선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섬유는 2005년 미국, EU, 캐나다 등의 쿼터 폐지,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생산능력 확대, 국내 생산기반 약화 추세로 지속적 감소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IT주력부문에서는 가전, 컴퓨터, 통신기기의 실질기준 내수증가율이 5.6~18.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가전 및 컴퓨터의 증가율은 상반기에 이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선 반도체 내수는 하반기에는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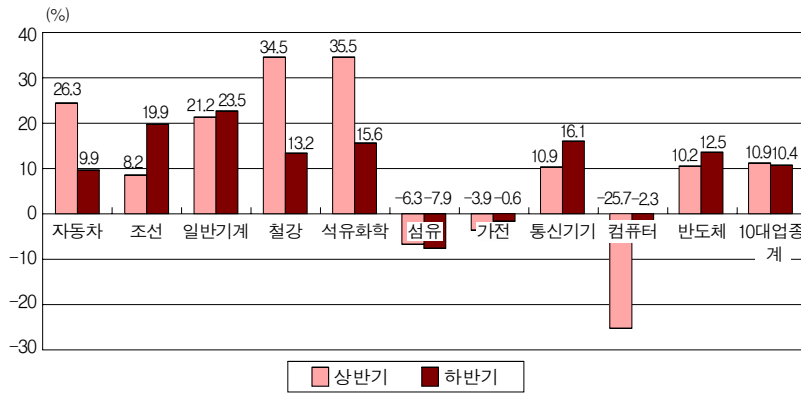
□ 상반기 대비 수출 증가율 다소 감소

- 수출증가세가 상반기에 비해 달러기준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요 업종에서 실질기준 여전히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전망
 - 전통주력부문의 경우 달러기준 조선의 하반기 수출증가율이 상반기보다 배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일반기계는 2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석유화학, 철강의 수출증가율도 1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후발 개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섬유는 금액기준으로 지속적 감소를 보일 뿐 아니라 감소율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IT주력부문도 달러기준 통신기기 및 반도체의 수출증가율이 1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가전 및 컴퓨터의 수출 감소도 상반기보다 감소 폭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IT주력부문의 경우 대부분 수출단가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컴퓨터, 통신기기의 가격 하락률

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업종에서 여전히 높은 수출증가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국산제품의 질적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에서의 품질인정,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파악
 - 전통주력부문의 주요 업종에서 여전히 높은 수출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해외시장에서 국산제품의 품질 및 기술수준 향상 및 고급화 인정,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수출시장에서 계속 우위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수출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의 경우 주로 선진국과 경쟁하고 있고, 질적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의 지속적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IT주력부문에서는 가전의 경우 전통가전은 수출단가 하락, 원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감소가 예상되지만 디지털가전 등 고급제품의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컴퓨터는 제품가격 하락과 중국 등 개도국의 시장 영향력 강화로 수출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섬유, 컴퓨터 등과 같은 경쟁력 취약 산업은 환율이나 원자재가격 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만, 조선, 자동차 등과

〈그림 1-1〉 주요 업종의 수출증가율 전망(2005)



주 : 달러기준 명목금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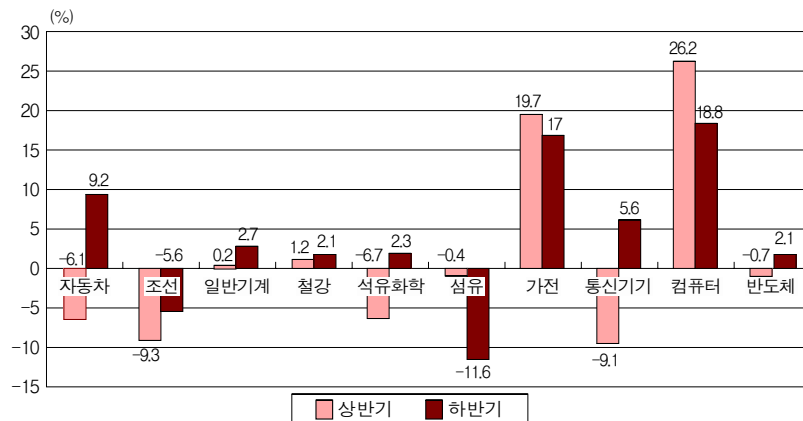
같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산업은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등의 영향이 작은 것으로 분석

□ 내수는 내구 소비재 중심으로 회복 추세

- 내수는 대기수요 가시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자동차, 가전,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회복될 전망
- 전통주력부문의 경우 특히 자동차의 내수는 특소세 인하 연장 및 대기수요의 가시화로 전년동기 감소에서 9.2%의 증가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일반기계도 반도체 장비 및 조선용 내연기관 호조세 지속으로, 철강은 판재류 소비 호조로 실질기준 상반기보다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으며 석유화학은 수입단가 하락 등에 따른 내수 회복으로 상반기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이 예상된다.
- IT주력부문에서는 디지털방송의 확대로 대기수요의 가시화가 예상되는 가전, 신제품에 대한 대체수요 및 DMB 서비스 수요가 예상되는 통신기기,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컴퓨터의 경우도 실질기준 높은 내수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그림 1-2〉 주요 업종의 내수 증가율 전망(2005)



주 : 실질기준임.

□ 연구개발 및 합리화투자 중심으로 투자회복 기대

-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가 국내에서 크게 이뤄질 가능성 희박
 - 전통주력부문에서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해외생산 및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조선의 경우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 외에 블록가공을 위한 해외 설비투자가 적극 검토되고 있음.
 - 자동차의 경우 외국 부품업체들의 투자 증가가 예상되고, 반도체는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수도권 투자 규제 완화로 12인치 라인 투자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 차별화, 고부가가치 신제품개발이나 자동화, 에너지절약, 환경, 합리화 등과 관련된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 IT주력부문에서는 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등의 업종에서 해외생산 및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통신기기의 경우 DMB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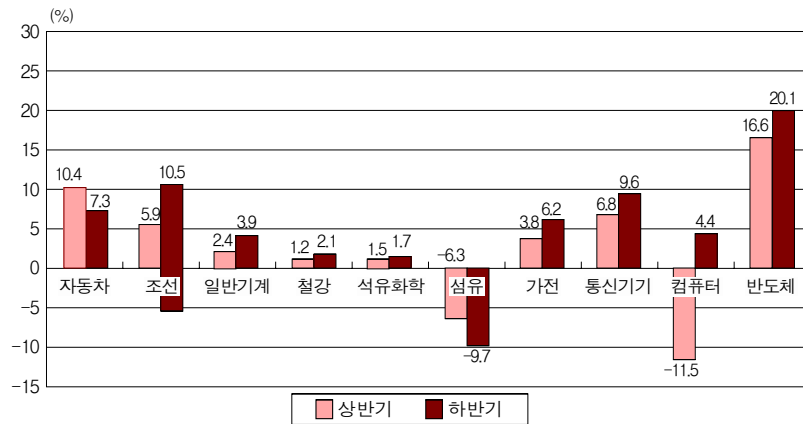
□ 생산은 상반기보다 개선될 전망

- 하반기 실질기준 생산은 수출증가세 유지와 내수 증가의

영향으로 상반기보다 개선될 전망

- 전통주력부문에서는 섬유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생산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조선, 일반기계의 경우는 상반기 생산증가율을 상회할 전망이다.
- 확보된 건조일감이 4년치에 육박하고 있는 조선의 경우 저선가 시기에 수주된 선박의 건조가 종료되고 선가상승이 반영된 선박을 건조하면서 채산성의 개선도 예상된다.
- 그러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섬유의 생산은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IT주력부문에서는 모든 업종에서 생산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가전, 통신기기 및 반도체의 경우는 상반기 생산증가율을 상회할 전망이다.
- 또한 저가 수입품 공세를 거세게 받고 있는 컴퓨터는 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노트북 수요증대로 전년동기 감소에서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실질기준 4.4%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그림 1-3〉 주요 업종의 생산증가율 전망(2005)



주 : 실질기준임.

□ 수입은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나 증가율은 크게 둔화

-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및 통신기기 등의 수입증가율은 상반기보다 늘어났으나 10대 업종 전체의 금액기준 수입증가율은 크게 둔화
 - 전통주력부문의 경우 실질기준 수입이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된 업종은 일반기계, 석유화학으로 나타났고, 자동차, 철강은 상반기 대비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 자동차의 경우 수입 차의 가격인하 및 다양한 신모델 출시의 영향으로, 철강은 열연 및 후판 등 국내 공급 부족 제품의 도입으로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 IT주력부문의 경우 가전의 실질기준 수입이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고 통신기기는 핵심부품의 수입 확대로 수입이 증가하여 상반기 대비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10대 업종의 비중은 약 76%

- 전통주력산업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IT주력산업은 감소 추세
 - 전통주력산업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1.6%에서 2005년 43.8%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IT주력산업의 비중은 34.3%에서 32.1%로 다소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전통주력산업의 수출은 섬유를 제외하고 안정적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IT주력산업은 중국 등 후발경쟁국의 등장으로 가전, 컴퓨터를 중심으로 타격을 받고 있어 비중 감소를 나타낼 전망이다.
- 총수입에서 10대 주력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39.1%에서 2005년 하반기에는 36.5%로 감소할 전망
 - 전통주력산업의 수입비중은 미미한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IT주력산업의 비중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FTA, 국제규제, 통상마찰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대책 강화와 R&D 지원 필요

- FTA협상, 국제규제 강화 등에 대한 대응책 필요
 - 자동차의 경우 FTA 협상과 관련 사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 조선의 경우 각종 국제규제 강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이 심한 석유화학, 섬유 등은 반덤핑 제소 등과 같은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긴급
- 석유화학과 섬유업계는 시급한 과제인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시급
 -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섬유업체의 경우 개성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조선이나 철강 등은 원자재의 안정적 조달과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
- 일반기계, 석유화학 및 컴퓨터의 경우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의 다변화 지원대책 마련 시급
-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 및 채산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정책은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기반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

〈표 1-1〉 주요 산업의 정책 시사점

	내 용
자 동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협상에 대한 사전 대응책 강구 필요 · 내수증대를 위한 자동차관련 세제 개편 필요
조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국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대책 필요 · 원자재에 대한 다원적 공급체계 지원 필요 ·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 명시
일반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시장의 지속적 확대에 대한 대응노력 필요 · 수출 다변화 및 중동시장 확대 노력 ·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가속화 및 핵심역량 강화
철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부진 타개를 위한 건설경기의 합리적 운용 · 해외 철원 확보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 세계 철강산업의 구조변화를 고려한 국내 상하공정간 균형발전 모색 · 저급 강제 수입급증에 대한 대응 강화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구조 선진화·전문화 유도 ·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 수출지역 다변화 및 특화제품 생산 비중 확대
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규제에의 대응 필요 · R&D 투자확대로 제품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 유도 ·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 섬유업체들의 개성공단 입주를 적극 지원
가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부품 전문기업 육성 · 핵심 기술개발 필요 · 중국과의 협력 강화
통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이동전화기 시장 주도를 위한 기술개발 적극지원 · 신규 서비스 확대와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전환으로 내수기반 확충 · 특허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 필요
컴 퓨 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생산 확대에 대비하는 국내 생산기반 지원 필요 ·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및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 정부조달에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반 도 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모리부문의 경쟁력 우위 지속을 위한 산학협력 노력 · 비메모리부문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 필요 · 반도체 벤처타운 조성

- 지속적 수출증가세 유지는 기업과 정부의 꾸준한 기술·품질개선 노력 및 지원에 기인하는 것임.
- 특히 과급효과가 큰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련 고급 기술인력의 양성이 시급함.

3. 업종별 전망 요약

〈자동차〉

- 하반기 내수는 수요가 안정적인 중·대형 자동차 및 SUV의 신모델 출시와 2년 연속 내수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한 58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
- 하반기 수출은 품질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따른 경쟁력 향상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부품의 경우 중국과 인도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9.9% 증가한 192억 달러에 달할 전망
- 하반기 생산은 수출증가 지속과 내수의 소폭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한 192만대에 달할 전망
- 수입은 내수침체 지속과 잠재수요가 일정부분 실현되면서 그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동기 대비 11.5% 증가한 2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조 선〉

- 하반기 선박 수주는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전략이 지속되면서 상반기에 이어 계속 감소할 전망
 - 상반기의 수주량도 작년 동기에 비해 감소했으나 건조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수주잔량은 계속 증가해 왔음.
 - 최근까지의 많은 수주물량 확보로 이미 3년간의 건조일감을 채웠고, 세계시장의 발주감소가 예상되므로 하반기의 수주물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 생산 및 수출은 수주한 선박의 건조일정에 따라 선가 상승이 반영된 선박의 건조가 진행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약 20% 증가할 전망
 - 특히 선가 상승의 반영,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 증가로 금액기준 증가율은 물량기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17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일반기계〉

- 내수는 하반기 중 수요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노후 설비의 교체압력 증대로 설비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전년동기 대비 4.8%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수출의 경우 최근 유가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중동지역으로의 담수설비, 발전설비, 제철설비, 석유화학설비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한 중국 및 인도 등지의 해외 현지투자기업의 설비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년동기 대비 23.5% 증가율을 시현, 연간 수출액은 약 15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생산은 하반기 이후 관련 업체들의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동기 대비 6.0%, 연간기준 5.0%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수입은 반도체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국산개발이 미흡한 반도체장비 등을 중심으로 18.4%의 수입증가가 전망됨.

〈철 강〉

-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철강소비산업의 국내생산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판재류 중심 철강 내수는 양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경기 및 설비투자 침체로 봉·형강류 철강소비 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INI 당진공장 열연설비 가동, 포스코의 미니밀 2호기가 재가동되지만 전기로제강업체들의 가동률 저하로 하반기 철강제품 생산증가는 1.7%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하반기에도 내수부진이 이어진다면 수출여력이 확대되는 데다 여전히 높은 국제가격 수준으로 제강업체들의 수출 확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철강제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4% 증가한 850만톤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 국내 상하공정간 수급불균형을 반영하여 반제품 수입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저가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확대된다면 하반기 철강제품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8.0% 늘어날 것으로 보임.

〈석유화학〉

- 하반기 내수는 경기의 점진적 호전 전망과 이에 따른 연관 산업의 수요확대로 회복세가 가시화되며 플러스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연간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한 973만톤에 그칠 전망
- 수출은 하반기 유도품 물량기준으로 13.8%, 연간 14.6%의 증가를 보일 전망이고 원료를 포함한 금액기준으로는 하반기 15.6% 증가율로 증가폭이 둔화, 연간으로 23.7% 증가한 211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할 전망
- 2005년 하반기에도 해외 수입수요 지속이 전망되나 제품가격 하락이 전반적으로 가시화되며 업계의 가동률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 생산은 1.5% 증가에 그쳐 연

간 2.6%의 소폭 증가를 기록할 전망

- 2005년 하반기 수입은 물량기준으로 3.4%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이나 상반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연간으로는 6.1% 감소가 예상되고 금액기준으로는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감소한 14.8% 증가율로 연간 23.3%의 증가폭을 기록할 전망

〈섬 유〉

-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민간소비 회복 둔화로 내수는 11.6% 감소가 예상되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감소폭은 둔화될 전망
 - 그러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당초보다 약화되고 있는 데다 가계부채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회복 지연으로 큰 폭의 소비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쿼터 폐지에 따른 경쟁심화로 수출은 7.9% 감소가 예상되고, 소비의 양극화에 따른 수입 증대로 수입은 8.8% 증가할 전망
 - 하반기 수출은 미국, EU 등의 쿼터 폐지 및 원화절상 등으로 인해 후발 개도국들에 의한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

고, 수입은 소비의 양극화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월등한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 급증과 고급 섬유제품 및 섬유 소재의 수입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 섬유 후발개도국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고, 내수 및 수출 감소로 생산은 9.7% 감소 전망
 - 고유가에 의한 섬유업체의 채산성 악화 및 국내 섬유업체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와 국내 신규 투자 감소에 따른 국내 생산 기반의 약화도 섬유생산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 전〉

- 지난해 부진을 면치 못했던 가전 내수는 기업의 대대적인 홍보와 공격적 마케팅, 대기수요의 구매 실현 등에 힘입어 회복세이며, 하반기에도 12% 증가할 전망
 - 가전수출은 환율하락, 가격경쟁 심화로 금년 5월 말 현재 달러화 기준으로 -6.0%의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세계 수출환경 악화로 하반기에도 달러화 기준으로 0.6% 감소할 전망이다.
- 내수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수출의 감소폭이 내수 증가폭보다 더욱 커서 하반기 가전 생산은

1.4% 증가에 그칠 전망

- 내수 회복과 원화강세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가전 수입은 5월 말 현재 1.8%의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달러화 기준으로 3.4% 증가할 전망이다.

〈통신기기〉

- 하반기 통신기기 수출은 이동전화기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둔화세를 보임에 따라 작년보다 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 상반기보다 증가한 16%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이동전화기 시장의 높은 보급률로 인해 수출수요가 대체수요에 의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첨단제품의 지속출시와 국내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그리고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등은 수출증가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 내수는 신제품으로의 대체수요가 이어지고 DMB 서비스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EVDO 서비스 증가에 따른 통신장비시장의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수출 증가세와 신규서비스 및 신제품에 대한 수요

지속 등에 힘입어 생산도 증가되지만 전년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수입은 이동전화기가 첨단화되면서 관련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증가되고 있지만, 이동전화기의 생산증가율 둔화와 관련 부품의 국산화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할 전망이다.

〈컴퓨터〉

- 내수는 보급률이 한계수준에 도달한 데다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하반기에는 6.6% 증가에 머물 전망
 - 생산은 수출감소, 가격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므로 과거수준으로 회복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하반기에도 7.8% 감소가 예상됨.
- 수출은 중국에 대한 가격경쟁력의 열세가 지속되면서 하반기에도 12.0%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수입은 외국기업의 가격마케팅, 삼보컴퓨터 영향, 저가제품 수요 등으로 1.4% 증가할 전망
 - 세계수요의 증가전망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 약화, 글로벌 메이커의 시장지배력 강화, 중국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

불리한 수출환경은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대만 등으로부터의 부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완제품인 노트북, 데스크톱의 수입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반도체〉

- 생산 및 수출은 세계 반도체시장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의 경쟁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5% 증가한 153억 달러에 이를 전망
- D램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낸드플래시 메모리시장은 MP3, PMP, 디지털카메라, USB메모리스틱 등의 저장장치 용량 증가에 힘입어 호조를 보일 것임. 따라서 D램의 부진을 플래시가 상쇄시키면서 상당한 수출증가를 이룩할 것임.
- 내수는 반도체 자체가 중간재이기 때문에 국내 휴대폰, 디지털가전 등 응용제품의 수요둔화로 하반기에 3.5%의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내수용 반도체는 대부분 비메모리이므로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해야 함. 다만 원화절상 등으로 수입가격이 낮아져 수입의 절대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표 1-2〉 전통주력산업의 수급 전망(전년 동기비 증가율)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생산	1.0	1.8	17.1	9.2	10.4	7.3	8.8
	수입	19.6	24.1	28.9	25.0	2.9	5.2	4.1
	내수	-17.5	-22.8	-5.2	-15.3	-6.1	9.2	1.2
	수출	20.2	31.6	30.7	31.1	18.3	4.4	10.9
조 선	생산	12.2	47.6	48.4	47.2	5.9	10.5	6.1
	수입	-1.0	54.3	45.0	49.6	-9.2	-7.2	-9.1
	내수	-5.5	54.8	41.0	47.9	-9.3	-5.6	-8.3
	수출	12.2	47.5	48.3	47.1	5.9	10.3	6.0
일반기계	생산	4.8	5.0	2.3	4.8	2.4	3.9	3.1
	수입	8.3	22.8	9.7	13.0	-1.1	4.3	1.6
	내수	4.7	4.4	2.3	3.6	0.2	2.7	1.4
	수출	15.8	35.8	17.5	25.7	7.2	8.5	7.8
철 강	생산	3.1	3.1	2.3	2.7	1.5	1.7	1.6
	수입	27.6	35.7	8.3	21.8	9.2	28.0	17.7
	내수	3.8	5.0	3.2	4.1	1.2	2.1	1.7
	수출	10.1	11.6	2.2	6.6	6.7	12.4	9.5
석유화학	생산	3.8	6.8	-0.1	3.3	3.6	1.5	2.6
	수입	-13.5	-15.5	-15.7	-15.6	-15.4	3.4	-6.1
	내수	-1.8	-1.5	-2.8	-2.1	-6.7	2.3	-2.2
	수출	8.5	14.9	1.0	7.5	15.4	13.8	14.6
섬 유	생산	-3.2	-9.0	-12.0	-10.5	-6.3	-9.7	-8.0
	수입	-14.9	0.3	-1.8	-0.5	-4.6	-2.5	-3.6
	내수	-15.4	-13.5	-4.4	-9.3	-0.4	-11.6	-5.8
	수출	10.2	1.6	-16.4	-7.9	-12.7	-4.4	-8.7

자료 : 산업연구원(KIET), 2005. 6.

주 : 모두 실질기준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3대 유도품), 섬유(섬유사) 등은 물량증감률이고, 조선, 일반기계는 명목금액증감률에서 가격증감률을 차감한 것임.

- 종합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하반기부터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급격한 가격하락세를 멈추고, 상당한 수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이는 우리 업계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낸드플래시의 공급확대, D램의 고급화, 가격결정의 리드화 등으로 수출증대를 꾀하고 있는 데 기인함.

〈표 1-3〉 IT주력산업의 수급 전망(전년 동기비 증가율)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가 전	생산	7.0	17.4	2.1	9.3	3.8	6.2	5.1
	수입	19.5	23.2	-2.6	10.3	-1.7	0.9	-0.4
	내수	1.1	5.9	-8.9	-2.1	19.7	17.0	18.4
	수출	14.3	29.0	22.9	25.7	-2.3	0.2	-1.0
통신기기	생산	29.6	30.5	19.8	25.2	6.8	9.6	8.1
	수입	4.2	21.6	3.6	11.0	-9.0	-3.2	-5.9
	내수	14.9	4.5	1.5	3.3	-9.1	5.6	-6.1
	수출	40.2	54.5	41.1	45.3	9.3	17.6	13.7
컴퓨터	생산	25.8	24.7	-6.8	10.7	-11.5	4.4	-4.2
	수입	2.4	9.9	15.4	12.6	10.8	5.2	7.8
	내수	11.7	-8.4	3.1	-1.5	26.2	18.8	22.9
	수출	16.8	40.5	-9.5	12.2	-32.9	-2.9	-15.9
반도체	생산	48.1	25.2	16.5	23.7	16.8	20.1	18.3
	수입	24.3	10.7	7.9	8.9	-0.2	-0.5	-0.5
	내수	26.7	8.5	6.4	6.9	-0.7	2.1	0.4
	수출	23.6	40.6	11.7	24.9	14.1	10.4	11.6

자료 : 산업연구원(KIET), 2005. 6.

주 : 모두 실질기준임. 명목금액증감률에서 가격증감률을 차감한 것임.

〈표 1-4〉 주요 업종의 수출률 변화추이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57.1	66.3	70.7	68.6	71.0	68.6	69.8
일반기계	21.9	25.8	25.3	25.6	26.7	26.2	26.4
철 강	26.6	27.7	27.5	27.6	29.1	30.4	29.7
석유화학	46.3	48.0	48.4	48.2	53.5	54.3	53.9
섬 유	54.9	56.9	56.1	56.5	53.0	59.4	56.1
가 전	56.3	64.3	62.6	63.5	54.2	55.7	54.9
통신기기	61.0	67.8	71.4	69.6	64.0	69.5	66.9
컴 퓨 터	77.3	85.3	87.7	86.4	71.1	83.7	77.3
반 도 체	85.8	88.7	90.5	89.6	90.0	89.0	89.5

자료 : 산업연구원, 2005. 6.

주 : 1)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2) 자동차는 부품 제외,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

〈표 1-5〉 주요 업종의 수입의존도 변화추이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1.5	2.0	2.4	2.2	2.2	2.4	2.3
일반기계	23.3	26.3	25.5	25.9	25.6	24.6	25.6
철 강	13.8	17.5	14.7	16.1	18.9	18.4	18.7
석유화학	11.7	10.1	10.0	10.1	9.2	10.1	9.7
섬 유	50.1	37.0	35.6	36.3	35.4	39.3	37.2
가 전	26.3	31.8	30.0	30.9	24.4	25.1	24.8
통신기기	21.2	23.5	26.2	24.8	19.3	22.9	21.1
컴 퓨 터	56.3	65.7	75.0	70.1	59.3	71.3	64.8
반 도 체	86.8	87.7	89.2	88.5	88.4	86.9	87.6

자료 : 산업연구원, 2005. 6.

주 : 1) 산업연관표의 산업별 수입의존도는 중간재 수입액을 총 투입액으로 나누어 구하나 여기서는 내수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2) 자동차는 부품 제외,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

〈표 1-6〉 주요 산업별 생산 전망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천대)	3,178 (1.0)	1,675 (1.8)	1,794 (17.1)	3,469 (9.2)	1,849 (10.4)	1,924 (7.3)	3,774 (8.8)
조 선 (백만 달러)	11,340 (4.3)	8,580 (37.1)	7,095 (39.7)	15,675 (38.2)	9,282 (8.2)	8,519 (20.1)	17,801 (13.6)
일반기계 (10억원)	52,130 (5.3)	28,053 (7.9)	28,508 (6.8)	56,561 (8.5)	29,188 (4.0)	30,210 (6.0)	59,398 (5.0)
철 강 (천톤)	53,264 (3.1)	27,168 (3.1)	27,528 (2.3)	54,696 (2.7)	27,570 (1.5)	28,000 (1.7)	55,570 (1.6)
석유화학 (천톤)	16,738 (3.8)	8,668 (6.8)	8,618 (-0.1)	17,286 (3.3)	8,980 (3.6)	8,750 (1.5)	17,730 (2.6)
섬 유 (천톤)	2,629 (-3.2)	1,214 (-9.0)	1,139 (-12.0)	2,353 (-10.5)	1,137 (-6.3)	1,028 (-9.7)	2,165 (-8.0)
가 전 (십억원)	26,642 (1.7)	14,050 (12.2)	13,900 (-1.6)	27,950 (4.9)	13,950 (-0.7)	14,100 (1.4)	28,050 (0.4)
통신기기 (십억원)	37,930 (18.1)	21,783 (22.4)	23,120 (14.8)	44,903 (18.4)	22,235 (2.1)	24,547 (6.2)	46,782 (4.2)
컴 퓨 터 (십억원)	23,090 (0.5)	17,713 (12.4)	10,100 (-14.2)	22,813 (-1.2)	9,853 (-22.5)	9,310 (-7.8)	19,163 (-16.0)
반 도 체 (십억원)	27,140 (21.4)	16,610 (33.4)	17,259 (10.8)	33,869 (24.8)	15,991 (-3.7)	17,592 (1.9)	33,583 (-0.8)

주 :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

3) 금액은 명목금액 기준.

〈표 1-7〉 주요 산업별 수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합계	
자동차	3,624 (17.9)	2,043 (11.5)	2,137 (19.1)	4,180 (15.3)	2,196 (7.5)	2,383 (11.5)	4,579 (9.6)
조선	987 (-2.6)	748 (60.9)	837 (60.3)	1,585 (60.6)	758 (1.3)	810 (-3.2)	1,568 (-1.1)
일반기계	10,390 (24.7)	6,495 (32.8)	6,377 (15.9)	12,872 (23.9)	7,242 (11.5)	7,553 (18.4)	14,795 (14.9)
철강	9,401 (30.7)	7,323 (65.2)	8,370 (68.4)	15,693 (66.9)	10,246 (39.9)	8,500 (1.6)	18,746 (19.5)
석유화학	5,821 (22.7)	3,572 (24.6)	4,443 (50.4)	8,015 (37.7)	4,780 (33.8)	5,100 (14.8)	9,880 (23.3)
섬유	5,882 (3.7)	2,949 (11.0)	3,393 (5.2)	6,342 (7.8)	3,016 (2.3)	3,691 (8.8)	6,707 (5.8)
가전	3,497 (16.3)	2,004 (21.4)	1,982 (7.4)	3,986 (14.0)	2,040 (1.8)	2,050 (3.4)	4,090 (2.6)
통신기기	3,340 (8.5)	1,842 (28.2)	2,050 (7.7)	3,892 (16.6)	1,891 (2.7)	2,179 (6.3)	4,070 (4.6)
컴퓨터	5,672 (-0.2)	3,060 (10.5)	3,280 (12.9)	6,340 (11.8)	3,663 (19.7)	3,690 (12.5)	7,353 (16.0)
반도체	21,328 (22.0)	11,724 (16.7)	11,894 (4.6)	23,618 (10.7)	12,090 (3.1)	12,540 (5.4)	24,630 (4.3)
합계	69,942 (15.4)	41,760 (25.2)	44,763 (20.1)	86,523 (23.7)	47,922 (14.8)	48,496 (8.3)	96,418 (11.4)

주 :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부품포함, 섬유는 섬유사, 섬유제품, 의류기준임.

〈표 1-8〉 주요 산업별 내수 전망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천대)	1,324 (-17.5)	586 (-22.8)	535 (-5.2)	1,121 (-15.3)	550 (-6.1)	584 (9.2)	1,134 (1.9)
조 선 (백만 달러)	1,184 (-7.1)	754 (61.4)	849 (56.3)	1,603 (58.9)	763 (1.2)	835 (-1.6)	1,598 (-0.3)
일반기계 (십억원)	53,087 (5.2)	28,241 (7.3)	28,607 (6.8)	56,848 (7.1)	28,750 (1.8)	29,990 (4.8)	58,740 (3.3)
철 강 (천톤)	45,365 (3.8)	23,816 (5.0)	23,402 (3.2)	47,218 (4.1)	24,100 (1.2)	23,900 (2.1)	48,000 (1.7)
석유화학 (천톤)	10,170 (-1.8)	5,016 (-1.5)	4,937 (-2.8)	9,953 (-2.1)	4,680 (-6.7)	5,050 (2.3)	9,730 (-2.2)
섬 유 (천톤)	1,772 (-15.4)	830 (-13.5)	777 (-4.4)	1,607 (-9.3)	827 (-0.4)	687 (-11.6)	1,514 (-5.8)
가 전 (십억원)	15,798 (-4.2)	7,349 (0.7)	7,429 (-12.6)	14,778 (-6.5)	8,464 (15.2)	8,337 (12.2)	16,801 (13.7)
통신기기 (십억원)	18,789 (3.4)	9,165 (-3.6)	8,963 (-3.5)	18,128 (-3.5)	9,924 (8.3)	9,701 (8.2)	19,625 (8.3)
컴 퓨 터 (십억원)	12,000 (-13.6)	5,436 (-20.7)	4,953 (-4.3)	10,389 (-13.4)	6,260 (15.2)	5,277 (6.6)	11,537 (11.1)
반 도 체 (십억원)	29,276 (18.6)	15,295 (7.1)	15,256 (2.7)	30,551 (4.4)	13,861 (-9.2)	14,726 (-3.5)	28,587 (-6.4)

주 :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

3) 금액은 명목금액 기준.

〈표 1-9〉 주요 산업별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 동 차	23,346 (33.5)	15,051 (41.9)	17,451 (37.0)	32,502 (39.2)	19,010 (26.3)	19,180 (9.9)	38,190 (17.5)
조 선	11,334 (4.3)	8,574 (37.0)	7,083 (39.6)	15,657 (38.1)	9,277 (8.2)	8,494 (19.9)	17,771 (13.5)
일반기계	9,587 (22.5)	6,331 (41.6)	6,291 (23.0)	12,622 (31.7)	7,673 (21.2)	7,769 (23.5)	15,442 (22.3)
철 강	9,280 (31.4)	6,096 (40.9)	7,290 (47.2)	13,386 (44.2)	8,200 (34.5)	8,250 (13.2)	16,450 (22.9)
석유화학	11,917 (28.6)	7,417 (32.5)	9,598 (51.8)	17,015 (42.8)	10,050 (35.5)	11,000 (15.6)	21,050 (23.7)
섬 유	15,253 (-2.7)	7,477 (2.5)	7,714 (-3.1)	15,191 (-0.4)	7,006 (-6.3)	7,105 (-7.9)	14,111 (-7.1)
가 전	12,610 (17.2)	7,751 (29.6)	7,744 (16.8)	15,495 (22.9)	7,450 (-3.9)	7,700 (-0.6)	15,150 (-2.2)
통신기기	19,411 (36.4)	12,654 (50.7)	14,420 (30.9)	27,074 (39.5)	14,033 (10.9)	16,742 (16.1)	30,774 (13.7)
컴 퓨 터	14,977 (15.7)	9,295 (43.7)	7,827 (-8.0)	17,122 (14.3)	6,910 (-25.7)	7,645 (-2.3)	14,555 (-15.0)
반 도 체	19,535 (17.5)	12,872 (55.8)	13,644 (21.0)	26,516 (35.7)	14,190 (10.2)	15,350 (12.5)	29,540 (11.4)
합 계	147,250 (20.4)	93,518 (39.0)	99,062 (26.5)	192,580 (30.8)	103,799 (11.0)	109,235 (10.3)	213,033 (10.6)

주 : 1) ()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부품 포함, 섬유는 섬유사, 섬유제품, 의류기준임.

〈표 1-10〉 10대 산업의 산업군/산업별 수출비중

단위 : 억 달러, %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총수출	1,938	1,233	1,306	2,538	1,373	1,436	2,809
10대 업종	76.0	75.8	75.9	75.9	75.6	76.1	75.8
전통주력산업	41.6	41.3	42.4	41.9	44.6	43.0	43.8
IT주력산업	34.3	34.5	33.4	34.0	31.0	33.0	32.0
자동차	12.0	12.2	13.4	12.8	13.8	13.4	13.6
조선	5.8	7.0	5.4	6.2	6.8	5.9	6.3
일반기계	4.9	5.1	4.8	5.0	5.6	5.4	5.5
철강	4.8	4.9	5.6	5.3	6.0	5.7	5.9
석유화학	6.1	6.0	7.3	6.7	7.3	7.7	7.5
섬유	7.9	6.1	5.9	6.0	5.1	4.9	5.0
가전	6.5	6.3	5.9	6.1	5.4	5.4	5.4
통신기기	10.0	10.3	11.0	10.7	10.2	11.7	11.0
컴퓨터	7.7	7.5	6.0	6.7	5.0	5.3	5.2
반도체	10.1	10.4	10.4	10.4	10.3	10.7	10.5

〈표 1-11〉 10대 산업의 산업군/산업별 수입비중

단위 : 억 달러, %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총수입	1,788	1,081	1,164	2,245	1,248	1,328	2,576
10대 업종	39.1	38.6	38.5	38.5	38.4	36.5	37.4
전통주력산업	20.2	21.4	22.0	21.7	22.6	21.1	21.8
IT주력산업	18.9	17.2	16.5	16.9	15.8	15.4	15.6
자동차	2.0	1.9	1.8	1.9	1.8	1.8	1.8
조선	0.6	0.7	0.7	0.7	0.6	0.6	0.6
일반기계	5.8	6.0	5.5	5.7	5.8	5.7	5.7
철강	5.3	6.8	7.2	7.0	8.2	6.4	7.3
석유화학	3.3	3.3	3.8	3.6	3.8	3.8	3.8
섬유	3.3	2.7	2.9	2.8	2.4	2.8	2.6
가전	2.0	1.9	1.7	1.8	1.6	1.5	1.6
통신기기	1.9	1.7	1.8	1.7	1.5	1.6	1.6
컴퓨터	3.2	2.8	2.8	2.8	2.9	2.8	2.9
반도체	11.9	10.8	10.2	10.5	9.7	9.4	9.6

II. 산업별 전망

1. 자동차산업

(1) 상반기 동향

□ 수출 호조 속에 내수부진의 지속

- 2005년 내수는 1~5월까지 45만 4,218대로 전년동기 대비 7.7% 감소하여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던 2004년보다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음.
- 지난 2년간 지속된 내수하락으로 2005년 상반기에 내수회복세가 기대되었으나 경기위축과 고유가, 경기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내수불황은 지속되었음.
- 차종별로 상반기에 신모델이 출시된 중·대형 승용차 수요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2004년 증가세를 보인 경차와 소형차는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며, 상용차는 내수 감소폭이 전년동기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음.
- 반면에 수출은 1~5월까지 108만 3,601대로 전년동기 대비 19.7%가 증가하였음.

- 이러한 수출 호조는 유가상승이나 원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신모델의 출시, 한국 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 수출 지역의 다변화 등의 요인에서 기인함.
 - 또한 국내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세계적인 소비자 조사기관의 신뢰성 및 만족도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등 인지도 개선도 수출호조 요인임.
- 수출호조와 내수침체 속에서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1~5월까지 152만 8,744대로 전년동기 대비 10.0%의 증가를 기록함.
- 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과 내수의 비중은 70.0%와 30.0%로 2004년의 65.1%와 35.4%에 비해 수출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음.
 - 내수 비중이 높은 상용차의 생산은 14만 1,748대로 전년동기 대비 2.4%의 감소를 보였으며, 승용차는 138만 6,996대로 11.1%의 증가세를 기록함.
- 수입은 1~5월의 기간 동안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한 9,947대를 기록함.
- 2005년 상반기 동안 수입자동차업체들은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오히려 가격은 인하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내수 시장을 공략하였으나, 경기침체 지속과 최근 대일 감정

악화 등의 이유로 수입 증가율이 낮아짐.

- 수입 승용차의 경우 유럽업체 59.2%, 미국업체 14.1%, 일본업체 26.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차 수입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2) 하반기 전망

1) 자동차산업의 여건변화

□ 대기수요 충족에 따른 내수회복 예상

-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회복이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 내수가 0.1% 감소하는 데 그쳐 하반기에는 지난 2년간 큰 폭의 감소에 따른 내수의 기술적 반등이 예상된다.
- 상반기 신모형을 출시한 중형 승용차를 중심으로 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하반기 신모형 출시 예정인 대형 승용차를 중심으로 내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경유승용차 출시와 각 업체별로 SUV의 신모형 출시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어 내수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지난 몇 년간 내수확대를 이끌어 왔으나 최근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SUV의 경우 신모델 출시로 내수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7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던 특소세도 2005년 연말까지 연장되어 내수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경기침체의 지속과 정부의 자영업자 구조조정 계획으로 상용차의 내수회복은 하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 증가

- 해외시장에서 한국차에 대한 높은 평가가 정착됨에 따라 현재 3~4%에 불과한 미국 및 유럽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국내 업체들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강세와 현지생산에 따라 미국시장보다 유럽, 호주, 중남미, 남아프리카 등에 대한 수출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자동차부품의 경우 제품 인지도 상승과 주요 자동차업체들

- 의 세계적 부품조달 확대에 따라 해외 OEM에 대한 수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 이와 함께 미국 현지공장의 본격 가동과 중국 현지공장의 생산설비 증대에 따른 부품 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그동안 자동차부품의 수출을 주도했던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자동차부품의 수출증가율도 2004년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또한 판매차종 및 부품의 고급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출물량보다 수출금액 증가세가 더 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원화강세가 미국 달러화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 경쟁상대인 일본의 엔화와 유럽의 유로화에 대해서도 지속될 경우 우리 자동차 및 부품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해져 수출증가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세계 자동차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의 자동차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위안화 절상의 경우 완성차 수출은 미미한 수준으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부품의 경우 중국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인한 반사이익으

로 수출증대가 예상되나, 원화 역시 최근 10% 이상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우리 자동차부품 총 수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에 그칠 전망이다.

□ 수출증가에 힘입은 생산 증가 예상

-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내수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4년에 이어 사상최대의 생산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됨.
- 2005년부터 해외 현지생산이 늘고는 있으나 국내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님.

□ 외국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 가열

- 국내시장에서 수입자동차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업체들의 가격인하와 원화절상에 따른 미국업체들의 가격인하가 수입 증가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고급 수입차의 경우 국내 경쟁 모델이 없고 선호 계층이 확실하여 하반기에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에는 수입 SUV와 경유승용차 등 다양한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수요도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모델 출시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예상

- 최근 외국 부품업체들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높은 성장률과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등을 이유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자동차부품 분야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내수 침체와 글로벌 경영의 가속화 필요성에 따라 국내투자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신차출시를 위한 설비투자과 차세대자동차 개발을 위한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자동차산업의 하반기 수급전망

□ 소폭의 내수 증가 예상

- 상반기 내수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던 2004년보다도 감소하였으나, 기술적 반등과 신모델 출시에 따른 대기수요 실현 등으로 하반기에는 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1〉 자동차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소세인하 연말까지 연장 · 신차출시에 따른 대기수요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위축 지속 · 자영업 구조조정 계획
수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에서 품질경쟁력 향상 · 지속적인 수출확대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강화 · GM, 포드의 경영 악화에 따른 반사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강세 · 세계경기 침체
생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모델 출시 · 경유승용차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현지 생산증가 · 자동차 수요 성숙단계 진입에 따른 구조적 내수 둔화
수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업체들의 가격인하 · 다양한 신모델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자동차 품질개선 · 소비자들의 대일감정 악화
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부품업체들의 투자증가 · 신모델 출시에 따른 설비 투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생산투자 증가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은 수출증가 지속과 내수의 소폭 증가로 인해 증가 · 내수는 수요층이 두터운 중형차와 SUV의 신모델 출시로 증가 예상 · 수출은 품질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증가세 유지 · 투자는 외국업체를 중심으로 다소 증가 예상 	

- 여건변화 요인들을 감안할 때 하반기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9.2% 증가한 58만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2005년 내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113만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수출 증가세 지속

- 당분간 수출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성장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 하반기 자동차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한 132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액기준(자동차 부품 포함)으로 전년동기 대비 9.9% 증가한 19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수출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264만대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액(자동차부품 포함)으로는 38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사상 최대의 생산 실적을 갱신할 전망

-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내수도 소폭 증가함으로써 2004년에 이어 최대 생산 실적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한 192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임.

- 2005년 생산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377만대로 2004년 최대 생산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보임.

□ 수입 증가세 다소 둔화

-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던 수입자동차 수요는 경기침체와 잠재수요가 일정부분 실현되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 수입은 물량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5.2% 증가한 1만 4,000여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액기준(자동차 부품 포함)으로는 2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표 II-2〉 자동차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천대, %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3,178 (1.0)	1,675 (1.8)	1,794 (17.1)	3,469 (9.2)	1,849 (10.4)	1,924 (7.3)	3,774 (8.8)
수 입	20 (19.6)	12 (24.1)	13 (28.9)	25 (25.0)	12 (2.9)	14 (5.2)	26 (4.1)
내 수	1,324 (-17.5)	586 (-22.8)	535 (-5.2)	1,121 (-15.3)	550 (-6.1)	584 (9.2)	1,134 (1.2)
수 출	1,815 (20.2)	1,110 (31.6)	1,269 (30.7)	2,380 (31.1)	1,313 (18.3)	1,326 (4.4)	2,639 (10.9)

주 : 1)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2) 내수와 수입은 신규등록대수 기준.

〈표 II-3〉 자동차산업의 수출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 출	23,346 (33.5)	15,051 (41.9)	17,451 (37.0)	32,502 (39.2)	19,010 (26.3)	19,180 (9.9)	38,190 (17.5)
수 입	3,624 (17.9)	2,043 (11.5)	2,137 (19.1)	4,180 (15.3)	2,196 (7.5)	2,383 (11.5)	4,579 (9.6)

주 : 1)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2)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742).

- 2005년 수입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약 2만 6,000여대로 금액(자동차부품 포함)으로는 9.6% 증가한 4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3) 정책 시사점

□ FTA 협상에 대한 사전 대응책 수립 필요

- 한·일 FTA를 비롯한 FTA 협상과정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후적인 구조조정 정책보다는 사전적인 경쟁력 강화정책을 수립할 필요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의 가속화에 따라 협정체결 당사국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의 국내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 수립

- 미국, 유럽뿐 아니라 잠재시장인 중국, 인도와 멕시코 등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업체의 시장지위가 약화되어 현지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바 이들 국가와의 지역무역협정체결 등 통상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자동차업체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사전 방지

□ 내수증대를 위한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요구

- 특소세의 폐지 및 감면 확대
 - 과급효과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특소세 개선방안 강구
 - 보유대수 증가로 인한 보유 및 운행단계 세수의 자연증가분으로 세수결손을 보완 가능
- 공 채 : 강제 매수 → 선택적 매입으로 전환
- 취득세 및 등록세 : 타 품목보다 세율이 높아 합리적 조정 필요
- 고급 수입차와 국산차의 형평성을 감안한 세제도입 검토가 필요하며 자동차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 도입 검토

□ 국가 이미지의 제고

-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인지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국가브랜

드가 뒷받침되지 못해 시장점유율 증대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산업정책이 산업디자인과 브랜드 육성을 간과한 채 수립·운영됨으로써 시장개방과 함께 외국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증가
- 따라서 자동차산업을 국가홍보에 활용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제 공인기관이 국가 신인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과 정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2. 조선산업

(1) 상반기 동향

□ 선별 수주로 수주량 감소, 생산은 다소 증가

- 세계 전체의 발주량은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국내 조선소들의 수익을 고려한 선별수주로 물량기준 감소
- 4월 말 기준 수주량은 국내 조선소들의 수익성과 도크 스케줄을 고려한 선별 수주로 작년 동기에 비해 약 16.5% 감소한 약 532만 CGT를 기록하였으나 선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금액기준으로는 14.8%의 증가를 나타냈음.

-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만 증가를 나타냈고 나머지 선종은 수주실적이 없거나 대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현재 충분한 일감이 확보된 상황이어서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해양플랜트 등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선별적 수주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생산의 경우 4월 말 기준 건조량은 약 324만 CGT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5.8% 증가
- 현재 건조완료 단계에 있는 선박들은 선가가 낮을 때 수주한 선박으로 금액기준 실적은 물량기준 증가율을 밑돌아 약 0.2%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음.
 - 선종별 건조량은 3월 말 기준 탱커가 46척 133만 CGT로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이 55.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컨테이너선이 19척, 74만 CGT로 30.9%를 차지하였음.
 -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수주된 일감의 건조일정에 따라 조선산업의 2005년 상반기 생산과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2.2% 증가한 약 87억 7,000만 달러로 예상됨.
 - 상반기까지는 낮은 선가시기에 수주받은 선박의 건조와 높은 후관가격, 절상된 원화 등으로 채산성의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나 점차 선가가 개선된 선박을 건조하면서 하반기에는 수익성 제고가 예상됨.

(2) 하반기 전망

1) 조선산업의 여건변화

□ 해운시황은 선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호조세

- 드라이 벌커시장의 경우 남미 곡물수출 시즌 도래, 중국의 석탄수입 증가 등으로 대부분 선형에서 강세 예상
 - 주요 건화물 관련 주요국(브라질, 중국, 호주, 남아공 등)의 항만 인프라 여건이 문제가 되면서 운임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케이프사이즈급은 중국의 철광석 수입허가제로 인한 규제강화로 운임 하락이 예상되고 있음.
- 탱커의 경우 비수기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신조선 유입 증대 등으로 운임 하락 예상
 - 특히 금년의 세계 경제성장 둔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세계 석유수요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석유제품운반선의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 컨테이너선의 경우 선박공급 부족 및 북미/유럽항로의 섬유 및 의류제품 수출 증가가 예상되면서 강세 전망
 - 섬유쿼터 폐지에 따라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및 유럽의 수입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전망이다.

□ 선종별 해체는 해운시황 및 선복량에 따라 다소 증가

- 벌커의 경우 시황이 호조세를 보여 해체량이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금년 하반기에는 증가할 전망
 - 해운시장의 호황으로 케이프사이즈 및 파나막스급의 선박 해체는 거의 없었으나 노후선 비중이 높은 핸디급의 해체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탱커의 경우도 시황이 좋아 해체량이 매우 낮았으나 금년 하반기까지 약 1,480만 DWT의 해체가 예상되고 컨테이너선의 해체는 미미
 - 탱커는 수에즈막스급을 제외한 나머지 선종의 해체가 작년과 금년 상반기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선종에서 선복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복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중선체, 배기가스 및 후판 관련 국제적 안전규제 강화 지속

- 탱커의 이중선체 의무화, 선박 배기가스 및 후판 두께 규제 강화 등 안전 관련 규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대체수요로 연결
 - 선박사고에 의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기준미달 선박 및 단일선체 탱커의 자국내 정박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

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도 단일 선체 탱커의 퇴출시한을 앞당겼음.

- 또한 선박의 배기가스 규제,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선박용 후판 두께 강화조치(CSR) 등 각종 국제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대형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 정기항로용 컨테이너선의 대규모·대형화 추세를 비롯, LNG선 등도 대형수요 증가 추세
 - 현재 주요 항로에 투입되고 있는 7,500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2007년 140척, 2010년 300척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LNG선의 경우도 138km³에서 250km³까지 커졌고 향후 360km³급까지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블록조달을 위한 해외 현지투자 확대

- 수주한 대규모 선박의 건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블록 조달을 위한 해외 블록공장 설립 증가
 - 중국 Ningbo에서 블록 공장을 운영중인 삼성중공업은 이 공

장의 블록 생산능력을 6만톤에서 12만톤으로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20만톤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

- 대우조선해양 역시 중국 엔타이에 5만톤급(장기적으로 30만톤까지 확충) 블록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에 착수하였고, 한진중공업은 필리핀에 금년 4분기 착공, 2007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필리핀 수빅만의 9만평 부지에 약 500억원을 투자해 절단, 조립, 도장공장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 한편, 국내 업체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설비확장을 위한 투자는 미미

〈표 II-4〉 조선산업의 투자예상 및 원인

투자유형	투자예상	이유
설비투자	△	최대 수주잔량으로 건조설비 부족 → 육상건조설비 확충(대규모 투자는 한계), 블록조달을 위한 해외투자 확대
연구개발투자	△	신선형 개발, 새로운 건조기술의 개발 등에 대한 투자 지속
총 투자	△	건조량 증대 대응 시설 확충, 신선형/건조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 지속(대규모 투자는 한계)

주 : 투자예상은 ○(변화 없음), △(다소 증가), ▲(대폭 증가), ▽(다소 감소), ▼(대폭 감소).

〈표 II-5〉 조선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생 산	- 생산성 향상 및 공법개선 - 충분한 건조물량 확보	- 원자재 가격 상승(수익악화) - 국내 블록건조업체의 신조 전환
내 수	- 선박편드의 활성화 - 해운시황 호전 지속	- 여자원 감소/연근해 어업 침체
수 출	- 국제적 단일선체, 배기가스, 후관 관련 안전규제 강화 - 선박의 대형화 니즈 강화	- 노후선박 대체 감소 - 중국 조선소의 설비확장/급성장
투 자	-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 - 블록생산을 위한 해외설비 투자 - 수익 증가로 R&D투자 증가	- 국제적 설비과잉 논란으로 생산력 증강투자 곤란
종합평가	- 단기적으로 안정적, 큰 여건변화는 없음(3년 이상 건조물량 확보) - 블록조달을 위한 해외투자/생산효율 제고 및 R&D투자 증가 전망	

-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후관가 급등, 원화절상 등에 따른 일시적 채산성 악화로 감소되었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실적 호전으로 증가가 예상됨.
- 생산증대를 위한 설비투자의 경우 과잉설비에 대한 국제적 논란, 통상마찰 등의 문제 때문에 대규모 투자는 어려움을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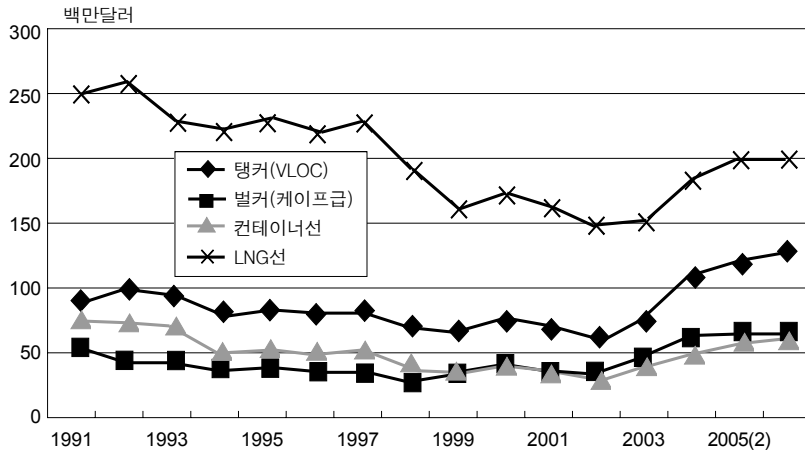
□ 위안화 절상에 따른 영향은 소폭일 경우 거의 없을 전망

- 위안화 절상에 따른 영향은 소폭일 경우(5% 미만) 대중국 교역, 투자 등 대부분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 대중국 투자의 경우 현지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기 자재업체 및 일부 조선소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위안화 절상이 큰 폭으로 이뤄질 경우(10% 내외) 중국 경기 위축에 따른 영향이 있을 전망
 - 수입단가의 상승, 중국 경기위축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선박 발주 감소, 잠재된 대중 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이 예상됨.

□ 신조선가는 발주량 증가 및 후관가격 상승으로 지속적 상승세

- 선박의 발주물량 증가와 함께 꾸준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조선가도 후관가격 상승과 맞물려 상승세 지속
 - 신조선가는 2005년 4월 말 기준 VLCC의 경우 약 1억 2,800만 달러로 상승하여 최저수준 대비 102.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컨테이너선의 경우도 선박 수급상황 개선과 물동량이 늘면서 3,500TEU급 컨테이너선의 선가가 최저수준 대비 87.9%의 상승률을 보였음.

〈그림 II-1〉 신조선가 추이



자료 : 한국조선공업협회.

- LNG선의 선가도 작년 연말부터 상승추세를 보여 최저수준 대비 34.7% 상승하고 있는 등 전 선종에 걸쳐 선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신조선가의 상승은 강제가 급등에 따른 건조비용 상승, 해운시황의 호조에 따른 선박 공급 부족, 최근 대량수주에 따라 납기의 여유가 없어진 점 등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강제가격의 하락 추세가 나타나면 낮아질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

2) 조선산업의 수급전망

□ 고부가가치선 위주의 선별 수주 지속

- 수주실적 및 수주잔량이 최근까지 계속 사상 최대규모를 보임에 따라 하반기에도 고부가가치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 예상
 - 세계 조선시장의 발주규모가 최근까지 다소 늘었으나 하반기에는 작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컨테이너선 및 LNG선의 발주는 약간 늘어날 전망이다.

□ 수주 감소, 생산 및 수출은 증가

- 하반기의 선박 수주는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전략이 지속되면서 상반기에 이어 계속 감소할 전망
 - 상반기의 수주량도 작년 동기에 비해 감소했으나 건조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수주잔량은 계속 증가해 왔음.
 - 최근까지의 많은 수주물량 확보로 이미 3년간의 건조일감을 채웠고, 세계시장의 발주감소가 예상되므로 하반기의 수주물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그동안 수주한 선박의 건조일정에 따라 생산 및 수출은 선가 상승이 반영된 선박의 건조가 진행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약 20% 증가할 전망

- 특히 선가 상승의 반영,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 증가로 금액기준 증가율은 물량기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5년 하반기의 조선산업 생산 및 수출은 금액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약 20% 증가한 약 85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178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 국내 조선산업은 가격 경쟁력 우위는 물론 비가격 경쟁력에서도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도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종합 경쟁력 우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전망

〈표 11-6〉 조선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11,340 (4.3)	8,580 (37.1)	7,095 (39.7)	15,675 (38.2)	9,282 (8.2)	8,519 (20.1)	17,801 (13.6)
수 입	987 (-2.6)	748 (60.9)	837 (60.3)	1,585 (60.6)	758 (1.3)	810 (-3.2)	1,568 (-1.1)
내 수	1,184 (-7.1)	754 (61.4)	849 (56.3)	1,603 (58.9)	763 (1.2)	835 (-1.6)	1,598 (-0.3)
수 출	11,334 (4.3)	8,574 (37.0)	7,083 (39.6)	15,657 (38.1)	9,277 (8.2)	8,494 (19.9)	17,771 (13.5)

주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한편, 도크 스케줄상 국내에서 수주를 못하는 선박 물량이 설비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으로 몰리면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건조경험 축적에 따른 학습효과에 의해 중국의 빠른 경쟁력 제고가 예상된다.

(3) 정책 시사점

□ 각종 국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대책 필요

- IMO, ISO, IACS 등의 국제기구에서 계속 강화하고 있는 각종 국제규제에 대한 단기적 대처는 물론 능동적 관여 절실
 - IMO, ISO, IACS 등의 국제기구는 조선산업의 각종 규제 및 국제 기준을 정하고 이의 적용을 독려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협의체로서 근래 들어 단일선체 탱커 퇴출, 선박 배기가스 및 선박용 후판 두께 관련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이러한 각종 규제조치가 새로 시행되면 우선 기업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능동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규제가 본래의 취지 외에 시장선점 및 진입 억제 등의 효과를 염두에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리도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함.
 - 즉 지금까지 국제기구에서 정해진 국제 법규에 순응하고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수동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규제 제정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공조적 입장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원자재에 대한 다원적 공급체계 지원

- 조선산업의 경우 후판은 가장 중요한 원자재로서 원가비중이 18~20%에 달하기 때문에 가격 및 물량 면에서 안정적 공급체계 필요
 - 특히 선박은 건조기간 동안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요인의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 명시 필요

- 조선산업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의 비중은 약 50%를 상회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므로 정부의 기준 정립 및 대응방안 명시
 - 업체별로 동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조선산업 기능인력의 상당부분이 사내 하청업체 인력이므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여 노사 내지 노노갈등이 현재화되면 산업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 있으므로 비정규직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홍보하여 산업현장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

3. 일반기계산업

(1) 상반기 동향

□ 내수 및 수출증가율 큰 폭 둔화

- 일반기계의 내수 및 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내 기계수주 동향을 보면, 2004년 3/4분기 -6.6%, 4/4분기 -5.4%, 2005년 1/4분기 -6.8%로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2005년 4월의 국내 기계수주 역시 전년동월 대비 -10.3%로 줄어들었음.
- 설비투자 추계는 2005년 1/4분기 중 전년동기비 3.9% 증가하였으나 4월에 다시 -0.3% 감소세로 반전됨.
- 수출은 2005년 4월 말까지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비 17.7%의 높은 증가세를 보여 48억 7,9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상반기에 21.2% 증가한 74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수출증가율이 높은 품목들을 보면, 반도체 제조용 기계가 81.3% 증가한 1억 7,900만 달러, 내연기관 및 터빈이 41.4% 증가한 2억 1,400만 달러, 운반하역기계가 35.6% 증가한 2억 3,600만 달러, 건설광산기계가 11.9% 증가한 6억 6,4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국별 수출증가율을 보면 대미국 수출증가율이 4월 말 누계기준 전년동기비 48.9% 증가하였으며, 대일본 수출이 37.5% 증가한 반면 대중국 수출은 2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생산은 내수가 다소 부진하나 수출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비 4.0% 증가한 약 29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1/4분기 기준으로 생산이 증가한 품목을 보면, 농기계가 24.1%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베어링 8.4%,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6.8%, 내연기관 6.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수입은 2005년 4월 말까지 누계기준으로 전년동기비 7.0%의 증가세를 보여 44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상반기에 11.5% 증가한 72억 4,2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특히,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경우 1/4분기 기준 전년동기비 30.5% 증가한 10억 4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가공

공작기계의 경우 8억 1,500만 달러를 수입하여 전년동기
비 15.9% 증가하였음.

- 주요국별 수입증가율을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4월 말 누계기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으로 미국이 29.2%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 3.8%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음.

(2) 하반기 전망

1) 일반기계산업의 여건변화

□ 경기회복 가능성으로 내수 증가 예상

- 상반기에는 경기 불안에 따른 보수적 투자 양상으로 일반
기계업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실정이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효과가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하반기 이후 일반기계업종의 내수가 다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증가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수요산업인 조선산
업의 견실한 증가세에 따라 내연기관의 호조세가 예상되고,
반도체 제조장비도 반도체업체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개체 투자로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중동지역으로의 플랜트 수출 여건 호조

- 국내 일반기계업계의 경우 최근 중동 오일머니 특수로 이라크 전쟁 등으로 10년 가까이 진출길이 막혔던 중동시장 진출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
 - 특히 종합상사들은 “설계-자재조달-시공” 등 전 공정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랜트업계의 맥가이버’로 불리며 잇따라 수출수주에 나서고 있어 더욱 활기를 보이고 있음.
- 플랜트 사업 수주는 공장건설 및 자재조달을 통한 수출 유발효과 이외에도 향후 그 공장에서 생산된 품목의 판권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유발할 수 있음.
- 고유가의 행진에 힘입어 중동 국가들이 노후설비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일반기계업계의 경우 담수설비, 발전설비, 제철설비, 석유화학설비 등을 중심으로 대중동 플랜트 수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

□ 위안화 절상 소폭일 경우 수출 감소 효과 미미

- 일반기계의 대중국 수출비중 추이를 보면, 2002년 19.7%, 2003년 26.4%, 2004년 25.2%, 2005년 1~4월 19.6%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상대국으로 부상하여 향후 일반기계의 수출은 중국의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위안화의 5% 이내 소폭 절상시 일반기계의 대중국 수출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기계 가운데 건설기계, 공작기계 및 섬유기계가 주로 중국 내수용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시 예상되는 중국의 성장둔화가 대중국 수출수요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다만 위안화 절상폭이 클 경우, 중국 내수용 수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일반기계 수출은 중국 내 설비축소 등에 따라 둔화세가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
- 또한 위안화의 소폭 절상시 대세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일반기계는 아직까지 제3국 수출시 중국과의 가격경쟁보다는 일본과의 제품경쟁 및 가격경쟁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 단, 위안화 절상폭이 비교적 클 경우, 우리나라 일반기계의 수출 가운데 대미국 수출점유율이 높은 운반하역기계 및 냉동공조기기를 포함하여 미국시장에서 일부 경합관계에 있는 밸브, 베어링 등 범용 부품 등의 경우에는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수출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원화절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우려

- 일반기계는 제조업의 핵심 생산설비로서 경쟁력 확보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가격요인보다 품질경쟁력이 구매 요인으

로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 원화절상에 의한 손실분을 수출가격으로 전가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채산성은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수입의 경우 핵심부품에 대한 일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일본산 부품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수입 측면에서는 일반기계의 특성상 가격경쟁력보다 품질경쟁력에 구매 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최근 원화절상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출둔화 효과 미미

- 일반기계산업은 유가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채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
 - 일반기계산업의 경우 관련 중간재의 석유화학 관련제품의 의존도가 낮아 유가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인상효과가 미미한 편임.
- 다만 유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이는 결국 세계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질 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세계경기 둔화로 진전될 경우를 가정할 때 우리 일반기계 주

수출 대상국인 중국, 미국으로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노후설비의 교체압력 증대로 투자 유발 가능성

- 하반기 중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수 가시화, 투자부진 장기화에 따른 노후설비의 교체압력 증대 등이 하반기 투자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품목별로는 반도체 장비, 조선산업의 호황에 따른 내연기관 등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

2) 일반기계산업의 하반기 수급전망

□ 내수, 내연기관 등 호조로 4.8% 견실한 증가세 예상

- 내수는 하반기 중 수요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그간 투자부진 장기화에 따른 노후설비의 교체압력 증대로 설비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연간기준으로 전년 대비 3.3%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품목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조선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내연기관의 호조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표 11-7〉 일반기계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장비 및 조선산업의 호황에 따른 내연기관 호조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에 대한 불안심리로 보수적 투자 심리 상존
수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인도, 미국 등지의 해외현지투자기업의 설비투자 수요 증가 중동지역으로의 플랜트 수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중국 위안화 절상 폭이 클 경우 수출 감소 우려 범용 기계류를 중심으로 하는 대만, 중국과의 경쟁 확대
생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장비 분야 설비투자 확대 자동화 투자 노력 	
수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화절상에 따른 일본산 부품 수입 증가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상승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기업채산성 악화로 수입 감소
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화투자 확대 예상 노후설비의 교체 압력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불안 심리로 인한 투자 위축 심리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및 반도체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생산 및 내수 호조세 지속 예상 중동지역의 플랜트 수출 확대 예상 중국 위안화 절상 폭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상대적으로 긍정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중동지역으로의 플랜트 수출 호조로 23.5% 증가 예상

- 수출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 가능성,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범용 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대만, 중국산과의 경합 확대 등 어려운 여건이 있으나 중동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미국, 중국 및 인도 등지의 해외 현지투자기업의 설비투자 수요 증가 등 긍정적 요인도 상존할 전망

- 상반기의 경우 전년동기비 21.2% 증가율에서 하반기에는 23.5%로 다소 증가될 것이며, 연간기준으로는 22.7% 증가율을 시현하여 수출액은 약 15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유가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재원이 비교적 풍부해진 중동 국가들이 잇따라 노후설비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대중동 플랜트 수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
 - 국내 관련 업체들은 담수설비, 발전설비, 제철설비, 석유화학설비 등을 중심으로 중동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음.
- 플랜트 이외 수출증가율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종은 공작기계, 냉동공조기계, 밸브 등
 - 공작기계의 경우 중국, 인도 등 해외진출 자동차기업의 투자증가와 유럽지역으로의 관련 업계 수출확대 전략 등의 요인으로, 냉동공조기계의 경우 중동, 중남미지역에서의 수요 증가, 밸브의 경우 중동지역의 석유화학플랜트 수요 증가 등의 낙관적 요인이 예상됨.

□ 생산 6.0% 증가세 유지

- 생산은 상반기의 경우 전년동기비 4.0%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하반기부터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다소 증가하여 연간기준으로 5.0%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품목별로는 내연기관, 반도체 장비, 공작기계, 냉동공조기계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수입 14.9% 증가세 예상

- 반도체산업 및 자동차산업 등 수요산업에 있어서 설비투자

〈표 11-8〉 일반기계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십억원, 백만 달러, %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52,130 (5.3)	28,053 (7.9)	28,508 (6.8)	56,561 (8.5)	29,188 (4.0)	30,210 (6.0)	59,398 (5.0)
수 입	10,390 (24.7)	6,495 (32.8)	6,377 (15.9)	12,872 (23.9)	7,242 (11.5)	7,553 (18.4)	14,795 (14.9)
내 수	53,087 (5.2)	28,241 (7.3)	28,607 (6.8)	56,848 (7.1)	28,750 (1.8)	29,990 (4.8)	58,740 (3.3)
수 출	9,587 (22.5)	6,331 (41.6)	6,291 (23.0)	12,622 (31.7)	7,673 (21.2)	7,769 (23.5)	15,442 (22.3)

주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고, 수출입은 달러 기준임.

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수입증가율이 18.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일반기계는 제조업의 핵심설비로서 경쟁력 확보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구매요인으로 가격요인보다 품질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특성을 지님.

(3) 정책 시사점

□ 중국시장의 지속적 확대 노력

- 중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중국정책 및 일반기계산업정보 등 대중국 해외투자 관련 정보체제 구축을 강구해 나가야 함.
- 지속적인 대중국 수출 증대를 위해 중국제품과의 차별화 전략을 추진함과 아울러 공격적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임.
 -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초고속, 고정밀 등 차세대 기계산업 분야는 아직 진입단계이나 중저급 기종에 대해서는 규모면에서 급격한 신장세
 - 중국이 일반기계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아직 범용품 생산에 치우치고, 높은 기술 수준을 요하는 고가·차별화 제품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는 기술 개발을 통한 고가·차별화 전략을 통해 대중국 수출 확대를 꾀해야 할 것임.

□ 수출 다변화 및 중동시장 확대 노력 필요

- 2005년 4월 말 현재 19.6%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비중을 완화시키기 위해 인도, 러시아, 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 강화
- 제2차 중동 붐을 맞는 지금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 기업, 금융기관들이 플랜트 수주를 위해 입체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도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플랜트의 경우 주요 부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가져오기 때문에 단순 토목·건축 등에 비해 외화가득률이 높음.

□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가속화 및 핵심역량 강화 중요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술개발과제가 완료될 경우 관련 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관련 수요기업의 구매보증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
- 특히 메카트로닉스화 진전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원화절상 추세에 대비하여 생산라인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용절감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함.
- 국내 일반기계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2002년 기준 2.58%로 제조업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기술혁신 및 제품차별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4. 철강산업

(1) 상반기 동향

□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 및 재고 증가

-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산업에서의 철강소비 수준이 활발하게 유지되면서 경기회복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봉형강류의 부진세를 상쇄해 전년동기에 비해 내수는 1.2% 정도 늘어날 전망
- 2005년 1~4월까지의 국내 철강제품 명목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했으며, 판재류 명목소비가 11.4% 늘어난 반면, 봉형강류는 8.7% 감소했음.

-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산업의 국내 생산활동이 활발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상반기 판재류, 특수강 등의 출하는 증가했음.
 - 그러나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가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형강, 철근 소비가 15% 내외로 감소했음.
- 당초 올해 상반기부터 경기회복을 기대한 수입증가가 작년 말부터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상반기 수입은 당초 예상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시중재고 부담요인으로 작용
- 과거 1~2년간 급증하던 중후판의 국내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입이 15.5%나 감소했으며, 열연강판, 전기아연도 강판이 감소한 대신 선재가 28%, 철근은 19.6%나 늘어나는 등 봉형강류의 수입증가가 두드러졌음.
 -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005년 1~4월 기간 동안 전년동기 대비 2.3배나 늘어났으며, 대부분의 품목에서 큰 증가세를 보여 국내 시장에서 저가공세 및 판매경쟁을 촉진하고 있어 제강업체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 생산은 비교적 출하가 순조로운 판재류를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났으며, 봉·형강류를 주로 생산하는 전기로제강업의 생산활동은 부진한 양상을 보였음.

- 제품별로는 1~4월 기간 동안 판재류의 생산이 전년동기 대비 9.3%가 늘어난 반면, 봉형강류 생산은 8.8%나 감소했으며 특히 철근의 생산감소가 두드러졌음.
- 전로법에 의한 조강생산은 2005년 1~3월까지 661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7%가 늘어났으며, 전기로에 의한 조강 생산은 동 기간 동안 0.6% 증가에 그쳤음.
- 반면 보통강과 특수강의 생산구조를 보면 전로강의 경우 보통강 생산에 비해 특수강 생산 증가폭이 더욱 컸으며, 전기로강은 보통강이 감소하고 특수강이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음.

(2) 하반기 전망

1) 철강산업의 여건변화

□ 경기회복 부진으로 철강 국내 소비에 부정적 영향

- 하반기에도 자동차산업의 해외로의 수출이 활발하고 조선 산업에서도 생산활동이 활발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설비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판재류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하반기에도 건설경기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은

어려워 철근, 형강, 봉강 등 봉·형강류에 대한 국내 소비는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2005년 상반기 내내 부진을 면하지 못했던 건설경기는 하반기에는 판교분양 효과 및 상반기 부진에 대한 상대적인 반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국제 철강가격 전반적인 안정세 보일 듯

- 2004년에 지속되었던 국내외 철강재 가격의 상승은 중국 중심의 세계 철강수요 증가와 경기순환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단기적인 가격등락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국제 철강가격은 계속 강세를 보였음.
 - 핫코일 국제가격은 2004년 말에 1톤당 530달러에서 2005년 2월 말 550달러, 4월 말에 600달러로 계속 올랐으나 이후 5월 말 현재 6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상승세는 꺾인 것으로 분석됨.
 - 이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입단가는 2005년 2월까지는 전년동기에 비해 37% 정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었으나, 4월에는 24% 상승에 그쳤음.
- 아시아지역은 중국 및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안정적인 성장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반 및 저급재를

제외하고는 철강제품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하락폭은 크지 않을 전망

- 특히 가격하락에 대응하여 세계 최대 철강업체인 Mittal사가 감산을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연초 급등한 제철원료 가격 상승이 반영되면서 철강제품 가격하락 여지는 적음.
-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회복이 예상외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이 연착륙에 성공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아시아지역의 수출여건은 크게 악화되지 않을 전망
- 단, 상·하공정 간의 불균형구조는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하반기에도 반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수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주요 철강업체들의 설비 신증설 움직임 활발

- 국내 핫코일 부족이 장기화하면서 포스코가 미니밀 2호기를 재가동하였고, INI Steel의 당진공장 가동 정상화, 주요 제강업체들의 상반기 설비합리화 이후 공급능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
- INI Steel은 최근 B지구의 코렉스 설비를 폐기하고 고로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공식 발표한 바 있으며, 2007년에 착공하여 2010년경부터 본격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위안화 대폭 절상될 경우 부정적 영향 우려

- 위안화의 소폭 절상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출과 내수에

〈표 11-9〉 철강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내 수	· 조선, 자동차 중심 특수강, STS, 판재류 소비 호조	· 건설경기 침체로 봉형강류 중심 내수 부진
수 출	· 중국 경기 연착륙 · 국제가격 강세 지속	
생 산	· 포스코 미니밀, INI 당진공장 핫 코일 설비 재가동	· 봉형강류 내수부진으로 전기 로제강업체의 가동률 저하
수 입	· 국내 공급부족 제품 수입 계속 높은 수준 유지(후판, 열연 등)	· 건설경기 부진으로 철근 등 봉형강류 제품 수입감소
투 자	· 에너지절약, 환경 관련 투자, 합리화 투자 증가 지속	
종합평가	· 국내 경제, 특히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내수둔화 예상되며, · 내수부진으로 인한 수출여력 확대, 높은 국제가격으로 수출 증가 지속 전망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 한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위안화가 대폭 절상될 경우 이는 한국 철강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향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철강수요 감소를 초래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전반적으로는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국 철강산업은 철광석의 해외 의존도가 약 50% 수준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원자재 수입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됨.
 - 위안화 절상과 더불어 원화가치 상승이 수반될 경우 위안화 절상에 따른 반사이익은 상당히 희석될 것으로 전망됨.

2) 철강산업의 하반기 수급전망

□ 건설경기 부진으로 철강내수는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건축경기 침체로 인해 봉형강류의 소비는 계속 감소할 전망이지만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산업의 국내생산이 호조를 지속한다면 판재류와 특수강 중심의 철강 내수는 전년 수

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늘어날 전망

- 주택 미분양률이 늘어나는 등 주택수요 위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토목보다는 건축에 대한 원단위가 높은 철근, 형강의 소비 부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 수출여력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 두 자릿수 예상

- 국내 공급여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이 계속된다면 해외수출을 확대하려는 업체들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더욱이 조정국면이라고는 하지만 국제 철강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 국내 업체들로서는 수출확대를 통한 수익개선을 도모할 것임.
 - 반면 2004년부터 수입이 계속 늘어났으나 국내시황이 악화되면서 시중재고 증가로 연결되었던 철근, 형강 등의 수출입 증가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전기로제강업체들의 가동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국제 철강가격 상승이 일단락되고 조정국면에 들어서면서 물량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났던 금액 기준 수출입 규모 증가폭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낮아질 전망

- 다만 빌렛, 슬라브 등의 반제품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에 크게 늘어났던 선철 수입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임.

□ 구조조정 완료, 설비가동 정상화로 생산은 1.7% 늘어날 듯

- 국내 철강산업에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2004년에 마무리되고, 2005년부터는 일부 설비가 재가동되면서 국내 철강 생산이 다소 늘어날 전망
- INI Steel 당진공장의 제1열연 설비가동, 포스코의 미니밀 2호기 재가동으로 조강 생산 증가가 예상됨.

〈표 II-10〉 철강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천톤, %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53,264 (3.1)	27,168 (3.1)	27,528 (2.3)	54,696 (2.7)	27,570 (1.5)	28,000 (1.7)	55,570 (1.6)
수 입	6,252 (27.6)	4,174 (35.7)	3,438 (8.3)	7,612 (21.8)	4,560 (9.2)	4,400 (28.0)	8,960 (17.7)
내 수	45,365 (3.8)	23,816 (5.0)	23,402 (3.2)	47,218 (4.1)	24,100 (1.2)	23,900 (2.1)	48,000 (1.7)
수 출	14,151 (10.1)	7,526 (11.6)	7,564 (2.2)	15,090 (6.6)	8,030 (6.7)	8,500 (12.4)	16,530 (9.5)

주 : 1)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2) 철강재 기준임.

〈표 II-11〉 철강산업 전체 수출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 출	9,280 (31.4)	6,096 (40.9)	7,290 (47.2)	13,386 (44.2)	8,200 (34.5)	8,250 (13.2)	16,450 (22.9)
수 입	9,401 (30.7)	7,323 (65.2)	8,370 (68.4)	15,693 (66.9)	10,246 (39.9)	8,500 (1.6)	18,746 (19.5)

주 : 1)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2) MTI 61 code 철강제품 기준임.

(3) 정책 시사점

□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건설경기의 합리적 운용 필요

-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민간 건설 및 설비투자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 운용 필요
 - 국내 건설경기는 정책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도 급냉-과열 양상을 반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철강소비도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생산 및 수입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철강산업의 안정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건설정책의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해외 철원 확보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 세계적으로 제철원료의 확보가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철 스크랩의 해외조달 확대 및 국내 가격안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반제품의 경우에는 해외 생산을 포함하는 해외로부터의 공급확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계 철강산업의 구조변화를 고려한 국내 상하공정간 균형 발전 모색

- 상하공정 불균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및 업계의견 수렴 필요
 - 국내 철강제품의 수급불균형이 주로 상하공정간 성장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만큼 철강산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전망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저급강재 수입급증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 불공정 무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산업피해 구제조치 제도의 재점검을 통하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석유화학산업

(1) 상반기 동향

□ 수출 호조 속 내수 감소로 수요 양극화 심화

- 3대 유도품 기준 2005년 1분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7.9%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으나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8.2%나 감소, 수요 측면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수출비중은 52.5%로 최고치를 기록
 - 수출의 대폭 증가는 고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수입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데 기인하며 내수는 전방산업의 부진 지속으로 마땅한 수요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
- 유도품 기준 2005년 상반기 수출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가 지속되며 전년동기 대비 15.4% 증가한 48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품목별로는 중국 화섬부문 생산의 증가와 국내 섬유산업 부진이 맞물리며 합섬원료 수출이 수출증가세를 견인할 전망
- 한편, 2005년 1~4월간 수출금액(전체 기준)은 수출단가 강세와 60%를 상회하는 대중화권 수출 호조에 힘입어 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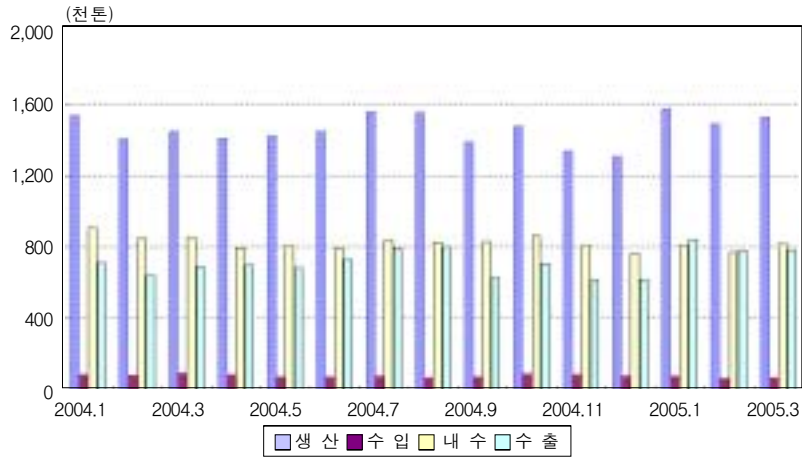
증가, 2004년의 호조세를 이어갔으며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35.5% 증가한 10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할 전망

- 그러나 내수는 건설, 섬유, 자동차 등 주요 수요산업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전년동기 대비 6.7% 감소한 468만톤 수요에 그칠 전망
 - 수요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 PVC, ABS 등 주요 합성범용수지 및 합성고무 등의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임.

□ 생산은 증가세, 수입물량은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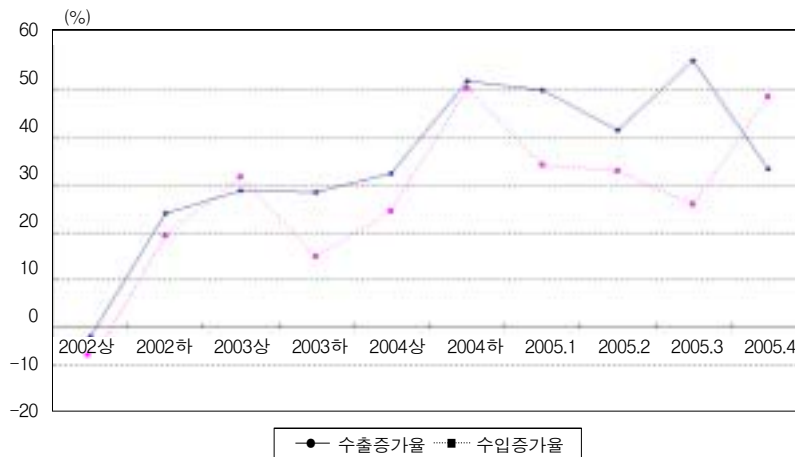
- 1분기 생산은 2004년 말 TPA(Terephthalic Acid) 등 일부 설비의 증설과 수출호조에 따른 가동률 및 설비효율 제고 등으로 4.6% 성장했으나, 내수부진과 고유가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물량은 18.6%나 크게 감소
- 2005년 상반기 생산은 2분기 이후의 석유화학제품 가격 하락 움직임으로 일부 가동률 조정을 검토하는 등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 전년동기 대비 3.6% 증가에 그칠 전망
- 물량기준 수입은 PP, AN 등 주요 수지제품의 수요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필렌, 벤젠 등 일부 원료에 있어서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내수 부진으로 인해 감소세가

〈그림 II-2〉 최근 유도품 수급물량 변동 추이



주 :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기준.

〈그림 II-3〉 최근 석유화학제품 수출입금액 증가율 추이



자료 : KOTIS.

주 : 원료를 포함한 석유화학 전제품 기준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전년동기 대비 15.4%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2005년 1~4월간 원료를 포함한 전체 석유화학제품의 수입금액은 35.5% 증가한 32억 9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높은 수입단가로 인해 상반기에 33.8% 증가한 47억 8,000만 달러에 달할 전망

(2) 하반기 전망

1) 석유화학 산업의 여건변화

□ 하반기 경기의 상대적 호전으로 내수가 회복세로 반전될 전망

- 내수는 2005년 하반기 국내 소비수준의 회복세 전망과 기술적 반등 요인 등으로 인해 소폭 상승세로 반전될 전망이나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
- 민간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한 전망산업으로부터의 수요 확대, 수출증가세 둔화, 정부의 내수부양정책 예상 등은 업체들로 하여금 내수 판매전략을 강화하게 만드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전자, 자동차 등 전망산업으로부터의 수요확대 예상으로 합성수지, 합성고무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될 전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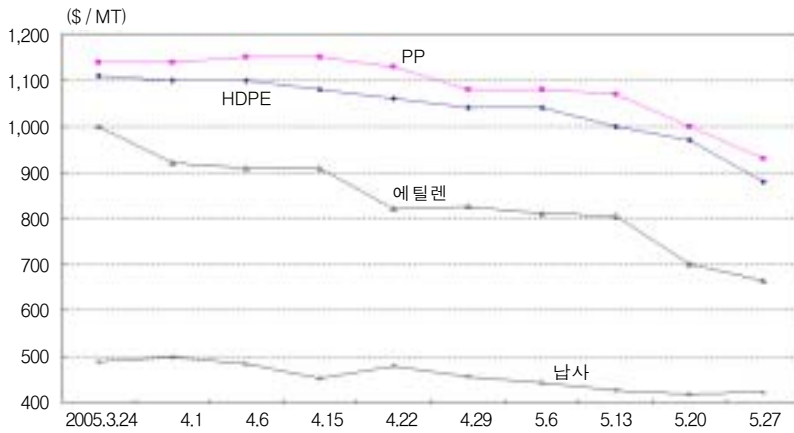
나 합섬원료의 경우 업계의 전반적인 침체 예상으로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더딜 전망

- 합섬원료의 내수는 화학섬유 부문의 수출침체와 화섬업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지속 예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을 전망

□ 제품 국제가격 하락, 대외여건 불안정으로 수출 증가폭은 둔화될 전망

- 중화권을 비롯한 세계 석유화학제품의 수요초과 양상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해외 공급은 중국 및 중동지역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동지역의 신·증설투자는 정세 불안으로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예정된 신·증설 규모도 폭발적인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
- 한편, 국내 석유화학제품 생산도 특화제품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어 이로 인한 품질경쟁력 향상도 양호한 수출여건을 조성할 전망
- 다만, 원화환율 및 유가 불안정 등 예상되는 대외여건 불안, 제품 국제가격 하락과 가격전가의 한계로 인해 수출단가의 전반적인 하락이 가시화될 가능성, 내수회복세 가시

〈그림 II-4〉 최근 석유화학 원료 및 제품가격 하락 추이



자료 : Platt's.

화에 따른 내수판매전략 강화 가능성 등은 2005년 하반기 수출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대중국 수출 면에 있어서는 예정된 신·증설설비 가동으로 인한 중국 자급률 향상, 경기속도 조정, 통상압력 강화 예상 등으로 인해 수입수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임.
 - 대중국 수출증가세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 수입업체의 재고가 낮게 유지될 전망이고 중국 내 지방산업의 수출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성수지 위주로 수출규모 확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중국의 긴축기조 강화, 위안화 평가절상 등 연착륙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단행될 경우 수출여건은 크게 악화될 가능성도 있음.
- 종합해 볼 때, 2005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그 증가폭은 줄어들 전망

□ 수출증가세 둔화, 업계 가동률 조정 예상으로 생산은 미증

- 2005년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세 둔화와 국제가격 하락세 반전 예상으로 인한 가동률 조정 전망으로 인해 생산은 전반적으로 미미한 증가세에 그칠 전망이다.
- 또한 범용품 수요의 포화양상 및 설비 면에 있어서 대규모 신증설 투자 위축도 생산여력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구조적으로는 업체들의 현지화 전략 추진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의 생산비중은 증가하고 국내생산은 정체 내지 미미한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수입금액, 증가세 유지되나 폭은 둔화될 전망

- 상반기에 비해 수출증가폭이 둔화되고 대외여건이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수입단가 대폭 둔화 예상으로 물량은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 하반기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 예상, 전망산업으로부터의 수요 증가, 수출증가세 지속 요인 등은 건조한 수입금액 증가를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증가폭은 수입단가 하락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특히, 하반기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율 및 유가 불안정, 중국의 위안화 절상 가능성 등 대외여건 불안은 수입증가폭을 둔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 제품별로는 원료 및 주요 수출품목인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수입금액 증가세가 주도될 것으로 보이지만 화섬업계의 침체로 3대 유도부문 중 85% 이상을 차지하는 합섬원료의 수입은 정체 내지 미증에 그칠 전망

□ 투 자

- 설비투자는 고부가가치 다운스트림 부문에서 설비확충 및 증설이 전망되고 있으나 제품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동률 감축도 예상되고 있어 대폭적인 신·증설 투자는 힘들 것으로 전망
- 최근 투자동향은 대체투자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가절감 투자, R&D 투자 등 질적 투자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전망

〈표 II-12〉 석유화학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내수 회복세로 전망산업 수요증가 예상 · 여건변화로 인한 업체들의 내수 판매전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회복세 지연 · 화섬산업 침체로 인한 합섬원료 내수부진 지속
수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석유화학제품의 수요초과 지속 · 특화제품 위주의 생산구조 전환 · 고유가로 인한 국제가격 강세 유지 · 북미, EU지역의 내수위주 진출 · 주요공급국의 신증설 설비가동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환율과 유가 불안정,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 ·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 주요 수출국 생산능력 증대에 따른 수입수요의 감소가능성 · 내수회복세 가시화에 따른 내수위주 전략 도모 가능성
생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운스트림 부문 및 해외 생산능력 확충 · 업계의 구조조정 및 생산효율 향상 노력 · 내수 회복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한 업계의 가동률 조정 · 수출증가세 둔화 · 공급초과양상으로 대규모 신증설 투자 부재
수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회복 예상, 수출증가세 지속 · 원화환율 하락으로 기초유분 및 중간 원료를 중심으로 대미수입 증가 예상 · 수입단가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증가폭 둔화 및 내수회복 지연 · 유가 및 원자재가격 안정화 · 화섬업계 침체
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및 질적 투자 강화 ·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공급여력으로 대규모 신증설투자 난망 · 내수 침체양상 지속 · 세계경기 둔화, 위안화 절상 가능성 등 불안요인 상존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 하반기 소폭 회복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성장 전망 · 수출 : 수요초과 지속으로 수출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나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수요 감소 및 제품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으로 증가폭 둔화 · 생산 : 미미한 증가세 유지 · 수입 : 하반기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상반기 큰 폭 감소로 연간으로 마이너스 성장 예상 	

- 해외투자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는 지속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 경기 둔화, 중국 위안화 절상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대규모 직접투자는 힘들 것으로 예상

2) 석유화학산업의 하반기 수급전망

- 내수, 하반기 2.3% 증가 전망되나 연간으로는 2.2% 감소 예상

- 하반기 석유화학 내수는 경기의 점진적 호전 전망과 이에 따른 연관산업의 수요확대로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가시화될 전망
- 2005년 하반기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세로 반전, 505만톤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상반기 내수의 큰 부진으로 연간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한 973만톤에 그칠 전망

- 수출, 물량기준 연간 14.6%, 금액기준 23.7% 증가 전망

- 하반기에도 주요국의 안정적 성장으로 석유화학 수입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신증설로 인한 자급률 향상, 경기의 속도 조절로 인

해 수요증가율이 소폭 둔화될 전망

- 따라서 하반기 수출은 유도품 물량기준으로 13.8% 증가, 상반기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어서 연간으로 14.6%의 증가를 전망
- 원료를 포함한 금액기준으로는 볼 때 물량증가율은 소폭 낮아진 선에서 유지될 것이나 원료 및 유도제품들의 가격 하락으로 하반기 15.6% 증가율로 증가폭이 둔화, 연간으로 23.7% 증가한 211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할 전망

□ 생산, 하반기 1.5%로 증가폭이 줄어 연간 2.6% 미증 예상

- 2005년 하반기에도 해외 수입수요 지속이 전망되나 제품가격 하락이 전반적으로 가시화되며 업계의 가동률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하반기 생산은 1.5% 증가에 그쳐 연간 2.6%의 소폭 증가를 기록할 전망

□ 수입, 물량기준 연간 6.1% 감소, 금액기준으로는 23.3% 증가예상

- 2005년 하반기에는 내수경기가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전망산업으로부터의 수요 증가, 수출증가세 유지, 제품단가 하락 등으로 말미암아 3.4% 증가세로 반전될

〈표 II-13〉 석유화학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천톤, %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16,738 (3.8)	8,668 (6.8)	8,618 (-0.1)	17,286 (3.3)	8,980 (3.6)	8,750 (1.5)	17,730 (2.6)
수 입	1,186 (-13.5)	508 (-15.5)	493 (-15.7)	1,001 (-15.6)	430 (-15.4)	510 (3.4)	940 (-6.1)
내 수	10,170 (-1.8)	5,016 (-1.5)	4,937 (-2.8)	9,953 (-2.1)	4,680 (-6.7)	5,050 (2.3)	9,730 (-2.2)
수 출	7,754 (8.5)	4,159 (14.9)	4,175 (1.0)	8,334 (7.5)	4,800 (15.4)	4,750 (13.8)	9,550 (14.6)

자료 : 실적치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추정 및 전망치는 산업연구원.

주 :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기준.

〈표 II-14〉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 출	11,917 (28.6)	7,417 (32.5)	9,598 (51.8)	17,015 (42.8)	10,050 (35.5)	11,000 (15.6)	21,050 (23.7)
수 입	5,821 (22.7)	3,572 (24.6)	4,443 (50.4)	8,015 (37.7)	4,780 (33.8)	5,100 (14.8)	9,880 (23.3)

자료 : 실적치는 KOTIS 무역통계, 추정 및 전망치는 산업연구원.

전망이나 상반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연간으로는 6.1% 감소 예상

- 하반기 총수입금액은 하반기 물량증가 예상에도 불구하고 단가 하락폭이 클 것으로 보여 상반기 33.8%보다 감소한 14.8% 증가율로 연간 23.3%의 증가폭을 기록할 전망

(3) 정책 시사점

□ 생산구조 선진화·전문화 유도 시급

-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성장가능성이 큰 새로운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구조를 선진화하도록 유도하고 국내 산업경쟁력과 시장규모 면에서 자생력이 있는 분야부터 집중적으로 발굴·육성해야 함.
 - 이를 위해 기업의 R&D투자와 연구원 비율의 확대, 기업간 공동 R&D 및 부분합병 유도, 연구소 및 기업별 연구분야의 전문화 유도, 공공기관 개발기술의 산업체 이전을 위한 채널의 구축 등이 시급히 필요

□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중요

-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공급과잉 및 범용소재 부문 포화 문

체가 향후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바, 국내 기업들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선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 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이 용이한 유연한 산업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및 기업간 통합, 사업부문간 제휴, 교환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

□ 수출지역 다변화 및 특화제품 생산 비중 확대 절실

-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점차 심화(2000년 35.1% → 2004년 46.4%)되고 있으며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대중화권 수출비중은 60%를 육박하고 있음.
- 지역 편중은 해당국의 정책기조 변화시 수출전략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
- 아울러 가격에 비탄력적인 특화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하여 대내외 충격에 덜 민감한 산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임.

6. 섬유산업

(1) 상반기 동향

□ 섬유산업의 생산 감소폭 확대

- 지난해에 봉제의류와 직물을 중심으로 생산 감소폭이 크게 완화되었던 섬유산업의 생산이 금년 1분기에 화학섬유 및 염색,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증대
 - 섬유산업의 생산은 물량기준으로 2004년 1분기에 5.7% 감소에서 금년 1분기에 7.7% 감소하여 감소폭이 2.0% 포인트 확대
 - 특히, 봉제의복 생산이 지속적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점차 회복되면서 2004년 하반기에 생산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금년 1분기에 다시 전년동기비 4.3% 감소
 - 섬유사 및 직물 직조업은 중국으로의 수출증대 등에 힘입어 생산 감소폭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추정
- 금년 상반기 수출은 의류를 중심으로 중국 등 후발개도국에 의한 수출시장 잠식이 가속화되면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의류의 경우 주력시장인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수출이 금년 1~4월 기간 동안 금액기준으로 각각 28.0%, 5.3%, 51.6%, 62.4% 감소

〈표 II-15〉 섬유산업의 생산증가율 현황

단위 : %

	2003	2004			2005 1/4	
		1/4	상반기	하반기		
화학섬유	-2.1	-3.0	-4.1	-7.2	-5.7	-9.6
섬유사	-13.2	-16.5	-14.3	-12.6	-13.5	-7.3
직물직조업	-16.9	-10.0	-11.6	-2.7	-7.3	-7.2
편조업	-0.9	1.2	-3.3	-6.7	-5.0	-4.3
염 색	-9.6	-3.3	-2.9	-5.5	-4.1	-11.7
봉제의복	-15.6	-4.9	-1.7	1.6	0.0	-4.3
기타 섬유제품	-2.7	-3.2	-6.8	-10.3	-8.6	-13.0
섬유산업 전체	-10.7	-5.7	-5.6	-4.6	-5.1	-7.7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통계」, 2005. 6.

주 : 수치는 물량기준 증가율.

- 직물 수출은 금년 1~4월 동안 4.2% 감소하였는데, 중국, 필리핀으로의 수출이 각각 11.1% 및 26.6% 증가한 반면,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기타 아시아 후발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이들 국가들의 의류생산 둔화로 감소
- 내수의 경우 의류부문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반면, 섬유소재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수입은 국내경기 둔화로 고급품의 수입이 줄어든 반면,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중저가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
- 금년 1~4월 동안 중국, 대만,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동기비 각각 3.7%, 14.7% 및 7.0% 증가한 반면, 미

국, 일본,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0.6%, 8.3% 및 24.1% 감소

(2) 하반기 전망

1) 섬유산업의 여건변화

□ 점진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 점진적인 경기회복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하반기에는 민간 소비가 늘면서 의류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류 및 기타 섬유제품의 수출 감소에 따른 섬유소재 수요 감소 등으로 생산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

□ 섬유쿼터 폐지로 중국 등에 의한 시장잠식 가속화

- 2005년 1월 1일자로 미국, EU, 캐나다, 터키 등의 섬유쿼터가 완전히 폐지됨.
 - 우리나라는 그동안 쿼터 수혜국으로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쿼터 폐지 후 무차별적인 경쟁으로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에 의한 시장 잠식이 가속화됨.
 - 중국의 미국 의류수출은 2005년 1분기에 전년동기비 51.4% 증가하여 미국 의류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4년 1분기

14.7%에서 2005년 1분기에 22.2%로 급증

- 쿼터가 폐지된 이후 쿼터거래비용 소멸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과 주요 섬유 수입국의 수출단가 하락 압력으로 우리나라처럼 추가적인 수출단가 하락이 어려운 국가들은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원화 절상으로 채산성 악화 예상

- 섬유산업은 국제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가격변동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환율 하락, 제조원가 상승 등과 같은 제품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제품가격 인상이 어려움.
- 앞으로 원화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할 경우, 원화기준 수출단가 하락으로 업체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될 뿐만 아니라 한계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
 - 수출 마진이 낮은 업체들은 원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익률 하락으로 수출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출 오더가 있어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

□ 해외직접투자 확대 지속

- 하반기에도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는 2005년 미국, EU 등의 섬유쿼터가 폐지된 이후 이들 시장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통해 이들 시장을 직접 공략하기 위해서임.
- 또한 섬유소재 업체들도 중국의 봉제의류업체들에 대해 수출용 의류생산에 필요한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임.
- 반면, 국내 설비투자의 경우 화섬, 면방, 직물업계가 과잉설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설비 감축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설비확장을 위한 투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연구개발투자 확대 예상

- 대부분의 섬유기업들이 신규설비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보유설비에 대한 수리와 생산라인의 파트별 교체로 일관하고 있는 등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신규설비 도입 및 설비의 전면교체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임.
- 하지만 섬유 후발국의 가격경쟁력을 극복하고 제품 차별화를 위해 섬유업계는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차별화 제

품 개발,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

□ 위안화 절상 가능성

- 섬유소재 중심의 대중국 수출은 위안화가 5% 이상 절상될 경우 한국산 소재 조달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국산 소재 조달비중의 증가로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대중국 수입 역시 중국 제품과의 가격차이가 매우 커 10% 이하의 위안화 절상으로는 가격 격차가 크게 좁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대중국 수입에의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2) 섬유산업의 하반기 수급전망

□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과 민간소비 회복 둔화로 내수는 11.6% 감소 전망

- 가계소비지출 억제에 따른 의류 소비지출 감소와 생산 및 수출 감소에 따른 섬유소재의 수요 감소로 섬유 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경기회복 가능성으로 감소폭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

〈표 II-16〉 섬유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의류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증가 한계 · 의류 수출 감소에 따른 섬유소재 수요 감소
수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의류수출 확대에 따른 수출용 의류생산에 필요한 섬유소재 수입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경기 부진 · 섬유수입쿼터 폐지에 따른 후발개도국의 미국, EU 등 시장 잠식 · 중국 등 후발 개도국들의 생산능력 확장에 따른 자립도 상승 ·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입규제 강화 · 원화 환율 하락
생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류소비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투자 부진에 따른 생산기반 약화 · 수출 감소, 수입 증가
수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에 따른 역수입 증가 · 원화 환율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경기 회복 지연
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섬, 면방, 직물 등의 설비과잉 · 수출 감소에 따른 생산 부진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화 환율 하락 및 원유 등 원자재가격 하락이 제품생산비용 하락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당초보다 약화되고 있는 데다 가계부채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회복 지연으로 큰 폭의 소비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쿼터 폐지에 따른 경쟁심화로 수출은 7.9% 감소 전망

- 금년 하반기 수출은 미국, EU 등의 쿼터 폐지 및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 후발 개도국들에 의한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면서 금액기준으로 전년 동기비 7.9%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저부가가치·범용품 위주의 생산 및 수출 구조로 인해 중국 등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이 많은데, 후발 개도국들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생산설비 확충과 함께 수출확대를 꾀하면서 우리의 시장 잠식을 가속화

□ 내수 및 수출 감소로 생산은 9.7% 감소 전망

- 섬유 후발개도국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어 국내 섬유 생산은 금년 하반기에 9.7% 감소 전망

- 고유가에 의한 섬유업체의 채산성 악화 및 국내 섬유업체의 해외직접 투자 증가와 국내 신규 투자 감소에 따른 국내 생산 기반의 약화도 섬유생산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소비의 양극화에 따른 수입 증대로 8.8% 증가 전망

- 소비의 양극화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월등한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일부에서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의 고급 섬유제품 및 섬유소재의 수입수요 증가로 금년 하반기 섬유산업 전체의 수입은 금액 기준으로 8.8% 증가 예상

〈표 II-17〉 섬유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천톤, %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2,629 (-3.2)	1,214 (-9.0)	1,139 (-12.0)	2,353 (-10.5)	1,137 (-6.3)	1,028 (-9.7)	2,165 (-8.0)
수 입	587 (-14.9)	307 (0.3)	277 (-1.8)	584 (-0.5)	293 (-4.6)	270 (-2.5)	563 (-3.6)
내 수	1,772 (-15.4)	830 (-13.5)	777 (-4.4)	1,607 (-9.3)	827 (-0.4)	687 (-11.6)	1,514 (-5.8)
수 출	1,444 (10.2)	691 (1.6)	639 (-16.4)	1,330 (-7.9)	603 (-12.7)	611 (-4.4)	1,214 (-8.7)

주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고, 수급통계는 섬유사 기준임.

〈표 II-18〉 섬유산업의 수출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 출	15,253 (-2.7)	7,477 (2.5)	7,714 (-3.1)	15,191 (-0.4)	7,006 (-6.3)	7,105 (-7.9)	14,111 (-7.1)
수 입	5,882 (3.7)	2,949 (11.0)	3,393 (5.2)	6,342 (7.8)	3,016 (2.3)	3,691 (8.8)	6,707 (5.8)

주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고, 섬유산업 전체 기준임.

- 해외에서 생산된 의류의 역수입 증가로 의류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섬유소재는 의류의 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류수출 감소 등으로 금액 기준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 섬유업체의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적극적인 유치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의류 중심의 수입 증가 예상

(3) 정책 시사점

□ 수입규제에의 대응 필요

- 세계시장에서 공급과잉으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덤핑 제소 등 수입규제가 빈번해지고 있음.

- 특히 미국, EU 등의 섬유수입쿼터가 완전히 폐지된 이후 선진국들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금년 5월 말 현재 미국과 EU 등은 중국산 섬유제품의 수입증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수출관세 폐지 발표 등으로 맞대응
- 따라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

□ R&D 투자 확대를 통한 제품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 유도

- 우리나라 섬유업체들은 저부가가치·범용품 위주의 수출구조로는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
- 따라서 R&D 투자 확대를 통해 제품 차별화·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국내섬유산업은 중소기업이 선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능력 부족 등으로 제품차별화가 어려워 생산성이 매우 낮음.
-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제품차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R&D 자금지원이 절실

□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필요

- 기업들이 해외 전시회 출품을 통해 해외 바이어들을 직접 공략할 수 있도록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을 강화
- 주요 수출시장의 품목별 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업체들에 제공함으로써 업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수출 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

□ 섬유업체들의 개성공단 입주를 적극 지원

- 미국, EU 등의 쿼터 폐지 이후 봉제의류를 생산단가가 높은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임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봉제의류업체들이 개성공단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
 - 과거 홍콩이 중국 심천지역과 연계하여 상호 보완적인 산업협력을 통해 홍콩 섬유산업을 다시 발전시킨 것처럼 우리 섬유산업도 똑같은 방법을 통해 섬유산업의 발전을 도모

7. 가전산업

(1) 상반기 동향

□ 내수 회복 가시화

- 2003년 이후 계속 부진을 면치 못했던 가전 내수는 기업의 대대적인 홍보와 공격적 마케팅, 대기수요의 구매 실현 등에 힘입어 금년 상반기에는 15%의 큰 폭의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이상 한파 및 금년 여름 무더위 예보 등에 따른 에어컨 특수와 혼수 제품 수요 증가로 생활가전 매출이 크게 증가
 - 특히 드럼 세탁기와 양문형 냉장고 등 고가제품으로의 교체 가속화
 - 디지털방송 방식 결정과 가격하락으로 디지털TV 매출도 미미하나마 증가세

□ 수출은 원화 강세 등으로 감소

- 가전수출은 금년 5월 말 현재 달러화 기준으로 -6.0%의 감소세로 돌아섬. 이는 전년 동기의 높은 증가율(30.2%)에 대한 기술적 반락과 함께 환율하락, 가격경쟁 심화 때문임.
 - 원화의 달러화 및 엔화에 대한 강세로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가격 경쟁력 약화

- 금년 들어 수출단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물량도 큰 폭으로 감소
- 중소기업체들의 환율손익분기점은 1,050원대/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를 상회하는 달러화 및 엔화 대비 원화 강세 지속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수출가격 전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체들의 수출 채산성 급격 하락으로 수출 포기, 또는 수출가격 인상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초래

□ 생산은 수출 부진으로 감소

- 비록 내수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수출의 감소폭이 내수 증가폭보다 더욱 커서 가전의 상반기 생산은 0.7%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원화로 환산한 수출 감소율은 -16%에 달해 기업의 채산성도 크게 악화

□ 수입은 소폭 증가

- 내수 회복과 원화강세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가전 수입은 5월 말 현재 1.8%의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 가전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확대로 대중 수입이 증가세

(2) 하반기 전망

1) 가전 산업의 여건변화

□ 내수 여건

- 긍정적 요인으로는 디지털방송의 전국 확대,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과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 나노기술을 접목한 웰빙·저소음·저전력의 신제품 출시, 가전업계의 디지털 가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확대 등임.
 - PDP와 LCD 등 디스플레이 모듈 가격 하락과 수요창출 촉진을 위한 가격인하 전략으로 디지털TV 가격이 20~30%의 큰 폭 하락
 - 또한 저가의 슬림 브라운관 TV 개발로 잠재 수요층 공략
- 그러나, 소득 탄력성이 큰 내구소비재로서 경기동향에 가장 민감한 가전은 근본적으로 소득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현재의 고실업 상태, 신용불안 지속,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주택건설 부진이 내수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수출 여건

- 긍정적 요인으로는 미국의 일체형 디지털TV 의무화, 영국의 무료 디지털위성방송 개시 등 디지털 영상기기 수요 확대, 국내 가전업체들의 시장선점을 위한 제품 다양화 및 적극적 마케팅 전략에 힘입은 해외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고품질의 웰빙 가전 경쟁력 강화, 유로화 강제로 유로지역으로의 수출 증가, 해외생산 확대로 주요 부품의 국내조달 증가 등
- 부정적 요인으로는 일본과 대만, 중국 등의 경쟁업체 진입 증가로 경쟁 심화, 세계적 공급 증가로 인한 주요 디지털 가전제품 가격의 급격 하락, 미국의 달러 약세에 따른 수입수요 둔화, 금리인상과 고유가 등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기 둔화 및 중국의 연착륙 등 세계경제성장 둔화, 급격한 원화 절상으로 인한 수출 채산성 악화, 해외생산 지속 확대 등
 - 일본 등 경쟁국과의 가격인하 경쟁으로 주요 수출품목인 디지털 TV 수출단가가 계속 하락 추세이며 수출단가지수도 금년 1분기에 전년 동기비 2.7% 하락
 -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 성장세 둔화로 가전 수요 위축
 - 중국과 멕시코, 동유럽의 현지 생산 확대로 국내수출 대체

- 또한, 원화강세 지속으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자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 한편, 중국 위안화가 5% 이내에서 절상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10% 전후일 경우 우리나라 제품의 상대적인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수출이 다소 증가할 전망

□ 생산 여건

- 긍정적 요인으로는 디스플레이 가격 하락 및 생산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가전 가격 하락으로 국내외 수요 촉진, 슬림형 브라운관 디지털TV 등 신제품 연구개발투자 확대, 주요 부품의 외국인투자 확대와 국산화 진전으로 국내 조달 용이와 원가 절감 등임.
 - PDP TV·LCD TV보다 저렴한 슬림형 브라운관 디지털 TV의 세계 최초 출시로 수요기반 대폭 확대 가능
 -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관련 부품의 클러스터 형성으로 외국인투자 촉진
- 부정적 요인으로는 멕시코·동유럽에서의 디지털가전 현지 생산 확대와 아날로그 제품생산의 해외이전으로 국내생산

축소, 고유가 지속으로 원가상승 압박, 소득격차 양극화에 따른 고가 및 저가의 수입품 증가세, 원화 강세로 수출채 산성 악화 및 수입수요 증가 등임.

- 보급형 DVDP, VCR, 블록형 브라운관 TV, 전자레인지, 8mm 캠코더 등의 국내생산 중단

□ 수입 여건

- 증가요인은 내수 회복, 일본산 고가 제품과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증가, 원화절상으로 수입수요 확대, 중국 가전업체들의 한국 진출 등임.
- 감소요인은 주요 가전 부품의 국산화 추진, 디지털 TV 등의 국산 제품 경쟁력 강화 등임.

□ 투자 여건

- 국내에서는 그 동안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에서 첨단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해외에서는 기존에 구축된 해외생산망의 시설투자로 디지털가전 현지 생산 확대가 예상된다.

〈표 II-19〉 가전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방송의 전국 확대 · 제품가격 하락으로 수요 증가 · 기업의 공격적 마케팅 · 대기수요의 가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사정 악화 지속 ·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 수준으로 구매력 둔화
수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시장 다변화 · 중국, 동유럽 등의 현지생산 확대로 관련부품 수출 증가세 · 대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적극적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심화로 주력 수출품목인 디지털 TV 수출단가 하락 · 원화 강세로 가격 경쟁력 약화 · 중국과 멕시코 등 현지생산 확대로 국내수출 대체 · 미국 및 중국 경기 둔화
생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가전 수요 증대 · 가격 하락으로 수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생산 증가 지속으로 국내 생산분 감소 추세 · 원화 강세로 수입 증가
수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 가전 수입 증가 · 원화 강세로 수입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 국산화
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신제품 연구개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확대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환경 악화로 수출 감소세로 반전 · 제품 가격 하락과 대기수요의 구매 실현으로 내수 증가 · 따라서 금년 가전은 내수가 견인 	

2) 가전산업의 하반기 수급전망

□ 내수 10%대로 회복세

-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시행, 업체의 적극적인 판매촉진 전

락, 품질수준의 향상과 가격 하락, 디지털 영상기기와 웹빙 가전 판매 확대 기대와 전년감소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내수는 2004년 하반기 13%의 감소세에서 금년 하반기에는 12% 증가할 전망

- 그러나 이는 2년 연속 감소세 이후 2002년 규모로 회복되는 수준에 불과한 것임.

□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 감소 지속

- 수요 측면에서 고유가 지속에 따른 미국과 일본 등 세계경기 둔화로 디지털기기 수요가 둔화되고, 공급 측면에서 한·일간 시장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격인하 전략과 생산 증가로 수출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며, 전년에 대한 기술적 반락으로 금년 하반기 수출은 달러화 기준으로 0.6% 감소할 전망이다.

□ 수출 부진으로 생산도 1% 증가에 그칠 전망

- 생산을 견인할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가 이를 보전할 정도로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하반기 생산 증가율은 1.4%에 그칠 전망이다.

□ 소비의 양극화와 원화 절상으로 수입은 3% 증가

- 디지털 카메라, 고급 전구 등 일본산 가전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와 원화절상으로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하반기 수입은 달러화 기준으로 3.4% 증가할 전망이다.

〈표 II-20〉 가전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십억원, 백만 달러, %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26,642 (1.7)	14,050 (12.2)	13,900 (-1.6)	27,950 (4.9)	13,950 (-0.7)	14,100 (1.4)	28,050 (0.4)
수 입	3,497 (16.3)	2,004 (21.4)	1,982 (7.4)	3,986 (14.0)	2,040 (1.8)	2,050 (3.4)	4,090 (2.6)
내 수	15,798 (-4.2)	7,349 (0.7)	7,429 (-12.6)	14,778 (-6.5)	8,464 (15.2)	8,337 (12.2)	16,801 (13.7)
수 출	12,610 (17.2)	7,751 (29.6)	7,744 (16.8)	15,495 (22.9)	7,450 (-3.9)	7,700 (-0.6)	15,150 (-2.2)

주 : 1)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고, 수출입은 달러 기준임.

2) 가격 지표 : 생산과 내수는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 수출입단가지수 사용.

3) 내수는 생산+수입-수출의 개념.

(3) 정책 시사점

□ 수출의 부가가치 제고 위한 핵심부품 전문기업 육성 필요

- 향후 수출확대 지속과 국내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부품 공급국으로서의 위상정립을 통해 국내 가전산업 공동화에 대응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수요기업과 부품기업간 연계지원 강화, 기술 융합화·복합화 추세에 대응한 기술개발 지원범위의 포괄적 설정, 연구·검사장비 인프라 확충 및 활용 지원, 연관 산업의 선진화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
 - 특히 시장 성장기에 있는 디지털TV 칩과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투자와 모듈화 지원으로 중견 핵심부품 기업 육성

□ 핵심기술 개발 시급

- 디지털가전의 경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외국기술 의존도가 5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실정으로서 관련분야의 고급인력 육성과 핵심기술 개발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중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

- 중국과의 기술 및 표준화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간 동반 성

장을 추구해 가야 할 것임.

- 중국은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의 독자 표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중간 차세대기술 공동연구를 통하여 중국 표준화에 적극 참여

8. 통신기기산업

(1) 상반기 동향

- 2005년 상반기 국내 통신기기산업의 생산은 그동안의 수출 성장세 둔화와 소폭의 내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동기대비 2.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증가율은 크게 둔화하였지만, 성장세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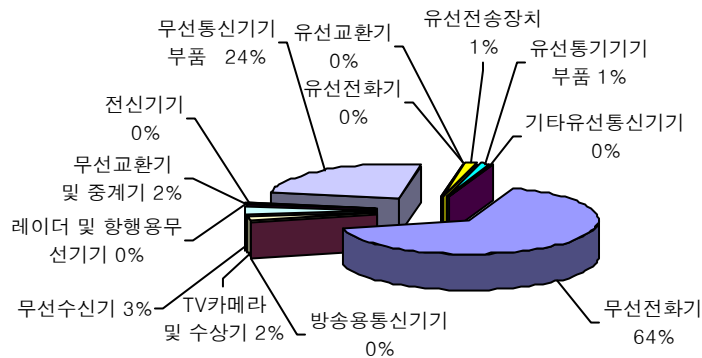
- 통신기기산업의 수출은 지난해까지 전년 동기대비 4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5년 상반기에는 증가율이 다소 조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작년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반영한 측면과 함께 우리의 주력품목인 이동전화기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첨단제품개발을 통한 선진업체와 가격경쟁력을 가진 중국업체들과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음.
- 그러나 주력수출품목인 이동전화기의 경우, 첨단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핀란드, 영국, 독일 등 유럽으로 수출이 확대되었음.

□ 내수는 신제품의 대체수요와 신규서비스 등에 의해 일정수준 증가

- 2004년 감소세를 보였던 내수시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상반기에는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이슈 부재로 성장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II-5> 통신기기산업의 품목별 수출구성비(200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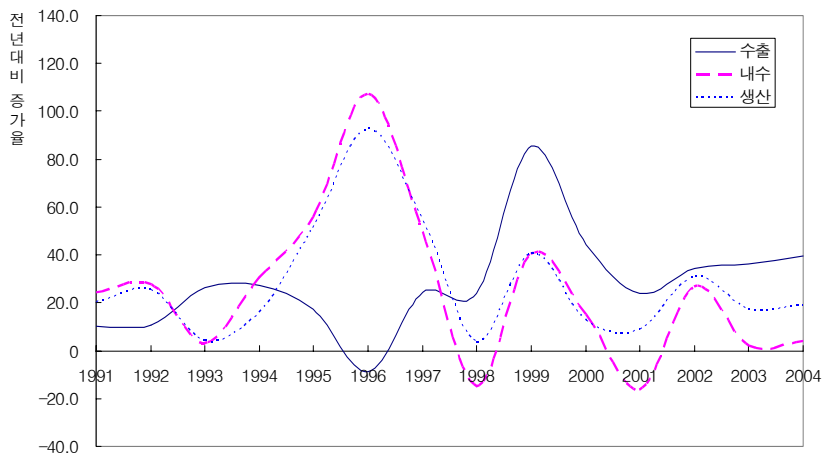


- 카메라폰, 멀티미디어폰 등 신제품에 대한 대체수요와 금년 초 번호이동성제도의 전면 시행 등 수요요인이 있으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보급률이 약 75%를 넘어서면서 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
- 특히 DMB 등 신규 서비스가 보급될 예정이지만 빠른 시장수요 확대는 어려울 것이며, 사업자들의 클린마케팅 도입과 DMB폰의 대기수요 등은 내수시장 확대의 부정적 요인이라 할 것임.

□ 이동전화기 생산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수입도 소폭 증가

- 카메라폰, 멀티미디어폰 등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한 이동전화기의 생산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관련부품에 대한 수입수

<그림 II-6> 통신기기산업의 생산, 내수, 수출 증가율 추이



요가 줄어들어, 통신기기산업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7% 정도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추정됨.

- 그 동안 적극적인 기술개발 노력으로 통신기기 관련 부품의 국산화율이 높아진 것도 수입수요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2) 하반기 전망

1) 통신기기산업의 여건변화

□ 첨단제품으로의 대체수요와 신규서비스에 따른 시장수요 증가

- 카메라폰, 뮤직폰, HDD폰 및 MP3폰 등 첨단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내수는 상반기보다 일정규모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특히, 하반기부터는 위성 및 지상파DMB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어 서비스에 따른 관련 기기의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이동통신 보급률이 매우 높아, 추가적인 신규가입자 유치가 어려워 대체수요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내수시장 확대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DMB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상파 재전송과 통신요금 등

일부 쟁점사항들에 대한 정책결정도 일정부분 시장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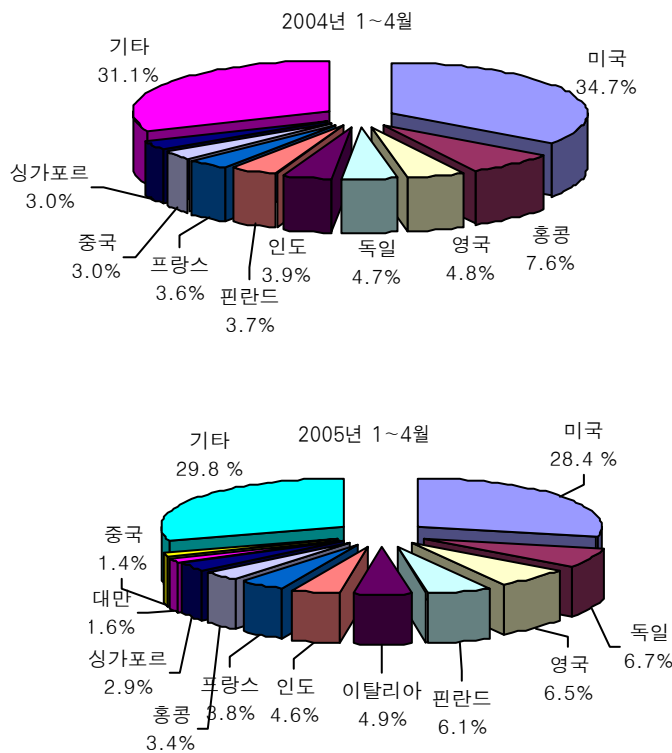
□ 세계시장의 성장세와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수출 증가

- 2005년 하반기에도 세계 이동전화기 시장의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속에 국내 주력 업체들의 지속적인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은 수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국내 이동전화기 부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첨단기술력과 높아진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선도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약진을 보이고 있음.
- EU 등 유럽지역의 이동통신 시장의 수요는 사실상 포화상태라 할 수 있지만, 첨단제품으로의 대체수요와 함께 3G 서비스 등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GSM폰에 이어 유럽 등에 본격적으로 3G WCDMA 공급이 기대되고 있어, 이는 수출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수출시장이 노키아, 모토롤라 등 선진업체들의 견

제와 중국업체들의 경쟁력 제고에 따른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더욱이 최근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휴대폰에 ‘보청기 호환성(HAC)’을 강제화한 새로운 FCC규격을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업체들이 이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다면 대미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임.

〈그림 II-7〉 지역별 이동전화기 수출 구성비



- 한편, 하반기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예상되고 있으나 통신 기기산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업체가 주력하는 분야가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어 위안화 영향에 따라 전세계 수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큰 폭의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진다면,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업체의 경쟁력 저하로 중국의 저가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는 수출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수출 및 신제품 수요증가에 따라 생산은 다소 증가

- 하반기 통신기기 생산은 첨단형 이동전화기의 유럽 등지로의 수출이 이어지고 신제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내수시장도 다소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이동전화기가 첨단화되면서 이동전화기 업체들의 생산구조가 관련 핵심부품의 조달이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취약점이 있음.
 - 이렇게 국내 생산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지시장 진입과 생산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중국 등 해외현지의 생산도 증가되고 있음.

○ 또한, EVDO 서비스 확대와 인터넷전화(VoIP) 수요 증가에 따른 IP장비와 기업용 통신장비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부분의 생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지멘스, 에질런트 등 다국적기업들의 국내에 생산기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 이들 기업의 국내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제품의 첨단화로 핵심부품의 수입이 증가하지만 소폭에 그칠 전망

○ 통신기기산업에서 수입되는 상당부분은 이동전화기와 관련된 핵심부품이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이동전화기가 첨단기능화 및 다기능화되면서 수입의존도가 증가되고 있음.

○ 그러나 상반기부터 통신기기의 주력제품인 이동전화기를 중심으로 생산이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부품의 수입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기업과 정부 등이 적극적인 기술개발 노력으로 제품에 소요되는 상당부분이 국산화되면서, 이동전화기 부품 수입을 대체해 나가고 있음.

□ 첨단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 예상

- 통신기기산업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표준화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전화기를 중심으로 한 첨단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세계 이동전화기 시장에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

〈표 II-21〉 통신기기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제품의 대체수요 지속 · DMB 등 신규서비스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전화기의 높은 보급률로 추가적인 신규수요 저하
수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이미지 제고 · 높아진 기술력 ·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화상태의 세계 휴대폰 시장 · 선진업체의 견제 · 중국업체의 경쟁력 제고
생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이후 수출수요 확대 · 신제품에 대한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의 생산 확대 · 다국적기업의 국내생산 확대
수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제품의 수요확대로 핵심 부품 수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부터 생산증가를 둔화 ·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B 신규서비스와 신제품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체들의 경쟁력 저하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전화기를 중심으로 한 통신기기는 주력 수출산업으로서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하지만, 일정수준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 특히, 전년에 비해 생산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업체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높아진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개되는 가운데, 3G에 이어 4G 기술개발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 그러나 무선인터넷, 모바일파이낸스 등 신규 사업의 활성화를 확신할 수 없는 시장여건이 이어지고, 3G 이동통신망의 경우 DMB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시장수요와 겹치면서 연구개발 또는 설비투자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2) 통신기기산업의 하반기 수급전망

□ EU 등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따라 16%대의 수출 증가

- 주력품목인 이동전화기 시장의 높은 보급률로 인해 수출수요가 상당부분 대체수요에 의존하는 상황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첨단제품의 지속 출시와 소비자 수요변화, 그리고 국내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에 따라,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6.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국내 업체들이 멀티미디어폰 등 첨단제품의 선도와 높아진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미국에서 유럽지역 등으로의 시장다변화가 진전될 것임.
- 다른 한편, 3G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시장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모토로라, 노키아

등 선진업체들의 견제와 중국업체들의 급격한 경쟁력 제고는 국내 업체들의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첨단제품과 신규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내수 8% 정도 증가

- 하반기 내수시장은 신제품으로의 대체수요가 이어지고 3G 및 DMB 서비스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8.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위성 및 지상파DMB 서비스에 따라 관련 기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EVDO 서비스와 VoIP 등의 수요 증가로 IP장비와 기업용 통신장비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이동전화기의 높은 보급률이 부담되며, 하반기에 예정된 신규서비스가 지연될 경우 내수시장 확대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임.

□ 수출에 힘입어 생산은 6% 정도 증가 예상

- 하반기부터 수출증가세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기기 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6.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DMB 등 신규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신제품에 대한 수요 지속 등은 하반기 생산증가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EVDO 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관련 통신장비 부분의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멘스 등 다국적기업들의 국내 생산기지 확대에 따라 이 부분의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지 시장진입을 목적으로 한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은 생산 증가에 부정적 측면으로 역할을 함.

□ 수입은 핵심부품 수입수요 확대로 6% 내외 증가

- 하반기 통신기기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3% 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이동전화기가 첨단화되면서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관련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증가되고 있지만, 이동전화기의 생산 증가율 둔화와 기술개발에 따른 국산화 등에 따라 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임.
 - DMB 서비스에 따른 관련 기기에 대한 수입수요와 첨단형 이동전화기의 수출증가율 회복에 따른 관련 부품의 수요에 따라 상반기보다 수입은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임.

〈표 II-22〉 통신기기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십억원, 백만 달러, %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37,930 (18.1)	21,783 (22.4)	23,120 (14.8)	44,903 (18.4)	22,235 (2.1)	24,547 (6.2)	46,782 (4.2)
수 입	3,340 (8.5)	1,842 (28.2)	2,050 (7.7)	3,892 (16.6)	1,891 (2.7)	2,179 (6.3)	4,070 (4.6)
내 수	18,789 (3.4)	9,165 (-3.6)	8,963 (-3.5)	18,128 (-3.5)	9,924 (8.3)	9,701 (8.2)	19,625 (8.3)
수 출	19,411 (36.4)	12,654 (50.7)	14,420 (30.9)	27,074 (39.5)	14,033 (10.9)	16,742 (16.1)	30,774 (13.7)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KOTIS.

주 : 1)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고, 수출입은 달러 기준임.

2) 내수 = 생산 + 수입 - 수출

3) 명목증감률 - 가격증감률 = 실질증감률

(3) 정책 시사점

□ 세계 이동전화기 시장 주도를 위해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첨단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원천기술개발과 설비투자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이동전화기에 필요한 핵심부품 및 장비산업의 국산화와 함께 기업간 공동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를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기지로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국내 생산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신규 서비스 확대와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전환으로 내수 기반 확충

- 통신기기산업의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하며, 통신기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제도와 정부정책들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할 것임.
 - DMB,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신규 통신 및 방송 융합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산업구조를 가격경쟁력이 아닌 차별화된 제품경쟁력에 의해 성장하는 산업구조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물량에 기인한 수출증가가 아닌 품질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형 수출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임.
 - 국내 제품이 선진국 제품에 비해 수출단가가 낮은 원인 중 하나로 브랜드 인지도의 부재를 들 수 있음. 이에 중소기업체들도 OEM 수출방식보다는 자가 브랜드를 통한 가격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허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 국내 대부분의 이동전화기 업체들이 해외업체들과 특허료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특허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략마련도 요구됨.
- 최근 GSM 이동전화기 특허에 관한 로드맵 완성의 경우와 같이, 특허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특히 3G WCDMA와 관련된 특허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마련이 필요할 것임.

9. 컴퓨터산업

(1) 상반기 동향

□ 내수는 신제품 출시, 가격파괴 등의 수요자극으로 소폭 증가

- 국내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내수기반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의 내수는 약간 증가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상반기 내수판매는 컴퓨터의 교체주기가 본격화되지 못하고는 있으나 가격경쟁의 여파로 판매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물량면으로는 다소 신장되고 있음.

- 그러나 노트북 가격이 70만원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가격 파괴 현상이 대두되면서 업계의 수익성은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생산은 내수침체 지속에 수출 부진까지 겹쳐 전반적인 생산 환경이 악화된 데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임.

□ 상반기 수출은 급격하게 위축

- 시장조사기관은 금년의 세계 IT 경기를 연초 기대보다 다소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어 세계시장 여건은 아직 양호한 편이지만, 수출 경쟁력 열세가 지속되면서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
- 상반기의 수출은 급격하게 위축되는 추세여서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임.
 - 상반기 수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수출비중은 작지만 조립 완제품(데스크톱, 노트북 PC)이 무역수지 적자로 반전되고 컴퓨터산업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임.
 - 이는 노트북의 수출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국내 수출물량이 크게 축소된 데 크게 기인함.

- 한편, 상반기 중의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하여 계속 확대되는 추세임.
- 수입증가율이 높은 것은 중국의 저가제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원화절상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가격경쟁력의 열세가 지속되기 때문으로 풀이됨.

(2) 하반기 전망

1) 컴퓨터산업의 여건변화

□ 내수판매는 물량기준과 금액기준에서 명암이 엇갈릴 듯

- PC보급률이 매우 높은 데다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산업적 특성상 교체수요 발생을 촉진할 수 있는 특수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판매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 내수 판매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물량 면으로는 메이커들간의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가격과괴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요를 자극하여 판매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는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판매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약간의 수요회복이 예상되는데, 수요를 자극할 멀티미디어 기능제품의 출시 및 노트북 수요 증가로 인해 교체수요가 다소 활발해질 것임.
- 내수부진에서 탈피하지 못한 주된 원인인 기업 수요는 2005년에도 회복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노트북에 대한 개인수요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됨.

□ 가격경쟁력 열세로 수출전망은 어두워

-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최근 세계 PC 출하량이 전년에 비해 10.2% 증가할 것으로 수정전망치를 내놓는 등 세계수요에 대한 낙관적 견해가 금년까지는 유지될 전망이어서 수출환경은 아직 양호한 편임.
- 그러나 이러한 상대적인 세계수요 호조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력 약화, 글로벌 메이커들의 지배력 강화, 중국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 불리한 수출환경은 수출을 위축시킬 것임.
- 하반기에 환율이 다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브랜드 인지도 열세, 가격경쟁력 열세 등으로 수출능력의 저하가 불가피할 것임.
- 여기에 최대 수출제품인 LCD모니터의 수출도 해외생산 확대와 전년도의 높은 수출증가율에 대한 반락 등으로 전

년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가격의 하락도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어서, 수출물량은 큰 감소없이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수출가격의 하락이 전체적인 수출규모를 감소시키게 될 것임.
 - 한국의 수출단가 추이를 개략적으로 추정해 보면, 2003년 말을 정점으로 한 후 지속적인 하락세로 반전하여 2005년 말에는 2003년 말 수준의 5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 중국 위안화 절상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중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수출은 다소 증가할 것임.
 - 수출이 일차로는 중국의 생산물량, 이차적으로는 세계 IT 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특성상, 위안화 절상은 대 중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므로 전체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할 것임.

□ 수출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산은 위축 불가피

- 생산부진은 그동안 대기업의 생산설비 해외이전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수출경쟁력 열세로 성장잠재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어 국내생산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불가능할 것임.

- 여기에 삼보컴퓨터의 법정관리 신청 원인이 HP에 대한 ODM 공급 축소라는 점이 의미하듯이 OEM/ODM 수출 경쟁력까지 상실해가는 흐름에 비추어 국내 생산기반도 위축될 것이 불가피함.
- 여기에 일본 브랜드 외에 HP, 델 등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하면서 국내 시장점유율을 계속 높여가는 추세여서 국내 생산을 위축시킬 전망이다.
-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종전 성능 위주에서 가격우선으로 변하고 있는 점도 채산성을 악화시키면서 생산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음.

□ 가격경쟁력의 열세로 수입수요는 증가추세

- 글로벌 메이커들이 중국에 생산거점을 집중하면서 세계 생산의 약 90%를 점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 내수판매 물량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서 중국산 부품을 포함하여 한국기업이 현지 생산한 모니터 등 역수입 제품도 계속 증가할 것임.
- 노트북 PC에 대한 수입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에는 무역적자로 전환될 것이 확실함.

- 삼보컴퓨터의 범정부관리 신청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이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어서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을 계속 잠식할 가능성이 높음.

□ 국내투자는 설비투자가 아닌 신제품 개발에만 제한적으로 가능

-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표 II-23〉 컴퓨터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내 수	· 노트북 수요 증가 · 제품가격 하락 지속 · 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	· 경기침체 지속으로 교체수요 장기화(기업수요 부진)
수 출	· 세계수요 10% 이상 증가	· 해외생산 확대 · 수출단가 하락 · 가격 경쟁력 약세
생 산	· 멀티미디어 기능제품 출시 확대	· 수출의 급격한 감소 · 수입수요 증대
수 입	· 저가제품의 수입수요 증가 ·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공세 강화	· 내수회복의 지연
투 자		· 국내수요 한계 · 국내투자를 해외생산으로 이전
종합평가	· 내수부진과 수출감소로 인해 전체적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 해외생산, 원화절상 등으로 수입증대, 채산성 악화 예상	

추세여서 국내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음.

- 국내생산은 국내시장용으로만 활용되고 해외수요는 해외 생산으로 대체하는 이원화 전략이 점차 국내시장용까지 해외조달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이동하게 될 것임.
-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공급 위상이 현저히 약화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2) 컴퓨터산업의 하반기 수급전망

- 내수는 수입증가의 영향으로 다소 증가할 것이나 체감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 수입이 증가하고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내수여건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재고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실질적인 내수 회복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임.
- 노트북을 중심으로 일부 수입제품에 대한 수요만 증가하면서 수치상의 내수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화된 컨버전스 제품의 출시와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내수 진작에 일부 기여하겠지만 교체수요를 활발하게 증가시키지는 못할 전망이다.

□ 세계수요 호조 유지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크게 감소할 전망

- 경쟁력 약화 및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수출여건의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임.
- 급격한 수출감소는 무엇보다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면서 수출시장을 상실한 영향이 크며, 해외공장에서의 수출물량이 국내 수출물량을 대체하는 효과도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수출은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여 컴퓨터산업 전체의 수출감소를 초래한 진원지가 될 것임.
 - 대중국 수출 감소는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초기만 해도 현지공장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많았지만 현재는 저가의 중국내 생산부품으로 대체되면서 수출판로가 위축된 데 따른 현상임.

□ 생산은 수출 감소, 내수부진 지속의 영향으로 감소 불가피

- 수출의존도가 높은 생산은 그동안 호재로 작용했던 수출능력이 현저히 약화된 데 따른 영향을 받아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 대기업의 자체생산 기반이 해외로 이전한 상태에서 생산

능력은 근본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울 것임.

- 국내시장에서도 외국기업 및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개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영세기업 간의 생산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들은 중국산 저가제품에 밀려 생산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출을 통해 극복하지 못한다면 생산위축이 불가피할 것임.

□ 수입수요의 증가로 수입증가율은 전년보다 높아질 전망

- 중국, 대만 등으로부터의 부품 수입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완제품인 노트북, 데스크톱의 수입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증가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확대 외에 중국 생산 확대의 부메랑 효과가 발생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역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3) 정책 시사점

□ 해외생산 확대에 대비하는 국내생산기반 지원

- 해외생산이 계속 확대될 경우 국내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표 II-24〉 컴퓨터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십억원, 백만 달러, %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23,090 (0.5)	12,713 (12.4)	10,100 (-14.2)	22,813 (-1.2)	9,853 (-22.5)	9,310 (-7.8)	19,163 (-16.0)
수 입	5,672 (-0.2)	3,060 (10.5)	3,280 (12.9)	6,339 (11.8)	3,663 (19.7)	3,690 (12.5)	7,353 (16.0)
내 수	12,000 (-13.6)	5,436 (-20.7)	4,953 (-4.3)	10,389 (-13.4)	6,260 (15.2)	5,277 (6.6)	11,537 (11.1)
수 출	14,977 (15.7)	9,295 (43.7)	7,827 (-8.0)	17,123 (14.3)	6,910 (-25.7)	7,645 (-2.3)	14,555 (-15.0)

주 : 1)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고, 수출입은 달러 기준임.

2) 내수 = 생산 + 수입 - 수출

있으므로 차세대 PC의 기술선점 지원, 핵심부품류의 개발 및 생산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세계적인 가격경쟁에 대응하여 대량생산능력을 갖추도록 기업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함.

□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

- 수출증가세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을 신흥국가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마케팅, 파트너 알선 등의 지원을 강화함.

□ 정부조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조달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의 입지를 확보해주어야 산업발전의 기반이 조성될 것임.

10. 반도체산업

(1) 상반기 동향

□ 중국시장의 특수로 메모리 수출 활발

- 금년 상반기에는 원화강세, 반도체 가격급락, 비수기 등의 여건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급증하였음. 이는 중국의 반도체 특수에 따른 것이며, 금년부터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반도체 수출국으로 부상
 - 이는 램의 수요처인 PC업계와 플래시메모리의 수요처인 휴대폰업계가 세계적으로 중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주력수출 품목은 D램과 플래시 메모리이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중국은 아직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한국에서 前공정(Fab)을 마친 반제품을 중국에서 후

공정(조립가공)을 통해 최종반도체를 생산하는 분업구조로 인해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국별 수출 증가율(1~4월, %) : 중국(177.9), 대만(24.6), 미국(-3.4), 홍콩(15.7), 일본(-28.2)

□ 내수경기 둔화로 수입도 크게 위축

-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수요를 진작시키는 응용제품의 경기가 침체되어 내수는 물론 수입부문도 크게 둔화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국내 수요는 반도체 응용제품인 PC, 디지털가전,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등이 반도체 내수를 견인해 오고 있음. 이러한 응용제품에 필요한 반도체는 대부분 비메모리이며, 이들 제품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D램 가격 급락

- 최근 시장 주도제품인 256M DDR D램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수요처인 PC의 세계적인 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
 - 금년 전체를 보더라도 가격 하락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됨. 공급측면에서 주요 업체들의 0.11 μ m 공정 비중이 60%를 넘어섰고, 200mm보다 2.5배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는 300mm라인이 본격 가동되고 있음.

- 반면, PC보급 포화상태로 D램 수요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

□ 하이닉스 중국 현지투자 본격화

- 하이닉스는 금년 4월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의 국가산업공단지에서 D램 및 플래시 메모리의 일관공장 건설 기공식을 가졌음.
 - 이는 프랑스의 STMicroelectronics사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형태이나 경영은 하이닉스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앞으로 하이닉스가 중국 현지에 D램 일관생산 체제(전공정 + 후공정)를 갖춘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한·중간의 새로운 경쟁관계로 등장 예상
 - 특히 하이닉스의 중국내 반도체 공장 계획은 12인치 라인 의 최첨단 D램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임.

(2) 하반기 전망

1) 반도체산업의 여건변화

□ 세계 반도체시장의 전반적인 부진 현상

- 세계 반도체시장은 작년 2분기에 경기정점에 도달 한 후 하강국면에 돌입하여, 금년 하반기에도 약세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금년 세계 반도체시장은 전년 대비 6.3%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더욱이 우리의 주력 제품인 D램 시장은 -2.1%로 오히려 시장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욱 심화되어 -8%나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D램의 70%가 PC에 사용되고 있으나, 세계 PC시장은 급격한 둔화를 보여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고 있음. 하반기의 우리나라 D램업계는 치열한 가격경쟁과 함께 원화절상으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될 수도 있음.
- 세계 플래시 메모리 시장은 금년에 약 6%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음. 플래시 메모리는 주로 MP3, 디지털카메라, USB메모리스틱, 휴대폰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업계가 세계 플래시메모리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성장률의 정점이 시장규모의 정점을 의미하는 것이

〈표 II-25〉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반도체 전체	28.0	6.3	5.2	10.5
D램	60.9	-2.1	-8.0	10.4
플래시	33.0	5.9	1.6	9.8

자료 : WSTS(2005. 5. 31).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 기업은 경쟁력의 독보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이룩할 것으로 판단됨.

□ 낸드플래시가 D램 부진을 상쇄

- D램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낸드플래시 메모리시장은 MP3,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USB메모리스틱 등의 저장장치 용량 증가에 힘입어 급격한 수요증가를 보일 것임. 우리나라는 세계 플래시 시장의 약 25%를 점유하는 세계 1위 수출국
- 하반기의 반도체 수출이 원화 강세와 판매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원화절상 부문을 수출가격에 전가하기보다 고급제품으로 전환하여 시장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임. 즉 낸드플래시의 공급확대, D램의 고급화, 제조원가 절감 등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결과적으로

로 수출액 증가를 가져오게 됨.

□ D램의 주력제품, 세대교체 급격히 진행

- D램 시장에서는 256M DDR의 경우 512M DDR과 DDR2로 제품전환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음. 이는 기존 256M DDR의 범용제품 가격하락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선발국인 우리 업계가 자구책으로 고급제품 비중을 높여 수익을 확보하려는 데 기인
- 이러한 D램의 고급화는 수출액의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D램 시장의 약 45%를 차지하는 1위 수출국

□ 위안화 절상되더라도 반도체의 영향 미미

- 반도체의 가격은 거의 전적으로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되므로 환율 변동에의 영향이 미미함. 즉 반도체의 수출구조나 경쟁력이 환율 변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 중국의 위안화가 절상되더라도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비경쟁 관계로 인해 영향이 거의 없음.
 - 한국 수출 품목은 D램과 플래시 메모리이며, 중국은 파운드리산업(생산설비만 있고 자기제품은 없는) 중심

〈표 II-26〉 반도체산업의 여건변화 전망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내 수	· 디지털카메라, MP3, PMP, 디지털가전 등 반도체 응용분야의 국내 수요 다소증가 예상	· 컴퓨터, 휴대폰 등의 반도체 수요 감소예상
수 출	· 플래시메모리의 세계적 수요 급증으로 수출 증가	· 미국 PC업계의 구조조정으로 D램 수요 격감 · 256M DDR D램의 가격급락
생 산	· 메모리업계의 12인치 라인 본격가동으로 생산 급격한 증가 · D램의 세대교체와 선행투자를 통한 시장선점 효과	· 세계 메모리업계가 동시에 12인치 라인을 가동하여 공급과잉 우려
수 입	· 원화강세로 비메모리의 수입 증가 예상	· 컴퓨터 등의 국내생산 부진으로 비메모리의 수입 경감효과
투 자	· 수도권 투자규제 완화로 12인치 라인 투자 확대 기대	· 하이닉스의 중국 현지투자 본격화
가격 및 채산성	· 원화절상에 의한 수입품의 가격하락	· 가격의 급격한 하락 예상 · 채산성 악화우려
종합평가	· D램 부진을 낸드플래시의 수출확대로 상쇄 예상 · D램의 고급화로 수출액 상승 · 하반기의 주기적 경기상승으로 수출증가 예상	

자료 : 산업연구원(KIET).

- 다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 위안화 절상의 영향으로 PC, 휴대폰 등 메모리 다소비 완제품의 수출둔화가 시작되면, 한국에서의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임.

2) 반도체산업의 하반기 수급전망

□ 생산 및 수출은 지속적 증가세 유지될 듯

- 비록 세계 반도체시장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메모리의 경쟁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수출은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금년 하반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5% 증가한 1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 정도의 수출 규모는 매월 평균 25억 달러 이상을 수출해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국내 반도체업체 수를 비교하면, 업체당 반도체 수출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생산부문은 12인치 웨이퍼 공장의 본격 가동으로 차질 없이 대량생산이 가능하나, 수출수요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늘어나지 않으므로 이와 연동되어 견조한 증가를 보일 것임.

□ 내수와 수입은 상당한 둔화를 보일 듯

- 내수 및 수입은 DMB 방송 본격화와 MP3 등 다양한 디지털제품에 대응하여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요가 창출될 것임.
- 내수는 반도체 자체가 중간재이기 때문에 국내 휴대폰, 디지털가전 등 응용제품의 수요둔화로 침체현상을 보일 것임.

〈표 II-27〉 반도체산업의 수급전망

단위 : 십억원, 백만 달러, %

	2003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생 산	27,140 (21.4)	16,610 (33.4)	17,259 (10.8)	33,869 (24.8)	15,991 (-3.7)	17,592 (1.9)	33,583 (-0.8)
수 입	21,328 (22.0)	11,724 (16.7)	11,894 (4.6)	23,618 (10.7)	12,090 (3.1)	12,540 (5.4)	24,630 (4.3)
내 수	29,276 (18.6)	15,295 (7.1)	15,256 (2.7)	30,551 (4.4)	13,861 (-9.2)	14,726 (-3.5)	28,587 (-6.4)
수 출	19,535 (17.5)	12,872 (55.8)	13,644 (21.0)	26,516 (35.7)	14,190 (10.2)	15,350 (12.5)	29,540 (11.4)

자료 : KOTIS(수출입), KAIT(생산), KIET(전망).

주 : 1)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고, 수출입은 달러 기준임.

2) 내수가격의 경우 반도체의 내수는 수입제품이 대부분이므로 수입가격 증감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했으며, 또한 수출입 가격증감률은 달러기준 기본분류에 의함.

- 내수용 반도체는 대부분 비메모리이므로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해야 함. 다만 원화절상 등으로 수입가격이 낮아져 수입의 절대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종합적으로 보면, 반도체 경기는 하반기부터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급격한 가격하락세를 멈추고, 상당한 수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우리 업계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낸드플래시의 공급확대, D램의 고 급화, 가격결정의 리드화 등으로 수출증대를 꾀하고 있는 데 기인함.

(3) 정책 시사점

○ 메모리 부문의 경쟁력 우위 지속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노력

- 이미 확보한 메모리부문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공동참여의 첨단기술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것임.
- 메모리반도체 제조는 이제 나노기술로 접근해야 하므로 관련 원천기반기술이 취약하여 세계 메모리산업을 선도하는 데 한계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신기술 개발의 원천이 되는 선평, 표면처리, 불순물처리 등 정밀측정 및 평가기술, 환경 친화성 기술 등 선행 원천기술을 산·학·연이 연계 개발토록 함으로써 세계 메모리 반도체산업을 선도 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비메모리 부문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필요

- 비메모리 분야는 설계기술이 관건이므로 설계기술인력 양

성에 지금보다도 질적, 양적으로 더욱 확충해야 할 것임. 특히 질적으로는 자동차나 휴대폰 등 시스템을 설계하는 인력이 반도체를 설계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업종간, 학제간 교차교육을 통해 반도체 설계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부터 서둘러야 할 것임.

○ 반도체 벤처타운 조성 필요

- 산업체 및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파생된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창업공간 제공, 시장조사, 시제품생산 및 판매, 자금지원, 생산입지 공급에 이르기까지 일괄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반도체 벤처타운”을 구축
- 반도체 및 관련 산업 전반의 연구시설을 집적시켜 소자, 장비, 재료, 설계 등 반도체산업 내부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클러스터 구축

Issue Paper 2005-189

2005년 하반기 경제전망 - 거시경제와 산업별 전망 -

發行處：産業研究院(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淸涼里洞 206-9)

發行人：오 상 분

登 錄：1983年 7月 7日 第6-0001號 / 電話：3299-3114 (代)

印 刷：2005年 7月 16日 / 發行：2005年 7月 18日

印刷處：태광인쇄

ISBN 89-90789-89-3 93320

購讀問議：편집팀(3299-3151)
內容의 無斷轉載 및 譯載를 禁함.
普及價 8,000원